

진주교 서울대학교  
민족화해위원회 30년사

진주교 시흥대학교  
민족화해위원회  
30년사

30

## 시대의 징표를 깨닫고, 평화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과 매달, 그리고 매년은 모두 참으로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간은 마치 물이 흐르듯 과거-현재-미래로 단순히 연속되는 시간(Chronos)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모든 이들이 구원되고 모든 사회가 쇄신으로 나아가는(「사목현장」 3항) 과정으로써의 시간(Kairos)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분석하며, 미래를 지향하는 것도 개인의 구원과 공동체의 쇄신이 하느님의 보편적 구원 의지를 드러내는 여정 이기에 그러합니다.

지난 1995년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남과 북이 갈라져 증오와 미움을 이어온 지 50년이 되는 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적 의미를 담아 전임 교구장이신 김수환 추기경님을 비롯한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한국천주교의 교구 단위로는 처음으로 서울대교구에 민족화해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올해는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가 1995년 3월 1일에 발족 선언을 한 지 꼭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같은 시간을 공유하는 민족의 역사도 올해로 광복 80주년이자 분단 80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민족화해위원회의 30년사를 돌아보는 것은, 우리의 활동을 스스로 뿌듯해하거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 자랑스럽게 보이고자 함이 아닙니다. 아직도 증오와 적개심이 남아있고 사랑과 화해가 민족의 나아갈 길을 비추지 못하는 분단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교회의 역할을 다시금 다짐하고 고민해 보고자 함입니다.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뿌리내리고, 남북이 적개심을 넘어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 왔던 <기도>와 <나눔>과 <교육·연구>의 사목적 비전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되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모아 기도했는지, 아끼거나 주저함없이 기꺼이 나누어왔는지, 그리고 참된 평화를 공부하고 가르쳐왔는지를 말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하느님께서 아직도 분단이 지속되는 한반도에 원하시는 바를 성찰하고 식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고민하고 용감하게 길을 개척했던 이들의 여정을 돌아보고, 이를 통해 교회 구성원 모두가 시대의 징표를 깨닫고, 평화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책의 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시금 일깨울 수 있는 작업이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고 미처 기록하지 못한 부분들을 일깨워주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사무국과 한국교회사연구소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기억과 기록이 지금을 밝혀주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길 기원합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겸 평양교구장 서리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대주교 정순택 베드로

## | 축사 |

## 형제애로 이어온 화해와 일치의 역사, 30년

찬미 예수님!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의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를 기념하며 발간하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30년사』가 나오기까지 애써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는 광복 50년을 맞는 1995년 3월 1일 김수환 추기경께서 발족하신 후, 민족의 화해와 일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민족화해위원회는 남북관계가 화해와 불화가 교차하는 가운데서도 분단된 한반도에 진정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증오를 사랑으로, 불화를 화해로, 분단을 일치로 이끌어” 나가고자 노력했습니다.

저 역시 1995년 민족화해위원회 발족부터 1998년까지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으로, 2002년에는 위원장으로서 민족화해위원회의 여정에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민족화해위원회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기도, 교육, 나눔이라는 설립 취지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될 때, 혹은 북측 카운터 파트너와의 협상 과정에서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 남북관계 역시 평화, 화해, 일치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희망을 놓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지향하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는 단순한 정치적 타협이 아니라, 복음에 기초한 화해와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민족화해위원회는 기도, 교육, 나눔 등의 활동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고, 남과 북이 한 형제임을 깨닫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

다. 예컨대 북한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대북지원,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신자들의 의식 교육을 위한 민족화해학교 개설 등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민족화해위원회의 헌신이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화해, 일치를 향한 길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언제나 희망의 표징으로서, 사랑과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회칙 「모든 형제들」(fratelli tutti)에서 인류화합을 위해 공동체적 형제애를 사회윤리로 제시하셨습니다. 남북의 화해와 일치, 진정한 평화는 남북 간 형제애의 실천을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는 형제애가 기반이 된 화해와 일치의 과정이어야 합니다.

민족화해위원회는 어느새 이립(而立)이 되었습니다. 뜻을 세우는 나이를 맞았으니 더욱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도약해야 합니다. 민족화해위원회의 사명이 더욱 깊이 뿌리내리고,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한반도의 평화가 실현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민족화해위원회 30년사가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는 동시에, 앞으로 나아갈 길을 비추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민족화해위원회의 30주년을 축하드리며,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추기경 **염수정 안드레아**

## | 축사 |

##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30년을 맞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평화의 사명을 다시 되새깁니다

올해는 분단된 지 80년이 되는 해입니다. 피를 나는 형제라도 이 시간은 둘이 멀어지기에 충분합니다.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겪은 우리 민족에게 갈라진 채로 보낸 80년은 서로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얘기하지만, 정작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잊곤 합니다.

지금 한반도에 있는 갈등과 대립은 바로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가 요원해진 현재, 우리는 이념과 체제를 극복하지 못한 채 서로가 형제였다는 것을 점점 잊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북한과의 현실적인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을 이유로 우리의 기억에서조차 그들의 손을 놓아버린다면, 훗날 북한과 다시 만날 수 있을 때 온전히 북한을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의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실천해 온 서울대교구의 모든 사제, 수도자, 신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특별히, 초대 위원장이신 최창무 대주교님을 비롯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헌신적으로 이 사명을 수행해 오신 모든 분들의 노고를 기억합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귀중한 초석이 되었음을 감사의 마음으로 되새깁니다.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의 아픔을 안고 있으며, 갈등과 대립의 벽을 허물어야 할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는 지난 30년 동안 신앙 안에서 형제적 사랑을 실천하며,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기도와 교육, 대화와 나눔을 통해 북한 형제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 사회 안에서 평화의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복음적 사명이며, 교회가 민족의 화해를 위해 수행해야 할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30년을 돌아보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평화의 사명을 다시금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민족의 화해를 위한 작은 밑알이 되어, 기도와 연대,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사랑과 평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특별히 청년 세대와 함께 평화교육을 강화하고, 신앙 공동체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희망의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의 지난 30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더욱 큰 결실을 맺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천주교 춘천교구장 겸 함흥교구장 서리

주교 김주영 시몬

## 일러두기

1.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30주년사』의 자료 수집 및 원고 작성, 간행은 한국교회사 연구소에서 담당하였다.
2. 원고는 크게 3부로 나누어 제1부는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30년의 역사, 제2부는 화보, 제3부는 부록으로 구성하였다.
  - 제1부는 총 5장으로 구성하였다. 시기별로 제1장은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의 태동기 : 1982-1994', 제2장은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의 출범과 활발한 대북지원 : 1995-2003', 제3장은 '민족화해를 위한 인도적 대북지원과 활동 : 2004-2013', 제4장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과 '평화나눔 운동'으로의 전환 : 2014-2025', 제5장은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의 현황과 비전'으로 작성하였다.
  - 제2부는 1995년 설립부터 30주년을 맞는 2025년까지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의 발자취를 살펴볼 수 있는 주요 사진들을 모아 화보집으로 구성하였다.
  - 제3부는 연혁과 함께 역대 위원장·부위원장·운영위원장·상임위원·위원들의 명단, 역대 수도자와 직원 명단, 조직도, 교육 커리큘럼,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통계, 부설 기관과 산하 기관을 실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의 생생한 역사를 살필 수 있는 구술채록을 수록하였다.
3. 민족화해위원회는 그동안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사람을 귀순자, 탈북민, 새터민,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용어로 불렀다. 이 책에서는 민족화해위원회가 현재 사용하는 표현인 북한민으로 통일하여 표기하였으나, 행사명이나 자료 인용의 경우 당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4. 본문에 나오는 인명 표기는 사제의 경우 ( ) 속에 한자, 세례명을, 수도자나 평신도는 ( ) 속에 세례명만 표기하였다.

## 차례

발간사 - 정순택 대주교 4

축사 - 염수정 추기경 6

축사 - 김주영 주교 8

### 제1부

## 제1장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의 태동기 : 1982-1994 18

1. 민족화해와 한국교회 창립 200주년 22

2. 200주년 기념 대북한선교사업 25

- 1) 200주년 기념 특별 사업으로 '북한선교부' 신설
  - (1) 북한선교부의 조직과 활동
  - (2) 북한교회를 향한 메시지 선포
  - (3) 북한선교부 사업 계획 수립

- 2) 주교회의 직속 기구로의 개편 및 '북한선교위원회'로 개칭
  - (1) 위원 확대와 조직 활성화
  - (2) 북한선교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 (3) 한국천주교 통일사목연구소 설립

3. 민족화해위원회 설립 전 남북 교류 46

- 1) 고종옥 신부의 방북
- 2) 장익 신부의 방북
- 3) 조선천주교인협회, 천주교 서적 발간

4. 민족통일을 향한 한국교회의 움직임 55

- 1) 민족통일 문제, 첫 주교 간담회 개최
- 2) 교회 내 북한선교 개념 정립

# 1995-2025

## 제2장

서울대학교 민족화해위원회의 출범과 활발한 대북지원 : 1995-2003 66

### 1. 서울대학교 민족화해위원회의 발족과 조직 정비 68

- 1) 민족화해와 김수환 추기경의 방북 원의
- 2) '서울대학교 민족화해위원회' 명칭
- 3)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사업 계획안
- 4) 서울대학교 민족화해위원회의 발족과 조직 변화
- 5) 민족화해위원회의 모금활동과 문화 행사

### 2. 북한교회를 위한 민족화해위원회의 노력 84

- 1) 민족화해미사와 기도운동
- 2) 북한교회와의 관계 맺기 : 대북 접촉의 시작과 뉴욕 세미나
- 3) 최초의 사목적 방문
- 4) 장충성당 지원
- 5) 북한사목 희망 사제 모임
- 6) 북한 신자들의 명동대성당 방문

### 3.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102

- 1) 대한적십자사, 홍콩 카리타스를 통한 지원
- 2) 범종교연합 모금운동
- 3) 대북지원사업의 다각화 노력
- 4) 북한민 지원사업과 '하이모' 결성

### 4. 북한과 북한교회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 116

- 1) 민족화해학교 개설
- 2) 민족화해학교 교육과정
- 3) 그밖에 학술 활동

### 5. 민족의 재발견에 함께하는 교회 125

## 제3장

민족화해를 위한 인도적 대북지원과 활동 : 2004-2013 128

### 1. 미래 통일사목의 토대 마련 130

- 1) 참회와 속죄의 성당과 민족화해센터 건립
- 2) 신학생 '모듬살이' 금강산 연수
- 3) 민족화해학교 재개

### 2. 민족화해와 일치를 구하는 기도 141

- 1) 민족화해위원회 10주년 기념미사
- 2) 민족화해미사
- 3) 개성공단 신자공동체, 로사리오회 특별미사

### 3. 생산기반 구축 지원과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145

- 1) 인도적 대북지원과 방북
  - (1) 국수공장 운영 지원
  - (2) 룡천역 폭발 참사 지원
  - (3) '북녘에 보내는 사랑의 경운기' 사업
  - (4) 어린이 영양제 생산공장 건립과 지원
  - (5) 북한 어린이 돕기 운동 우리은행 전국지점 저금통 비치
  - (6) 왕진 가방 지원
  - (7) 공기름 공장 건립과 운영 지원
- 2) 후원회 활성화
- 3) 북한민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하이모'

### 4.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육·연구 157

- 1) 민족화해위원회 설립 9주년 세미나
- 2) 북한민 민주시민교육 실시
- 3) 북한민 농촌 이주 및 생산협동조합 창업 지원 프로그램
- 4) '불어라 세계평화의 바람'(2012)

### 5. 진정한 용서와 화해 그리고 자기 성찰 163

## 제4장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과 '평화나눔' 운동으로의 전환 : 2014~2025 164

### 1. 북한민 지원사업의 본격화와 '평화나눔' 운동 추진 167

- 1) 조직 구성 변화와 체계 개편
- 2) 대북 '평화나눔' 사업으로의 재개 움직임
- 3) 북한교회와의 '평화나눔' 합의
- 4) '더불어 함께'하는 북한민 지원의 확대

### 2. 기도운동의 다각화 : '민족의 화해와 일치', 그리고 '한반도 평화' 181

- 1)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운동의 지속
- 2) '북녘 교회를 위한' 기도운동의 확대
- 3)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기도운동의 강화

### 3. '평화나눔' 교육·연구의 본격화 190

- 1) 평화나눔학교 개설과 평화교육 실시
- 2) 평화나눔연구소 설립과 평화연구 착수
- 3) '민족의 화해와 평화에 대한 인식조사' 실시

### 4. '평화나눔' 운동의 활성화 시도와 과제 199

## 제5장

서울대학교 민족화해위원회의 현황과 비전 206

서울대학교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정순택 대주교 대담 208

## 제2부

화보 1995~2025 225

Photographic Contents 370

## 제3부

부록 연혁 381

Timeline 401

역대 위원장·부위원장·본부장·사무국장 416

역대 상임위원·위원 417

역대 수도자·직원 421

역대 조직도 422

### 교육 분야

민족화해학교 437

평화나눔학교 445

화해·평화학교 447

### 사업 통계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448

### 부설 기관

평화나눔연구소 460

### 산하 기관

(사)우니타스 485

### 구술채록

노길명·조광 교수 492 | 최창무 대주교 506 | 이기현 주교 522 |

정광웅 신부 533 | 염수정 추기경 545 | 장공선 신부 554 |

오혜정 수녀 563 | 정세덕 신부 573 | 정수용 신부 586

1995-2025



---

# 제1부

---

## 제1장

서울대학교 민족화해위원회의 태동기  
: 1982-1994

## 제2장

서울대학교 민족화해위원회의 출범과 활발한 대북지원  
: 1995-2003

## 제3장

민족화해를 위한 인도적 대북지원과 활동  
: 2004-2013

## 제4장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과 '평화나눔' 운동으로의 전환  
: 2014-2025

## 제5장

서울대학교 민족화해위원회의 현황과 비전

##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의 태동기

1982  
-  
1994

1945년 해방 후 한반도는 남북으로 나누어지고 가톨릭교회도 분단되는 아픔을 겪었다. 한국전쟁으로 교회는 인적 물적 피해를 입었으며, 전쟁 과정에서 일어난 가톨릭교회에 대한 탄압과 박해는 신자들이 북한 당국을 인식하는데 지배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반공의식의 내면화는 비단 남한교회만의 경향은 아니었다. 당시 세계 교회 역시 반공 이데올로기를 지니고 있었다. 세계 교회는 이미 19세기 말부터 유신론 대 무신론, 정신주의 대 물질주의, 창조론 대 진화론이라는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통해 공산주의 운동을 무신론적 반(反) 종교 세력으로 규정하였다. 반공주의는 신자들에게 깊이 각인되었고,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노력이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찾기로 쉽지 않았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교회는 사회 대내외적으로 큰 변화의 흐름을 타기 시작했다. 교회는 민주화나 사회정의 문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정권 안보를 위한 반공주의에 저항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고착화된 분단 의식과 공산주의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한국교회의 통일 담론들에는 '통일 지향성'과 '분단 지향성'이 공존했으며, 민족의 통일과 북한선교의 필요성은 실질적인 차원의 접근보다는 소극적인 차원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동서긴장 완화 등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1971년 8월에 '대한적십자회담'이 이루어지고, 분단 이후 첫 남북대화가 「7·4 남북 공동성명」으로 결실을 맺었다.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는 '대화 없는 대결'에서 '대화 있는 대결'의 시대로 들어섰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남북관계는 결코 생산적이지 못하였다. 양측 모두 상대방이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을 들고 논의를 시작하였기에 만남이 성사되더라도 각자의 이익만을 내세우는 가운데 결론이 없

는 논쟁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교회의 통일 운동은 1980년대 들어 전반적으로 활성화되었다. 통일에 관한 생각과 노선이 다양화되면서 갈등과 충돌을 빚기도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민족화해와 일치가 교회의 사명이자 본분임을 잊지 않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길을 모색하였다. 여기에는 월남한 신자들이 조직한 신우회의 역할이 컸다. 평양교구 신우회(1949년 설립), 원산·덕원 신우회(1984년 설립), 함경도 신우회(1985년 설립) 등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교구사 간행, 신학생 양성 등 통일 후 교회를 위한 준비를 꾸준히 하였다.

1982년 한국교회는 다가오는 200주년을 준비하며 그동안 우리 겨레에 베풀어 주신 하느님의 오묘한 섭리와 은혜를 기억하고, 복음 정신으로 민족과 국가의 시대적 표징을 바라보며, 한국교회에 주어진 현재와 미래의 과제를 수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북한 동포를 기억하는 가운데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특별 기념사업으로 ‘북한선교사업’과 ‘맹인 개안 시술’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1984년 한국을 처음 방문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한반도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교황은 “분단된 한반도의 상황은 분열된 세계를 상징한다.”며 한국교회 신자들이 이루어야 할 평화에 대한 특별한 사명을 강조하였다.<sup>1</sup> 특히 “한국교회 신자들의 체험이 오히려 평화와 형제애 안에 살기를 염원하는 세계 만민의 간절한 바람에 항구한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각자가

1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분단 한국의 고통은 세계 분열의 상징」, 한국천주교회 200주년 기념행사 위한 방한 시 외교관 접견 연설(1984. 5. 4, 교황대사관).

하느님 평화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기를 바란다.”는 교황의 기도와 당부는 한국교회 안에 응축되어 있던 민족화해와 일치의 불꽃을 타오르게 하였다.

1986년 3월 제44차 세계성체대회의 서울 개최가 확정된 후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라는 성체대회 주제가 결정되었다. 이듬해인 1987년에는 헌혈, 헌미, 결연 운동을 통칭하여 ‘한마음한몸운동’으로 하고 ‘성체의 나눔’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시작하였다. 1989년 세계성체대회 이후 한마음한몸운동은 서울대교구 본부로 재발족되었으며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설립 초기부터 지원과 협력을 이어갔다.

1992년 2월에는 다섯 차례의 남북 고위급 회담과 열세 차례의 실무대표 접촉을 통하여 남북한 양측이 서로의 존재 양식을 인정하고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중상을 삼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골자로 하는 「남북기본합의서」에 공식 합의하였다. 이로써 민족화해와 일치를 위한 한국교회의 기도와 대북 접촉 노력이 결실을 맺는 듯하였으나 북한의 태도 변화로 남북한 관계는 다시 경색의 국면에 들어서게 되었다.

1994년 12월 25일 김수환(金壽煥, 스테파노) 추기경은 성탄절 메시지를 통하여 “평양교구의 목자로서 한 번도 평양에 가보지 못한 아픔과 몇 번의 방북 기회가 있었지만 무산된 애타는 마음”을 전하며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가 보고픈 마음이 간절하다.”는 인사를 북한 동포들에게 전하였다. 추기경은 이듬해 신년 대담에서 광복 50주년을 맞아 교회가 말아야 할 뜻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리고 그해 3월 1일 자로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희망이 구체화되었다.

## 1. 민족화해와 한국교회 창립 200주년

한국교회가 민족화해와 일치의 의미를 본격적으로 떠올리기 시작한 것은 한국교회 창립 200주년을 맞이하면서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1973년 10월 15~19일에 경북 왜관 피정의 집에서 열린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에서 ‘1984년 한국 천주교 200주년’ 기념사업 준비를 위한 ‘200주년 기념 주교위원회’를 설립하였다. 200주년 기념 주교위원회 의장은 김수환 추기경, 부의장은 윤공희(尹恭熙, 빅토리오)·김재덕(金在德, 아우구스티노) 주교, 서기에는 나길모(羅吉模, Gulielmo Wiliam John-McNaughton) 주교가 선출되었으며, 사무총장에는 이종흥(李鐘興, 그리산도) 신부, 사무차장으로는 정하권(鄭夏權, 플로리아노)·정은규(鄭銀圭, 시몬) 신부가 임명되었다.<sup>2</sup>

그리고 1979년 4월 25일에 열린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에서 서울, 대구, 광주 세 관구별로 한국선교 20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계 정기총회 때 기획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그해 추계 정기총회에서는 관구별 위원회 구성 및 전담 신부 선정 문제를 거론하였을 뿐 기획안은 논의하지 않았으며, 각 교구별로 200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이듬해 1월 임시총회를 열어서 구체적인 사안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한국교회 창립 200주년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1980년 1월 14일에 열린 주교회의 임시총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이 자리에서 “외적인 행사

2 최창무, 『한국 천주교회 총람 1995~2003년』, 2004,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412쪽.

보다 내적 신앙의 쇄신과 생활화를 기함으로써 한국교회의 역사를 재정립하는 데 의의”를 두고 “복음적이고 순수한 모습의 교회상을 회복시키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교회 창립 200주년 기념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장으로는 경갑룡(景甲龍, 요셉) 주교를 선임하였다.

이어 11월 17~20일에 서울 중곡동 메리놀외방전교회 한국지부에서 추계 정기총회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한국교회 200주년과 관련된 사안들이 결정되었다. 한국 천주교 200주년 준비위원회를 ‘한국 천주교 200주년 주교 준비위원회’로 재구성하였으며, 주교 4명으로 주교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야별로 준비할 수 있게 하였다. 준비위원장은 윤공희 대주교가 맡고 기념 대회는 경갑룡 주교, 기념 회의는 박정일(朴正一, 미카엘) 주교, 기념 문화는 김남수(金南洙, 안젤로) 주교가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또한 1981년부터 1984년까지 매년 9월 첫 주일을 ‘한국 천주교 200주년 기념 주일’로 제정하였으며, 공동 사목 목표를 정하여 실천하기로 하고 1981년을 ‘이웃 전교의 해’로 정하였다.

“1984년에 우리는 이 땅에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교회가 세워진 지 200주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뜻깊은 해를 맞이하여 우리는 세계 교회사상 길이 빛나는 초창기 한국 신도들의 믿음과 죽음을 무릅쓴 활동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교회 기틀이 다져졌음을 상기하고 감사드리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 자신의 믿음과 교회 생활 전체를 반성하고 재정리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한국 주교단은 앞으로 4년간, 선교 200주년

을 준비하는 동안 통일된 사목 방향을 공동으로 선정하여, 전국의 모든 본당과 신자 가정들이 한 교회를 이루고, 앞으로 온 겨레를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획기적인 계기로 삼을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sup>3</sup>

1982년 주교회의는 소식지인 「회보」 창간호에 200주년의 기념 표어로 “이 땅에 빛”을 사용하기로 공식 발표하였으며, 200주년을 기념하면서 북한 동포를 특별히 기억할 것을 강조하였다.

“한국천주교회는 1984년으로 2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복음 정신으로 이 민족과 국가의 시대적 표징을 직시하여 오늘과 내일의 한국교회에 주어진 고유한 과제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 단순한 외부적 시위만으로 이루어지는 행사를 지양하고 북한 동포를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들의 모든 이웃과 함께, 특히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200주년을 기념토록 하여야 하겠습니까 ...”<sup>4</sup>

3 「한국 천주교회 총람 1995~2003년」, 1375쪽.

‘이 땅’이란 우리 겨레와 국가를 상징하며, ‘빛’은 그리스도 자신(요한 8,12)을 상징하는 것으로 곧 ‘복음’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 자신이 내적으로 새신됨으로써 ‘그리스도화되자’는 뜻과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를 온 겨레에게 적극적으로 전함으로써 이 땅의 모든 이가 ‘복음화되자’는 염원을 담고 있다.

4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회보」 제1호(1982년 12월호), 2쪽.

## 2. 200주년 기념 대북한선교사업

### 1) 200주년 기념 특별 사업으로 ‘북한선교부’ 신설

한국교회는 1984년에 맞이할 200주년을 준비하면서 ‘갈라진 땅, 또 하나의 반쪽’인 민족공동체와 그곳에 있어야 할 북한교회에 관한 관심을 구체화하기 시작하였다. 2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위원장 김남수 주교)는 ‘이 땅’이 ‘갈라진 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북한선교사업의 필요성을 제안하였으며 추진을 위한 세부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 대북한선교사업 추진위원회 혹은 사무국 설치
- 사업 추진을 위한 거점 본당 지정
- 후원회 결성
- 대북한선교문제에 대한 자료 수집 필요, 연구기관으로의 발전 모색
- 북한이나 중국 등지의 동포들에게 성서 등 신앙 서적 보내기 운동 실시
- 대북한선교 방송국 신설 논의

북한선교사업이 2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의 특별 사업으로 결정됨에 따라, 1982년 12월 12일 자로 사업 수행을 위한 ‘북한선교부’를 신설하였으며,<sup>5</sup>

5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10년사」, 2011에 수록된 ‘연혁’에는 북한선교부의 설립일이 ‘12월 10일’ 자로 되어 있으나, 「회보」(제2호, 1983년 1월호)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홈페이지(검색 일자 2024년 9월 18일)를 따라 12월 12일 자로 하였다.

당시 양화진 본당 주임 김몽은(金蒙恩, 요한) 신부를 북한선교부장으로 임명하고 북한선교사업 추진위원 14명을 위촉하였다. 그리고 12월 13일 주교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는 200주년 기념 특별 사업 가운데 하나인 북한선교 기금 마련을 위한 특별 모금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재정분과위원회에 일임하였으며, 이후 독지기를 재정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200주년 기념 사업의 총예산은 200주년 기념 주교위원회 산하 중앙기구 및 4개 집행위원회의 기초 예산 20억, 추가 예산 2억, 특별사업비 10억까지 총 32억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이중 특별사업비 10억은 북한선교사업 외에 맹인 개안 시술과 시복시성 운동이 함께 사용하기로 하였다.<sup>6</sup>

기념사업위원회는 1982년 12월 18일에 ‘북한선교사업 추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절두산순교자기념관 회의실에서 열린 1차 회의에는 위원장 김남수 주교, 총무 변기영(卞基榮, 베드로) 신부, 북한선교부장 김몽은 신부와 14명의 위원이 참석하였으며 주교위원회 사무총장 정은규 신부가 참관하였다. 김몽은 신부는 취임사를 통해 “북한선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겸허한 자세로 작은 일부터 실천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미국이나 캐나다 등지의 교민들도 북한선교에 상당히 적극적임으로 이들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6 북한선교사업과 맹인 개안 수술에 각 4억 씩 배당하고 시복시성 수속 업무에 2억을 쓰기로 하고 예산 집행 시 조정은 기념사업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였으며, 사후 집행에 대한 평가는 기록분과위원회에서 하기로 하였다. 『회보』, 제2호(1983년 1월호), 6쪽.

〈표 1〉 북한선교사업 추진위원 명단

황춘홍 신부(성 베네딕도회 신학원장)	이영자 수녀(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회 총장)
길홍균 신부(한국외방선교회 지도신부)	홍성철(해외교포후원회 회장)
이한택 신부(예수회 지부장)	임남훈 수녀(올리베타노 성 베네딕도 수녀회 총원장)
윤석인(대한적십자사 국제부장)	양한모(200주년 기념 정신운동위원)
도 토마스 신부(메리놀외방선교회 지부장)	구 마리아 수녀(메리놀 수녀회 지부장)
현석호(가톨릭교리연구소 소장)	노길명(고려대학교 문리대 교수)
조광(동국대학교 사범대 교수)	정덕기(변호사)

\*출처: 『회보』 제4호(1983년 2월호).

이날 참석자들은 변기영 신부가 작성한 북한선교사업 초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업 추진 방향과 사업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향과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 추진 방향

- ① 실무 직원, 전문 위원, 후원회원 등 인력을 선발한다.
- ② 종교 자유 시절의 교회 기관, 교우 주소 등 현재의 북한주민들의 종교 실정 및 분위기를 조사한다.
- ③ 선교사 투입 노선 조사, 선교물 투입 방법 조사 등에 관한 자료 수집이 이루어져야 한다.
- ④ 가능한 사업부터 착수하되 필요 이상으로 노출되지 않게 추진하고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그리고 적시에 배치한다. 출발은 작게, 그러나 강인

한 의지로 꾸준히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사업 추진 원칙이 정해져야 한다.

- ⑤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젊은 세대를 참여시키고, 본부를 설치하되 활동은 기록하고 정기적인 모임(즉, 매월 북한교회를 위한 미사와 기도드릴 장소가 있어야 함)을 갖는 등 사업의 계승 문제도 다루어져야 한다.

### 사업 내용

- ① 국내외에서 내외국인 선교사를 양성한다.
- ② 성서, 성물, 대북 방송 프로그램 등 각종 선교물 및 그 전달 도구를 제작한다.
- ③ 선교사의 직접 투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북한 출신 인사를 입교시킨 후 선교사업에 헌신하게 하며 제3국을 통해 선교사를 투입하는 문제도 살핀다.
- ④ 선교 본부로서 북한선교를 위한 본당을 지정하고 북한선교회관 건립의 실효성을 검토한다.
- ⑤ 외국에 연락 지부를 설치한다.
- ⑥ 200주년 이후부터 재정 자립을 위한 기금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 ⑦ 기도와 헌금을 위한 월간지(국내 홍보용)를 발행하며 북한 송부용 유인물 및 간행물을 제작한다.
- ⑧ 대북한선교 방송국 설립을 추진한다.
- ⑨ 기도운동을 전개하되 매년 1회 이상 가능 시 매월 북한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을 제정한다.

- ⑩ 전국 차원의 모든 회의나 대회에 북한교회 출신 신자 대표도 참석시킨다.

한편 이날 김남수 주교는 남북분단의 비참한 현실 앞에서 한국천주교회 20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으나 북한의 땅도 우리의 땅, 북한의 동포들도 우리의 형제들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순교자의 후손다운 자세'로 북한선교사업에 참여하자는 요지의 강연을 하였다. 김 주교는 “북한선교사업이 이 시대에 가장 어려운 교회 활동이겠으나 무엇보다 정치적인 성격을 초월한 순수 신앙의 차원에서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2천 년 천주교회의 역사는 항상 순교의 연속이었고 순교를 전제로 한 선교만이 진정한 의미의 거룩한 결실을 내게 될 것이니 북한선교에 임할 때 순교자다운 선교사의 길을 개척한다는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sup>7</sup>

### (1) 북한선교부의 조직과 활동

1983년 4월 16일 서울대교구청 회의실에서 북한선교부 제1차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기념사업위원회 총무 변기영 신부와 북한선교사업부장 김몽은 신부 외 11명의 위원이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선교사업부 사무실을 명동대성당 구내에 두기로 하고 자체적으로 회보를 발행키로 하였으며 2명의 직원을 채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6월 25일에 명동대성당에

7 「회보」 제2호, 13~14쪽.

서 북한 신자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하기로 하였다.

제2차 회의에는 김몽은 신부 외 12명의 위원이 참석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김몽은 신부는 ① 1982년 12월부터 1983년 4월까지 KBS 사회교육국 제1 방송을 통해 대북 녹음 방송, ② 관계 기관 및 인사와 접촉, ③ 방송국 설치를 위한 자료 수집, ④ 서울 관구 법원 및 흑석동 성모병원 내에 사무실을 물색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총무 변기영 신부는 ① 교황청 방문 시 한국 담당 신부를 만나 북한교회의 실정을 보고하고, ② 북한선교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중국천주교애국회 주교단과의 접촉 가능성 검토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사무실은 당분간 서울 관구 법원 (명동 2가) 사무실을 이용한다.
- 사무원의 채용과 그 보수는 김몽은 신부에게 일임한다.
- 사업 계획으로,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회'를 6월 25일 오후 3시 명동 대성당에서 열기로 하며, 국내외 홍보용 '회보'를 발간하고, 국내 방송국을 이용하여 대북 방송을 계속한다.
- 공식 명칭은 '한국천주교회 2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북한선교부'로 한다.

북한선교부는 1983년 6월 10일 서울대학교구청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북한선교사업부장 김몽은 신부 외 7명의 위원이 참석하였으며, 사무총장 정은규 신부와 기념 사업위원회 총무 변기영 신부가 참관하였다. 김몽은 신부는 북한선교를 준비하기 위하여 각종 관련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있는 활동 사항을 보고하고, 북한 관계 자료 취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불온 문서 취급 허가서'를 취득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위원들에게 고지하였다.

## (2) 북한교회를 향한 메시지 선포

북한선교부는 1984년 한국교회 200주년 기념의 해를 앞두고 1983년 6월 25일 오후 3시에 서울 명동대성당에서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회'를 거행하기로 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한 제2차 회의에서 논의되었으며, 이때 '북한교회를 향한 메시지 선포' 등 세부 사항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었다.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은 1965년 2월 주교회의의 결정에 따라 매년 6월 25일 다음 주일에 전국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와 함께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를 교회 전체가 바쳐오고 있었다.<sup>8</sup>

이어 앞으로의 사업 계획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는데 주요 계획은 다음과 같다. ① 월남 신자 단체<sup>9</sup> 지도신부 및 회장들과의 간담회를 갖는다. ② 연차

8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은 1992년 3월 춘계 주교회의 정기총회에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북한교회를 새롭게 다가가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북한선교위원회에 의해 제기되면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침묵의 교회'라는 용어가 한국교회에서 처음 등장한 것은 1953년 9월 8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 탄생 축일에 교황 비오 12세가 1954년을 성모 성년으로 반포한 회칙 <빛나는 화관>(Fulgens Corona, 1953. 9. 8)이 「가톨릭시보」(1954년 2월 2일 자)에 번역, 게재되면서부터이다. 김성태, 「침묵의 교회」, 『한국가톨릭대사전』 11권, 한국교회사연구소, 2006, 8363쪽.

9 대표적인 월남 신자 단체는 평양교구 신우회와 함경도 신우회이다. 신우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 간의 부조와 친목 도모는 물론, 앞으로 통일과 대목구 복구에 따른 대비책을 추진하는 데 있었다. '평양교구 신우회'는 1949년 11월 강현홍(康賢洪) 신부를 중심으로 김경하(金璟河), 강창훈(康昌勳), 윤원희(尹元熙) 등 평양교구의 청년 신자들이 설립하였다. '함경도 신우회'는 1985년 10월 함경남북도 출신 신자들이 함경남북도 신자대회를 개최하여 설립하였다. 이때 총재에 이동호 아버스를, 지도신부로 김영근 신부(성 베네딕도회 서울분원장), 김계춘 신부(울산 전하동 본당 주임), 함영상 신부(부산 동대신동 본당 주임), 김병도 신부(서울대학교 사무처장) 등을 선임하였다.

적인 계획 수입과 다각적인 자료 수집을 한다. ③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을 북한선교부에서 주관하여 강론 자료, 메시지 등을 준비 기념함으로써 기도의 날을 보다 활성화시킨다. ④ 대북방송을 계속한다. ⑤ 가톨릭 방송국의 설립이 절실히 요청됨으로 위원장 김남수 주교에게 설립안을 작성하여 올린다. 이 외에 논의된 안건은 후원회 및 자문회를 구성하여 북한선교에 보다 많은 사람을 참여시키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200주년 기념위원회의 규약에 어긋난다는 반대 의견을 들어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남겨두기로 하였다.

#### 〈1983년 한국전쟁 발발 33주년 기념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회’〉

- 기도회는 1부 ‘미사’, 2부 ‘친교의 시간’ 순서로 진행한다.
- 1부 ‘미사’는 기념사업위원회 위원장 김남수 주교와 북한선교부 위원 사제, 참가 가능한 주교와 사제들이 공동 집전한다.
- 남한의 모든 사제와 신자들이 참여하는 기도회이어야 하며 이북 출신 사제와 신도들만이 참여하는 기도회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 홍보용 포스터와 리플릿을 제작 배포한다.
- 미사 중 제1 독서와 제2 독서, 신자들의 기도, 봉헌금 등은 북한선교부 위원들이 맡는다.
- 2부에서는 북한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낭독하고, 북한교회의 연혁 및 실태를 보고한다.

이날 미사는 2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위원장 김남수 주교가 주례하고 사무총장 정은규 신부, 북한선교부장 김몽은 신부 외 10여 명의 사제가 공동 집

전하였다. 이날 미사에는 신자들의 참석률도 매우 높았는데 북한선교부 위원 및 천여 명의 신자들이 함께 미사를 봉헌하였다.

미사 후 북한선교부 위원 노길명(세례자 요한) 교수가 북한교회 역사(略史) 소개 및 실태 보고를 하였으며 김남수 주교가 「북한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발표하였다. 김 주교는 “우리는 한국 천주교회 창립 200주년의 기념제를 경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소외시킨 가운데 이 기념제가 경축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한국천주교회 창립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듯이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에게 가 있습니다.”라며 한국교회가 북한교회를 잊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아픔을 함께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같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같은 말을 하고 사는 한 형제자매이면서도 조국 분단의 비극으로 인하여 너무나 잔혹한 비인도적 이별의 아픔 속에서, 천주 공경의 자유가 규제된 가장 크고 가장 본질적인 슬픔을 당하고 있는, 즉 인간으로서 특히 천주의 백성이요 자녀인 우리 인간들로서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권리 박탈을 겪고 있는 북한의 형제자매들에게, 우리는 동고동락하려는 마음의 자세와 어떠한 희생이라도 바치려는 결의로 모든 운명을 함께 하고 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북한의 형제자매들이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는 불행 속에서 우리는 걱정과 억측과 오해를 되씹으며, 기도와 염려를 남풍에 실어 보낼 뿐입니다.

성직자 없이, 성당 건물 없이, 로마 교회와의 연락 없이, 마음과 정신으로만 천주를 찾고 믿으며 섬기는 형제자매 여러분, 신발도 의복도 없이 알몸으로 가시덤불 속을 헤쳐 가는 듯한 여러분을 위해 우리는 매일 기도와 보속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북한 동포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루속히 종교의 자유가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며,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매일 연구하며 힘쓰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라도 천주의 진리와 교회의 정신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서로서로 손잡고 기쁨과 감격의 눈물로 한우리의 한 양

때가 되어 함께 감사의 미사를 드리게 될 때까지 우리는 마지막 피 한 방울 까지라도 여러분을 위한 일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한 동포 여러분, 우리는 한국천주교회 창립 200주년의 기념제를 경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소외시킨 가운데 이 기념제가 경축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한국천주교회 창립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로서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듯이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에게 가 있습니다. 북한 동포 여러분의 아픔을 기억하고 함께 하고자, 우리의 기념제 속에는 여러분의 자리가 있고 여러분을 위한 기념사업이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고 싶습니다. 비록 우리의 힘이 약하고 보잘것없으나 주님은 능하시니 우리의 연약하고 미소한 노력이나 희생보다는 훨씬 더 크고 많은 결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북한 동포 형제 여러분, 우리 한국천주교회는 성직자 없이, 선교사 없이 자발적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천주를 찾은 위대한 진리의 민족이며 천주의 백성입니다. 1세기에 걸친 박해 속에서도 목숨을 바치며 살아온 신앙의 겨레이기에 마치 1801년 신유박해 이후 1836년 최초의 서양 선교사가 입국하기까지 한 세대 동안의 평신도 교회처럼 오늘의 북한교회도 천주 대전에서 다시 한번 순교자의 길을 걷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 닮아가는 길은, 그리스도처럼 강하고 그리스도처럼 기적을 행하고 그리스도처럼 ‘호산나의 함성’ 속에서 입성하는 것이라기보다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며 구원의 성업을 이루고 함께하는 것이라고 볼 때 여러분은 천주 대전에서 남한의 우리보다도 어쩌면 더욱더 튼튼하고

강인한 주님의 지체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천주께서는 자비 지극하신 분이시니 고통 중에 있는 당신 자녀들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주께서는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희망과 용기를 가집시다. 무서운 인내로써 어둠을 헤쳐 갑시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은 더욱 가까와 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바뀌어도 진리는 영원하며 불변합니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온다는 것도 불변의 진리라면 우리는 이 진리의 승리를 확신해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버리지 않는 한 진리는 우리와 함께 있고 진리의 천주께서도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영원한 진리의 천주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남북한 모든 형제자매들과 함께 영원히 계실 것입니다. 아멘.

### (3) 북한선교부 사업 계획 수립

1983년 6월 28일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CCK) 회의실에서 열린 200주년 기념 주교위원회 제23차 회의에는 위원장 윤공희 대주교, 위원으로 정진석(鄭鎭奭, 니콜라오) 주교, 김남수 주교, 경갑룡 주교, 박정일 주교, 사무총장 정은규 신부가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북한선교사업부의 1983~1984년도 사업 예산서를 심의하였는데 예산안 총 4억을 1억으로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3억은 기념사업위원회 예비비로 예치하기로 결정하였다. 예비비는 향후 200주년 기념 주교위원회의 승인하에 사용키로 하였으며 북한선교는 200주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되어야 할 지속 사업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후속 조치는 200주년을 마치고 주교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였다.

북한선교부는 1983년 9월 14일 서울대교구청 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김남수 주교와 북한선교부장 김몽은 신부와 9명의 위원이 참석하였다. 이날 핵심 내용은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사업 계획서' 초안 검토였다. 위원들의 검토 결과 계획서의 완성도는 높으나 다소 방대한 경향이 있으므로 작성한 초안을 마스터플랜 삼아서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긴급성, 필요성, 실현 가능성을 감안하여 '실천 계획안'을 별도로 작성하지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한편 김남수 주교는 북한선교사 양성 문제를 특별히 언급하면서 북한선교부와 외방선교회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같음으로 외방선교회 이름으로 선교사를 양성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1983년 11월 16일에 열린 제6차 회의에서는 북한선교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목표로 10월 3일부터 10월 29일까지 27일 동안 홍콩, 싱가포르, 파리, 제네바, 로마, 서독 쾰히슈타인, 뉴욕, 로스엔젤레스를 방문하고 돌아온 김몽은·함제도 신부(Gerard E. Hammond)의 결과보고를 들었다.<sup>10</sup>

이후 북한선교부는 1984년까지 실행에 옮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교회의에 제출하였다. 사업 계획서는 크게 북한선교의 의의, 북한선교의 목표, 북한선교사업의 방향, 구체적인 사업 계획, 마지막으로 조직 및 임원으로 구

<sup>10</sup> 김몽은, 「그물을 던질 곳은 어디인가-북한선교에 임해야 할 우리의 자세」, 「회보」, 제17호(1984년 3월호), 21~23쪽.

성되었다. 특히 북한선교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북한선교부의 사업 내용을 연구, 홍보, 교육, 선교, 기획 등의 분야로 나누었으며 연구의 경우에 국내 자료뿐만 아니라 바티칸, 해외 가톨릭 기구, 제3국 자료 등 북한의 종교 실태와 북한선교의 가능성을 파악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해외에서 수집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를 아카이빙할 수 있는 자료실을 설치하는 등 자료의 분석과 보존을 통해 연구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교육의 경우에는 북한선교 활동을 위한 선교사, 신자 및 북한선교 관계자들 양성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 사업 계획서는 북한선교 초기에 논의되었던 다양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으며,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설립 초기 사업의 방향과 목적, 조직 구성 등 연관성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한 자료이다.<sup>11</sup>

## 2) 주교회의 직속 기구로의 개편 및 ‘북한선교위원회’로 개칭

### (1) 위원 확대와 조직 활성화

북한선교부는 1984년 1월에 한국천주교 2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북한선교부 위원을 23명으로 확대 조정하면서 메리놀회의 합제도 신부를 해외 담당

11 「회보」, 제13호(1983년 11월호), 15~20쪽.

위원으로 임명하고 북한 접촉이 가능한 고종옥(高宗玉, 마태오) 신부, 박창득(朴昌得, 아우구스티노) 신부를 해외 활동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이는 북한선교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조직 활성화의 일환이었다.

1984년 2월 22일에 가진 북한선교부 제7차 회의에서 회보 성격의 잡지 『북한선교』를 격월간으로 간행하기로 하고 1월 25일에 창간호 1만 부를 발행

〈표 2〉 한국천주교 2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북한선교부 위원 명단

이름	직위	소속	이름	직위	소속
김남수 주교	기념사업 위원장	수원교구장	변기영 신부	기념사업 부위원장	수원 신장 본당 주임
김몽은 신부	부장	서울 서교동 본당 주임	김 라파엘라 수녀	위원	올리베타노 성베네딕도회
이정운 신부	차장	수원교구 사목국장	구 마리아 수녀	위원	메리놀 수녀회 한국지부장
함제도 신부	해외 담당 위원	청주 괴산동 본당 주임	장초득 피아 수녀	위원	포교 성 베네딕도회
황춘홍 신부	위원	서울 성 베네딕도회 원장	현석호	위원	가톨릭교리연구 소장
이한택 신부	위원	예수회 한국지부장	양한모	위원	서울 평협 기획 분과 위원장
강덕현 신부	위원	메리놀외방전교회 한국지부장	홍성철	위원	해외 교포사목 후원회장
최기복 신부	위원	인천교구	노길명	위원	고려대학교 교수
안향성 신부	위원	한국외방선교회 지도	조광	위원	고려대학교 교수
고종옥 신부	해외 활동 위원	미국 웨스트 코비나 한인교회 주임	윤석인	위원	대한적십자사 국제부장
박창득 신부	해외 활동 위원	미국 뉴저지 한인교회 주임	정덕기	위원	변호사
박숙안 까리따스 수녀	위원	영원한 도움의 성모회 수녀			

\*출처 :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10년사』, 2011.

하였으며, 북한선교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 선교, 교육, 홍보, 기획 등 5개 분과를 신설하였다. 연구분과는 노길명, 최기복(崔基福, 마티아) 신부, 윤석인, 변진홍, 선교분과는 황춘홍(黃春興, 다미아노) 신부, 함제도 신부, 강 미카엘, 구 마리아 수녀, 임남훈이 맡았으며 교육분과는 오태순(吳泰淳, 토마스) 신부, 현석호, 이영자 수녀가 맡아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담기로 하였다.

1984년 4월 한국천주교회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의 날’을 맞아 한국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주교위원회 위원장인 윤공희 대주교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대주교는 “한국천주교회는 200주년을 맞이하여 온 겨레와 더불어 분단의 아픔을 민족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승화시키고 민족의 진정한 통일과 평화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참회가 바탕이 되기에 한국천주교회는 오는 4월 29일을 민족의 통일과 평화를 기원하는 기도의 날로 정하여 모든 신자들이 단식재를 지키며 미사를 봉헌하기로 하였음”을 밝히고, 하느님께서 반드시 우리 민족의 아픔을 헛되지 않게 하실 것이니 “평화와 통일을 진정으로 염원하는 누구나 민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민족 일치를 위한 토대를 다지는 일에 천주교회와 함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2) 북한선교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주교회의는 200주년 기념 행사와 103위 시성식을 성료하고 1984년 7월 24~25일 안양 성 라자로 마을 아론의 집에서 임시총회를 열었다. 이틀에 걸쳐 치러진 임시 총회에서는 200주년 기념 행사 전반에 관한 업무 보고 및 평가가 있었다. 김남수 주교는 200주년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북한선

〈표 3〉 북한선교위원회 임원 명단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이동호 아빠스	위원장	신치구	후원회장
정광웅 신부	총무	박영호	후원회 부회장
김성태 신부	통일사목연구소장	조선중	후원회 부회장
최상업	지문위원	이춘국	후원회 부회장
엄익채	"	김철수	행사분과위원장
양마태	"	김창석	홍보분과위원장
김득권	감사	조영식	재정분과위원장
이윤자	감사	최재호	교육분과위원장

교사업에 북한 외에 연길 지역 신자들도 포함시키고, 북한선교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질 사안이기에 북한선교부를 외방선교회의 한 부서로 편입시키겠다고 발표하였다.<sup>12</sup>

하지만 북한선교부는 1984년 11월 26일에 2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가 해체됨에 따라 주교회의의 직속 기구로 개편되었으며, 1985년 2월 16일 담당 주교로 이동호(李東鎬, 플라치도, 1935~2006) 아빠스가 임명되었다. 그리고 1985년 10월 14일~17일까지 열린 추계 주교회의 결정에 따라 10월 17일자로 북한선교부는 ‘북한선교위원회’로 이름을 변경하고 위원장은 담당 주교, 총무는

12 회보, 제23호, 1984. 9. 1, 6쪽. 같은 해 11월에 열리는 추계 정기총회에서 논의 후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다.

부장 신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sup>13</sup>

1985년 10월 23일 서울 성 베네딕도 피정의 집에서 김몽은 신부와 중앙위원들은 ‘북한선교부’가 ‘북한선교위원회’로 개칭되었음을 재확인하고 통일 문제를 정의평화위원회와 함께 연구 논의하여 그 의안을 주교회의에 제출키로 하였다. 그리고 기도운동을 확산시킨다는 데 의견을 모으는 한편, 지속적인 세미나와 연수회 등을 통하여 북한선교에 대한 관심을 지속시켜 나가는 데 힘을 쏟을 것을 결의하였다. 이어 10월 29일에는 명동대성당에서 통일을 위한 특별미사를 봉헌하였는데 이날 미사는 원주교구장 지학순(池學淳, 다니엘) 주교가 주례하고 이동호 아빠스와 김몽은 신부가 공동 집전하였다. 미사에 참석한 1,200여 명의 신자들은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북한교회가 소생하기를 기도하였으며 미사를 마치고 지학순 주교의 북한 방문 강연을 들었다.

### (3) 한국천주교 통일사목연구소 설립

북한선교위원회는 1988년 5월 21일에 산하기구로 ‘한국천주교 통일사목연구소’를 설립하였으며, 소장에 김성태(金聖泰, 요셉) 신부를 임명하였다. 당초 통일사목연구소는 통일사목의 좌표와 방향을 정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양한모의 제안에 따라 세워졌으며, 연구위원으로 조광과 변진홍이 위촉되었다.

13 1995년 서울대학교 민족화해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주교회의 북한선교위원회’도 1999년 추계 주교회의를 통해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로 개칭하였다.

북한선교위원회 위원장 이동호 아빠스는 “북한선교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적인 연구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언급하면서 “교회 내 선교 및 통일 문제 정책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민족분단 극복을 위한 복음화의 사명을 완수해 나가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연구소의 사명을 밝혔다.

통일사목연구소는 출범을 알리는 첫 학술행사로 5월 21일에 명동 가톨릭회관 7층에서 창립기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의 대주제는 “통일사목의 좌표와 방향”이었으며, 연세대 안병영 교수의 사회로 크리스찬사상연구소의 양한모 소장이 「민족통일에 관한 사목적 연구의 과제」를, 고려대 조광 교수가 「분단체제의 성립과 한국천주교회」를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가톨릭대 오경환 교수와 호남대 변진홍 교수가 토론하였다.

이날 양한모 소장은 “교회가 그동안 자주적 민족통일운동의 흐름을 외면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앞으로 반공주의적 성격을 극복하고 좀더 폭넓은 사목적 배려를 통하여 통일사목을 위한 실천적 과제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조광 교수는 “교회는 민족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전향적 자세를 가지고 지난날을 겸허하게 되돌아보며 분단극복을 위한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할 때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구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어 10월 29일에는 가톨릭회관 6층 한국교회사연구소 도서실에서 “민족통일과 한국천주교회”를 주제로 제2회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여러 계층에서 활발하게 일고 있는 통일 논의를 사목적 시각에서 어떻게 볼 것’이며, ‘어떠한 방향으로 교회가 대응할 것인가’라는 대주제 아래 서

강대 김춘호 신부는 「통일사목 관점에서 본 민족통일의 의미와 통일관」을, 한국 외국어대의 김덕 교수는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김춘호 신부는 “북한의 공산주의를 이해하며 동시에 남북한의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민주화, 사회적 평등화, 문화적 다원화의 실현을 통하여 민족통일 방안의 정책적 결정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맺었다. 김덕 교수는 “오늘의 세계적 비이념화의 추세 속에서 남북한은 모두 구시대적 명분론에서 과감히 이탈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통일을 향한 실질적 타협과 성과를 산출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하였다.

통일사목연구소는 일반 신자들을 대상으로 1989년 5월 22일 오후 4~5시 서울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에서 통일사목 교양강좌를 개최하였다. 이날 교양강좌에는 크리스찬사상연구소의 양한모 소장이 「민족통일의 새로운 시각」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1990년 5월에는 『제44차 세계성체대회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을 발간하였으며, 그해 11월에는 “통일사목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제3회 통일사목연구소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연구 논문을 모은 ‘통일사목 연구논총’을 간행함으로써 통일에 대비한 한국교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구체적인 노력을 지속하였다.<sup>14</sup>

또한 통일사목의 일환으로 1991년 12월에는 남북한 종교교류협력의 현황

14 1990년에는 통일사목 연구논총 제1집 「가톨릭교회와 민족복음화: 통일사목의 진로와 전망」, 1992년에는 통일사목 연구논총 제2집 「가톨릭교회와 남북교류: 남북 화해와 교류협력을 위한 교회의 역할 모색」, 1993년에는 통일사목 연구논총 제3집 「북한선교와 통일문제」를 간행하였다.

〈표 4〉 한국천주교 통일사목연구소 세미나(1988~1991년)

	대주제	주제	발표자
제1회	통일사목의 좌표와 방향	민족통일에 관한 사목적 연구의 과제	양한모 소장 (크리스찬사상연구소)
		분단체제의 성립과 한국천주교회	조광 교수 (고려대학교)
제2회	민족통일과 한국천주교회	통일사목 관점에서 본 민족통일의 의미와 통일관	김춘호 신부 (서강대학교)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	김덕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제3회	통일사목이란 무엇인가	통일사목을 어떻게 볼 것인가	김춘호 신부 (서강대학교)
		통일사목의 실천적 과제	류강하 신부 (안동교구)
제4회	통일사목과 북한교회	기조강연 한국천주교회의 통일사목과 교황청	두봉 주교 (전 안동교구장)
		분단 속의 교회 - 화해와 일치의 지평을 향하여	김성태 신부 (통일사목연구소장)
		북한의 주체사상과 종교정책의 변화 전망	변진홍 (북한선교위원회 기획실장)
제5회	남북한 종교교류협력의 현황과 전망	기조강연 남북한 종교교류협력의 바람직한 방향	김수환 추기경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종교인의 입장에서 본 남북교류협력 시대	송월주 (대한불교조계종, 남북불교교류특별위원장)
		북한사회 변화와 종교활동	강문규 (대한YWCA연맹 사무총장)
		남북한의 종교교류협력방안 모색	장익 신부 (천주교 세종로 본당 주임)

과 전망을 주제로 제5회 세미나를 개최하여 범종교적 차원의 남북종교인 교류를 모색하기도 하였다. 당시 세미나에는 김수환 추기경이 기조 강연을 하였으며, 송월주, 강문규, 장익 신부가 발표하였다. 그리고 종합토론은 임진찬 교수의 사회로, 김영주(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이재정(성공회 신학

대학장), 신법타(대한불교조계종 자재암 주지), 송천은(원광대학교 부총장), 표영삼(천도교, 중학대학원 교수), 백남익(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사무총장 신부), 정석홍(통일원 남북대화사무국 자문위원)이 토론하였다.

한편 북한선교위원회는 1990년에는 정광웅 신부를 3대 총무로 임명하였으며 1992년 10월에는 주교회의의 추계 정기총회의 결정에 따라 각 교구별로 통일 준비기금을 조성하기로 결정하였다. 1995년 3월 1일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설립 이후 주교회의의 북한선교위원회는 남북의 화해와 일치를 강조하고 민족의 화해라는 시대적 사명이 교회의 실천적 과제임을 재인식하면서 1999년 10월 11일 북한선교위원회 명칭을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로 개칭하고 새 위원장에 강우일 주교를 선출하였다.

### 3. 민족화해위원회 설립 전 남북 교류

#### 1) 고종옥 신부의 방북

1984년 3월 한국천주교 2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북한선교부 해외 활동 위원으로 위촉된 고종옥(高宗玉, 마태오) 신부가 북한을 방문했다. 캐나다 국적을 가진 그의 방문 목적은 두 가지였는데 가족 상봉과 북한선교였다. 평양에서 가족을 만나 함께 미사를 봉헌하고자 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가족들의 비협조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고 신부는 북한에서 미사를 드리고 성사를 집행하여 가톨릭교회의 존재를 북한사회에 알리고 더 나아가 선교의 가능성을 타진하기를 원했으나 가족뿐만 아니라 북한주민과도 미사를 봉헌하거나 성사를

집행할 수는 없었다.

방북 후 고 신부는 북한선교 사명을 받고 파리로 이동해서 2년 5개월 동안 머물며 북한 관리들과 접촉하고 선교를 위한 자료 수집과 연구를 해나갔고,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만나려면 일반 신부보다 주교가 움직이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으로 주교의 북한 방문을 추진하였는데 실제로 북한 외교관과 함께 주교의 북한 방문에 관해서 논의하기도 했다. 당시 합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남한 천주교회 지도자 중 한 분인 주교의 북한 방문은 민족적인 견지에서라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 북한 당국은 최대의 예우를 갖추어 그분을 맞이한다.
-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비서의 면담을 성취시켜 준다. 그리고 조선기독교도연맹<sup>15</sup> 간부들과의 만남도 알선해 준다.
- 방문 주교에 대한 호칭 문제는 외교 관례상 공식 명칭인 성직 명칭을 사용하고 신문과 TV에 발표할 때에도 공식 명칭을 사용한다.
- 주교의 평양 체재 기간은 3박 4일 정도로 한다. 그리고 적당한 시기에 현재 북한에 살고 있는 천주교 신자들과 미사를 봉헌할 수 있도록 천주교 신자들을 찾아주는 데 최선의 협조를 한다.
- 북한 방문 시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관문점 중립 지대로 경로를 선택할

<sup>15</sup> '조선기독교도연맹'은 1948년에 설립되었으며 1949년에 연맹총회를 개최하였다. 이 기관의 전신은 1946년에 설립된 '북조선기독교도연맹'이다. 북조선기독교도연맹 위원장 강양욱은 평양교구장 홍용호 주교를 찾아가 연맹 가입을 요청했으나 홍 주교는 이를 거절하였으며 신자들에게도 가입을 금지시켰다. 평양교구사편찬위원회, 『천주교평양교구사』, 분도출판사, 1981, 194쪽.

경우 북한 당국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sup>16</sup>

1984년 고종욱 신부의 방문 이후 1985년 9월에는 원주교구장 지학순 주교가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의 일원으로 북한을 찾아 가족을 만났으며 평양 고려 호텔에서 한국 순교성인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하였다. 지 주교는 미사 강론에서 “40년간 미사 성제가 없던 평양에서 역사적인 미사를 집전하게 되어 무엇보다 의미가 깊고 103위 순교성인들과 무수한 한국 순교자들의 희생으로 이 땅에 평화가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이어 고종욱 신부는 1991년 3월에 고향을 재방문하고 장충성당에서 북한 신자들과 예수 부활 대축일 미사를 봉헌하였으며 세 명의 신자에게 세례성사를 주었다.

## 2) 장익 신부의 방북

장익(張益, 십자가의 요한) 신부는 1987년 6월 9일부터 13일까지 바티칸 특사 자격으로 평양에서 개최된 ‘남남 협력(南南協力)에 관한 비동맹 특별 각료회의’에 김수환 추기경의 추인을 받아 방북하였다. 이는 바티칸이 진행해 왔던 북한과의 교류를 위한 노력의 성과였다. 바티칸은 1980년대 접어들면서 비동맹 운동(Non-Aligned Movement, NAM)<sup>17</sup>을 통해 북한 당국과의 교류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이는 바티칸 국무성이 담당하였으며 국무성 산하 비그리스도교 사

16 고 마태오, 『조국과 교회 사이에서』, 빛들, 1988, 37쪽.

17 1961년 제1차 베오그라드회의에서 설립된 비동맹운동(Non-Aligned Movement)은 모든 나라가 타국의 체제와 상관없이 서로 공존하며, 민족해방운동을 지지하고, 강대국의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으며, 독자적 정책을 추구하려는 신생 독립국들의 국제기구였다.

무국에서 실무를 담당하였다. 바티칸은 1984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한국 방문 후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북한 당국과의 접촉을 본격화하였으며 이를 위해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프랑스의 외교 채널을 활용하였다.

바티칸은 프랑스 원조기구인 ‘제3세계 기아 문제와 발전을 위한 프랑스코회 원조기구(Comité Catholique contre la Faim et pour le Développement, CCFD)’를 통해 50만 달러의 원조를 제공하여 북한 내 공업학교 실습 기자재를 지원하는 데 사용케 하였다. 북한 당국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1985년 평양을 방문한 CCFD 부총재를 김일성의 생일(4월 15일)에 초대하여 오찬을 나누었으며 그해 8월 8일 토고 주재 북한대사 김양황을 바티칸에 보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를 알현하게 하였다.

1987년 북한 당국은 비동맹 운동의 특별 각료회의를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바티칸은 이를 기회로 북한과의 직접 접촉을 시도하였다.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유엔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의 북한 대표로 파견되어 있는 리종혁과 북한 방문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교황청 대표단을 평양 비동맹 특별 각료회의에 읍저버로 초청하였다. 바티칸은 당시 제네바 유엔기구 교황청 사절단 고문 주세페 베르텔로(Giuseppe Bertello) 몬시뇰을 파견하기로 하고 평양교구장 서리이자 서울대교구장 김수환 추기경과 협의하여 장익 신부의 파견을 결정하였다.

한편 장익 신부는 남한교회의 대표가 아니라 제네바 UN 교황청 사절단 고문과 교황청 대표단의 일원으로 북한을 방문하였으며, 북한 리종혁 대사와 직접 만나 방문 목적을 논의할 수 있었다. 당시 리종혁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장익 신부는 자신의 방문은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목적이 아니라 종교적 목적

임을 분명하게 밝혔고 덕원 수도원과 관후리 성당 등 교회 유적지 방문, 신자와의 만남을 요청하였다.

장익 신부를 포함한 교황청 대표단 일행은 1987년 6월 7일에 평양에 도착하였다. 장익 신부는 다음 날 ‘조선기독교도연맹 중앙위원회’를 방문하여 고기준 목사, 박영로 목사, 최창수 등을 만나 대담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장익 신부는 천주교 신자들에 대한 소식을 물었고 연맹 지역 단위 조직을 통해 수소문해보고 연락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북한교회 신자들의 존재가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장익 신부는 평양을 떠나기 바로 전날에 김승렬(야고보), 마등룡(바오로), 윤봉순(모이세), 박덕수(말구), 홍도숙(테레사) 등 다섯 명의 신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김승렬은 강원도 고산 공소회장의 아들이고 마등룡과 박덕수는 연길 간도 출신이며, 마등룡은 명월구 해성학교 노 신부에게서 영세를 받았으며 윤봉순은 강 신부에게 자주 다녔다고 하였다. 그리고 홍도숙은 박덕수의 아내로 평북 비현 출신이며 어려서 중국에서도 살았다고 하였다.<sup>18</sup> 마등룡이 영세를 받았다는 명월구 해성학교의 신부는 베네딕도회 소속 선교사이자 명월구 본당 2대 주임 신부인 아르놀트 렌하르트(A. Lenhard, 한국 이름 노도주[盧道柱], 1905~2003)이다. 그리고 윤봉순이 언급한 강 신부는 베네딕도회 선교사로 명월구 성당 인근 돈화 성당의 주임 신부인 리보리오 모르겐슈바이스(Libourius Morgenschweis, 1897~1982, 한국 이름 강홍은[姜洪恩])이다.

18 장익, 「처음 만난 다섯 교우의 눈물」, 『화해와 나눔』 제2호 통권 43호,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북한선교위원회, 1992, 77쪽.

이듬해 3월에 교황청은 평양 비동맹 특별 각료 회의에 대표단을 초청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북한 신자들을 부활 대축일 미사에 초대하였다. 여섯 명으로 구성된 북한 대표단이 교황청을 방문하였으며 이들 가운데 신자 두 명은 성주간과 부활 축일 전례에 참가하고 바티칸을 순례하였다. 북한에서 온 신자 이진철(모이세)과 홍도숙 두 명은 장익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보고 미사에 참석하였으며 세족례 의식에 참여하였는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직접 그들의 발을 씻겨 주었다. 그리고 1988년 6월 30일에 800여 명으로 구성된 ‘조선천주교인협회’가 결성되었다.<sup>19</sup> 이 소식은 1988년 7월 20일에 평양 중앙방송을 통해 보도되었는데, ‘8개월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 북한 천주교인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구로 조직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시기 천주교인들 속에서 늘어가고 있는 교회의 발전과 권익 옹호, 교인 상호 간의 연계와 단합을 도모하며 사랑과 화해, 평화를 위한 복음 정신에 기초하여 각국의 천주교인 및 단체들과도 친선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려고 한다. …공화국 천주교인들의 신앙의 자유와 권익을 옹호하고 그들을 애국 애족의 정신으로 고양하며 사랑과 화해의 이념에 기초하여 교인들 사이에 연합을 도모한다는 것과 전체 인민들과 단결하여 나라의 부강 발전과 조국의 자주 평화 통일을 실천하며 다른 나라 천주교인 및 단체들과도 친

19 1987년 10월 이후 본격화된 ‘조선천주교인협회’의 결성은 평양에서 개최된 ‘남남협력에 관한 비동맹 특별 각료회의’(1987. 6. 8~9)에 장익 신부를 포함한 로마 교황청 대표단이 참가한 결과에 힘입었다. 또한 1946년에 설립된 기독교도연맹과 다른 천주교 대화 채널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였다. 한국천주교 통일사목연구소 편, 『통일사목연구논총 제1집 가톨릭교회와 민족 복음화 - 통일사목의 진로와 전망』, 『日善企劃』, 1990, 324~328쪽.



장충성당을 방문한 북미주 가톨릭 신자들과 북한 신자들.  
중앙에 제의를 입은 이는 박창득 신부이고 오른쪽은 당시 장충성당 회장이었던 차성근 울리오이다.

선 관계를 발전시키고 세계의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자기의 중요한 사명으로 내세웠다.”<sup>20</sup>

이러한 보도는 북한의 대외 선전용이라는 의혹과 비판을 받기도 하였으나 북한이 주민들의 신앙 활동의 공개와 교황청에 대한 개방과 대화의 일환이라

20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북한선교위원회, 『한국천주교 통일사목자료집』(1945~1991), 사람과 사람, 1992, 416쪽.

는 면에서 희망을 두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리고 1988년 10월 9일에 조선천주교인협회는 평양시 선교구역 장충1동에 대지 1,361평, 건평 500평에 250석 규모로 장충 성당을 건립하였다. 건축은 1년 여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건축비 30만 원 중 20만 원은 신자들이 각출하고 10만 원은 정부에서 보조하였다. 이 자리는 1934년에 대신리 성당(설립 당시 명칭 선교리 성당)이 건립되었던 곳으로 성당 구내에는 성당 건물과 2층 사제관, 조선천주교인협회가 사용하는 2층 건물 등 3개의 건물이 들어섰다.

서울대교구 사목연구실장 장익 신부는 10월에 교황청 특사로 장충 성당을 방문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봉헌식을 거행하였다. 장익 신부는 당시 로마 유학중이던 정의철(鄭義哲, 다마스) 신부와 함께 10월 30일 저녁 미사와 11월 1일 모든 성인의 날 대축일 미사를 봉헌하고 바티칸에서 구입해 간 성작, 성합 등 성물과 성경, 전례서를 전달했으며 조선천주교인협회의 임원들을 만났다.<sup>21</sup> 이러한 남북한의 변화는 북한과 통일 문제에 대한 교회의 관심을 고조시켰으며 1989년 2월 19일에는 미국에서 교포 사목을 담당하던 박창득 신부(뉴저지 본당 주임사제), 남해근(시몬) 신부(뉴욕 브롱스본당 주임사제), 조영희(趙泳熙, 아나니아) 신부(LA 성삼본당 주임사제) 등 3명이 북미주 가톨릭 신자들과 함께 북한을 방문했다. 이날 미사에는 장충 성당 신자 회장인 박경수를 비롯해 1백여 명의 북한 신자들과 미주 한인 가톨릭신자회 회장인 조성세를 비롯한 12명의 신자들이 참석했는데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가톨릭 신자 합동 미사였다.

21 한국천주교회 소속 신부로 평양 장충 성당에서 첫 미사를 집전한 이는 장익 신부와 정의철 신부였다. 1989년에는 문규현 신부가, 1998년에는 최창무 주교가 오태순·이기현 신부와 함께 미사를 집전하였다.

### 3) 조선천주교인협회, 천주교 서적 발간

한편 조선천주교인협회에서는 1991년에 『카톨릭 기도서』, 『천주교를 알자』, 『신앙생활의 걸음』, 『선택과 실천』 등 4권의 책을 간행하였다. 『카톨릭 기도서』는 당시 남한에서 사용하던 기도서와 같은 내용으로 제작되었고 표기 법만 북한식으로 수정하였다. 특히 『카톨릭 기도서』 앞쪽에는 당시 조선천주교인협회 위원장인 장재철(사무엘)<sup>22</sup>이 쓴 ‘머리말’이 실려 있다.

“조선천주교인협회 중앙위원회는 천주님을 공경하는 우리 교우들의 요구를 담아 신앙생활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우리말 『미사통상문』을 알기 쉽고 편리하게 하자고 하여 이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이 책의 미숙한 점들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책을 단순히 출판하였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지난 시기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매를,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굳은 의지를 담은 결의서를 천주께 드린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모두 다 신성한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모두 다 신성한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신앙심을 순결하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하고 성실한 신앙생활은 영원히 빛나 이어질 것입니다.”<sup>23</sup>

22 장재철은 이후 장재언으로 개명, 본문에서는 자료에 따라 각기 장재철 혹은 장재언으로 표기했으나 동일인물이다.

23 장재철, ‘머리말’, 『카톨릭 기도서』, 조선천주교인협회 중앙위원회, 1991.



조선천주교인협회 중앙위원회에서 간행한 천주교 서적.

『천주교를 알자』는 믿을 교리, 지킬 계명, 은총을 얻는 방법, 부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톨릭교회의 정통 교리를 여과나 침삭 없이 소개하였다. 이 책의 필자는 엄진섭(시몬), 차성근(올리오), 김은주(엘리사벳)이고 발행인은 장재철이다. 『신앙생활의 걸음』의 필자는 고영희(수산나)로 교계제도의 특성과 소개, 성경 및 전례력에 대한 설명 등 천주교에 관한 상식을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북한에서 발간한 이 책들은 장재철 위원장이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 법안 스님을 통해 사제단에 전달하였는데, 1995년 4월 28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처음으로 공개하였다.

## 4. 민족통일을 향한 한국교회의 움직임

### 1) 민족통일 문제, 첫 주교 간담회 개최

1989년 10월 세계성체대회를 앞두고 한국교회의 주교들은 7월 26~27일 양일간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회의실에서 ‘민족통일 문제 주교 간담회’를 가

졌다. 이날 간담회는 ‘통일 문제’를 다루는 주교단의 첫 간담회였다. 이 자리에는 의장으로 수원교구 김남수 주교와 부의장 대구대교구 이문희(李文熙, 바올로) 주교를 비롯하여 총무에 청주교구 정진석 주교가, 일반 회원으로 김수환 추기경과 광주대교구 윤공희(尹恭熙, 빅토리노) 대주교, 춘천교구 박토마(Stewart Thomas) 주교, 안동교구 두봉(René Dupont) 주교, 부산교구 이갑수(李甲秀, 가브리엘) 주교, 마산교구 박정일(朴正一, 미카엘) 주교, 제주교구 김창렬(金昌烈, 바올로) 주교, 서울대교구의 김옥균(金玉均, 바올로)·강우일 주교, 함흥교구의 이동호 아빠스가 참석하였다.<sup>24</sup>

간담회는 정의평화위원회와 북한선교위원회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는데 교회 내에서 통일에 대한 입장과 주장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면서 통일 문제에 대한 한국 주교단의 공식 입장을 표명해 줄 것을 제안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주교단은 양 위원회 관계자와 4개 정당 대표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기로 하였다.

7월 26일에는 6개의 주제 발표가 이루어졌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날 안동교구 류강하 신부는 “통일 논의는 이 시대의 요청이자 전국민의 관심사로 이제 사목 일선에서 일하는 사제에게도 외면 못 할 과제”라고 전제하고 “민족통일에 대한 교회의 공식, 사목적 견해 및 가르침을 제시해줄 것”을 제언했다. 각 주제별 발표 주제와 발표자는 <표 5>와 같다.

7월 27일에는 의장 김남수 주교의 사회로 통일 문제에 대한 주교단의 공식

24 인천교구 나길모 주교와 대전교구 경갑룡 주교는 해외 출장으로, 원주교구 지학순 주교는 건강상의 이유로, 전주교구장 직무대행 김환철 신부는 교구 사정으로 불참하였다.

입장을 발표할 것인지와 표명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논의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날(7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임수경 씨와 동행하기 위해 문규현(文奎鉉, 바올로) 신부를 파견하겠다’고 발표한 정의구현사제단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는데 ‘주교단이 통일 문제에 대해 다룰 시점이 아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주교단의 공식 입장이 필요하다’, ‘공식 입장표명은 하되 정치와 연관된 구체적인 문제는 배제하고 보다 차원 높은 단계에서 원칙만을 제시하자’, ‘통일 문제 자체 보다는 그와 관련되어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종교적·사회적 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모색하여 표명하자’, ‘통일 문제 전반에 대한 공통 의견을 규합하여 발표하자’ 등의 의견을 나누었다. 이 외에 공식 입장을 발표하되 통일 문제는 성체대회와 연결시켜 논하고 공산주의 자체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며 통일과 관련해서 선결되어야 할 우리 사회의 부패 척결과 교회 일치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표 5> 민족통일 문제에 관한 개별 발표 주제와 발표자

	발표 주제	발표자
제1 주제	통일문제에 관한 정평위 견해	류강하 신부(정의평화위원회 안동교구 위원장)
제2 주제	민족통일과 한국천주교회	변진홍 교수(북한선교위원회 통일사목연구소 간사)
제3 주제	새 통일 방안의 구상	이세기(민정당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제4 주제	공화국 연방제 통일 방안	조순승(평민당 외무통일위원회 간사)
제5 주제	한민족 연합체 통일 방안	박관용(민주당 민족통일위원회 위원장)
제6 주제	평화 통일정책의 기본 방향	이희일(공화당 종합기획실장)

출처 : 「회보」 제54호(1989년 9월호).



주교단 기자회견(1989년 7월 27일), 주교회의 의장 김남수 주교가 주교단의 담화문을 기자들 앞에서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 과정을 거친 후 이문희 주교는 곧바로 담화문의 주요 골자를 담아 담화문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검토된 초안은 당일 오후 6시에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강당에서 의장 김남수 주교가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담화문의 주요 골자는 ① 보다 나은 하나의 사회를 지향하는 평화 통일 염원, ② 남북한 양 실체의 인정, ③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남북한 교류의 필요성을 서울 세계성체대회와 관련시킬 것, ④ 7·7 선언에 대한 적절한 후속 조치 촉구, ⑤ 정부 독점 형태의 단일화도 무정부주의적 교류도 배제하며, 최소한의 통제 속에서 폭넓은 민간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의 촉구, ⑥ 통일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활발한 공조 체제와 합의 노력 촉구, ⑦ 우리 사회의 좌경화 경향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천주교회는 공산주의 자체를 수용할 수 없음을 천명하며 아울러 극심한 빈부 차이와 같은 자본

주의의 극단적 병폐에 대한 언급이었다.

마지막으로 정의구현사제단이 임수경 씨의 귀환 동행을 위해 문규현 신부를 북한에 파견한 문제에 대해서는 주교회의가 공인한 단체는 아니지만 신부들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아울러 공안정국이 더욱 경색되지 않도록 사제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한편 문규현 신부를 북한에 파견한 문제를 더 깊이 논의하기 위해 먼저 정의구현사제단 대표를 불러 대화를 해보자는 의견이 있어 표결에 들어갔으나 오히려 각 교구장이 가급적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들이 제시되면서 부결되었다.

한편 김수환 추기경은 한국 천주교 주교단의 발표가 있는 지 두 달 후인 9월 1일에 세계성체대회를 앞두고 “오늘의 난국을 극복하는 길은 화해와 일치뿐이며 지금은 대립과 분열을 막고 남북분단의 골을 메워 하나가 되도록 평화의 정신을 심어야 할 때”임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발표하였다.<sup>25</sup>

25 가톨릭신앙생활연구소 편, '화해와 일치의 성사', 『김수환 추기경 말씀집』, 1989, 289~292쪽.

## 한국천주교회 주교단 담화문

우리나라는 지금 민주화와 함께 통일을 향한 열망이 소용돌이치는 가운데 국민 개개인은 희망 혹은 고통을 느끼며 나름대로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천주교 신자들도 이 나라 국민으로서 함께 통일을 향한 대장정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진 교회는 북한선교에 임해야 할 것임을 스스로 깨닫고 서로의 힘을 모을 것을 기대하며 한국 주교단은 “남북 통일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교단 산하의 정의평화위원회와 북한선교위원회의 “통일 논의”에 대한 의견을 듣고 또 4개 정당(민정, 평민, 민주, 공화)의 통일정책을 각각 청취하며 주교단으로서의 통일에 대한 사목 대책을 연구하려 하였습니다.

시기적으로 서울 세계성체대회를 앞두고,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임을 온 인류에게 선포하여야 할 한국교회가, 또한 국내적으로 “한마음한몸” 운동을 펴나가고 있는 이때에, 동족인 북한 형제를 생각하고, 통일을 재촉하며, 형제와 사랑의 일치를 이루고 싶은 마음은 그 누구에게나 간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남북한은 각각 독자적이요 서로 이질적인 두 체제로 분단되어 살아온 지가 40여 년에 이르고, 모두가 통일을 염원하고 있으

나 통일된 나라의 모양을 각각 다르게 생각하고 있음도 사실이라 아니할 수 없기에 통일이 우리의 마음같이 단숨에 이루어지리라고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4개 정당의 통일정책의 기본 방침도 남북한의 실체를 인정하고, 평화 공존의 단계를 거치며, 단일 국가로의 통일을 성취하는 길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적어도 현재로서는 공통된 기초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모두 대북한 창구의 단일화와 동시에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지난해 노태우 대통령의 7·7 선언은 참으로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으며 천주교회의 지도자들도 대단히 훌륭한 정신이 담겨 있는 선언으로 환영하여 마지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선언이 불편 없이 최대한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충실한 세부 지침이 없었고 기쁜 마음으로 통일에 헌신코자 한 사람들이 단지 그 성급함 때문에 깊은 좌절을 맛보게 한 것도 사실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몇몇 사람들이 범질서에 혼란을 초래하면서 개별적으로 통일을 위한 대화에 나선다는 명목으로 북한의 제의에 응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그들은 거의 기독교인이며 천주교 신자임으로 인하여 천주교가 마치 용공 집단인 것 같은 오해를 받기에 이른 것도 부인 못 할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밝힐 것은 천주교는 근본적으로, 투신론이며 유물론인 공산주의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산주의자들도 인격적인 사랑을 주고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 대로의 것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의 협상과 개인적인 차원의 친교 내지 대화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불명확한 한계의 어려움 때문에 남북한 관계의 모든 대화와 교섭은 특별히 신중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간담회가 열리고 있는 동안 뜻밖에 정의구현사제단이 기자회견을 통

하여 발표한 문규현 신부의 파견에 대한 소식을 충격과 함께 접하게 되었습니다. 정의구현사제단이 한국천주교회에서 공인한 단체가 아니더라도 천주교 신부의 단체라는 점에서 주교단은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일을 촉진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우리 사회의 상황에서 수용하지 못할 행동이 앞섬으로 인해, 많은 국민에게 우려와 불안을 준 것은 마땅한 행동이 아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우리 주교들도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느끼는 바입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 이 사회가 혼란 가운데 빠지든 상관없이 각자의 판단에 따라 각자가 행동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자기주장이 과도히 분출하고 있음을 보면서 우리 사회는 하루 속히 보다 거시적이고 올바른 판단으로 신중한 행동을 하게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좀더 법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을 존중하는 시민 정신의 확립이 시급한 형편이라 하겠습니다. 법질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질서도 하루속히 정립되어 빈부의 격차가 줄어들고 물질주의, 쾌락주의, 금전 만능주의와 이기심이 절제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사랑의 사회가 이루어지도록 한국천주교회는 힘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로가 사랑하는 사회를 이루지 못할 때 통일은 더욱 요원한 것이 될 것임을 우리는 염려하며 사랑과 일치와 평화의 세상을 이루어 나갈 것을 다시 다짐하는 바입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단

## 2) 교회 내 북한선교 개념 정립

1995년 3월 1일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가 교구 내 기관으로 공식 발족되기에 앞서 1월 23일 자로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가 사도좌의 인준을 받았다.<sup>26</sup> 이 지침서 제4편 제2절을 보면 ‘북한선교’에 대한 내용이 명료하게 정리되어 있다.

제200조(정의) 북한선교는 분단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형제적 나눔을 실현하면서 민족의 평화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교회의 부흥과 북한 동포의 복음화를 위한 사목적 역량을 갖추는 교회의 활동을 말한다.

제201조(활동) 사목자들은 북한선교를 위한 신자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계몽운동과 기도운동을 전개한다. 이하 1항 기도운동의 차원에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문을 보급하며, 2항 북한교회와의 사랑의 나눔을 구체화하기 위한 신자 운동을 전개한다. 3항 북한 동포를 위한 선교 방송과 함께 교회 내 언론 매체를 통하여 북한선교를 위한 신자 재교육에 힘쓰고, 4항 관련 연구소를 설치하여 전문적인 연구와 함께 교회 내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지도자 등에 필요한 연수 교육과 교육 자료 출판, 통일에 대한 준비 등에 힘쓴다.

제202조(기도의 날) 사목자들은 매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에 특별히 신자들에게 북한교회에 관한 관심을 촉구하고 각종 행사를

26 1월 23일 자로 사도좌의 인준을 받은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는 1995년 4월 16일 예수 부활 대축일을 기하여 공포되었으며, 6월 4일 성령 강림 대축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통해 북한선교의 필요성과 성과를 알린다.

제203조(신자 참여) 1항은 각 교구의 형편에 따라 북한선교위원회를 두어 주교회의 북한선교위원회와의 유기적인 연관 속에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2항은 모든 신자들은 북한선교위원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사목지는 이를 본당 사목의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참여 방안을 강구토록 한다.

한편 1994년 3월 7~10일까지 열린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에서 북한선교위원회 위원장 이동호 아빠스는 “중국 동북방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 기구나 단체들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상담의 기능을 확대하고 관련 활동을 하는 교회 내 단체 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겠다.”고 결정했다. 그리고 같은 해 6월 26일, 이동호 아빠스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담화」를 발표했다.

“우리는 국제정세의 변화를 너무 낙관하면서 남북 간에도 화해와 협력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은총으로 껴안아 실제로 그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절실하게 시도하지 못했음을 반성해야 합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평화가 때때로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목표처럼 보이더라도 평화는 하느님께서 세우신 원초적인 계획의 한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고 절대로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말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지향에 맞게 진실로 이 땅에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 속에 용서와 사랑이 담기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성과 희생이 흘러넘치도록 해야 합니다.”

이어 10월 10~13일까지 열린 추계 정기총회에서는 1995년도 춘계 주교총회 세미나의 주제를 ‘남북 통일문제’로 결정하고 그에 대한 자료를 주교회의 북한선교위원회가 1995년 1월까지 모든 주교에게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3월 춘계 주교회의에서 미리 주교들에게 배포한 유인물을 바탕으로 이동호 아빠스는 “북한교회의 재건은 북한교회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이며 북방선교 훈련원을 설치하여 인력을 양성하고 통일사목을 위한 교육과 교재 발간”을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주교회의 사무처에 통일 기금을 마련할 것과 교구별 기도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서울대학교 민족화해위원회 설립의 바탕이 되었으며 마침내 광복 50주년을 맞은 1995년 1월 김수환 추기경은 방북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를 기점으로 서울대학교의 민족화해와 일치를 위한 노력은 조직적으로 구체화되었으며, 그해 3월 1일 ‘서울대학교 민족화해위원회’가 발족되었다.

##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의 출범과 활발한 대북지원

1995  
-  
2003

1995년은 광복 50주년이자 분단된 지 50년이 되는 해였고, 서울대교구에서 민족화해위원회를 창설한 해였다. 같은 해 8월, 북한이 대홍수로 심한 기근이 들어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했으며 북한의 도움 요청에 남한의 다양한 구호 단체나 기관도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서울대교구장 김수환 추기경은 평양 교구장 서리를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도와야 할 인도적 책임 이외에 사목적 책임도 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의 활동에 새로운 방향이 열리게 되었다.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한편 북한과의 접촉이 늘어나면서 전국민적으로도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었고, 사회적 관심이 쏠렸다. 통일운동은 1987년 직선제 개헌을 쟁취 해낸 이후 민주화운동의 다음 과제로서 80년대 후반부터 다양한 시도가 있어 왔다. 천주교 내에서도 정의구현사제단, 천주교사회운동협의회 등 기존의 민주화운동의 중심 세력이 되었던 이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이 있었다. 다만 어디까지나 사회참여적 성향을 가진 소수의 일이었다. 그러나 북한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같은 동포로서 남한에서 이를 도와야 한다는 보편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종교계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활발해졌다. 천주교회뿐 아니라 개신교에서도 통일, 혹은 북한선교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 불교나 원불교, 천도교도 이런 분위기에 동참했다. 때문에 90년대 후반에는 범종교단체 연합으로 전국적인 규모의 모금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었다.

한편 한국 정부도 이러한 전반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1990년에 국토통일원을 개편해서 통일원을 설치했다가, 1998년 2월에 통일부로 승격시키면서 본격적인 대북 정책들을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통일부 승격 이후로 기존에

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국제적십자사 혹은 홍콩 카리타스 등 해외 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것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하였다. 민족화해위원회의 활동은 이렇듯 한국 정부 대북 정책, 남북관계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민간단체가 대북 지원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1996년에는 강릉에서 북한 잠수함 침투 사건이 발생하면서 일시적으로 교회 안에서의 분위기가 경색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활동이 중요하다는 데에 조금씩 사람들의 동의와 지지를 얻기도 하였다.

## 1.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의 발족과 조직 정비

### 1) 민족화해와 김수환 추기경의 방북 원의

광복 50주년을 맞은 1995년 1월 김수환 추기경은 방북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추기경은 “최근 북한 신자들로부터 방북 요청을 들었다. 광복 50주년을 맞는 1995년에 남북한 통일을 위해 도움이 되고 또 필요하다면 북한을 방문할 수도 있으며 개인적으로도 북한을 방문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sup>1</sup> 이에 최창무(崔昌武, 안드레아) 주교는 명동대성당 사제관에서 1995년 2월 12일

1 「김 추기경 금년에 방북 희망」, 『가톨릭신문』, 1995. 1. 1, 1면.

광복 50주년 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가졌다. 늦은 저녁 한자리에 모인 참석자들은 최창무 주교, 장덕필(張德弼, 니콜라오) 신부, 오태순 신부, 염수정(廉洙政, 안드레아) 신부, 박상진, 이윤자(루치아), 조광(이나시오) 등 총 7명이었다.<sup>2</sup>

이 자리에서 최창무 주교는 연초에 추기경이 방북 의사를 표명한 바, 이 의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면서 광복 50주년을 맞아 서울대교구와 교구 사회사목부가 할 수 있는 적절한 일들과 민족통일을 지향하는 행사와 사업 그리고 운동을 각기 진행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분단과 통일에 대한 건전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최 주교는 “분단은 일종의 죄악이며 모두가 동참해서 화해와 회개를 이룰 때 그 극복이 가능하고 통일은 변화의 과정이므로 화해와 일치를 지향하는 지속적인 노력은 다가오는 2000년 성년(聖年) 때까지라도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할 때 긴 안목을 가지고 진행하자고 제안하였다.

명동 본당 주임 장덕필 신부와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오태순 신부는 민족통일과 관련하여 한국교회가 당면한 문제와 이를 풀어나갈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장 신부는 교회가 가진 예언자적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 1995년도 광복희년 맞이 사순절 통일 특강의 주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민족통일”로 정하였으며, 이와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특별 강론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것을

2 「광복 50주년 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록」, 1995. 2. 12.

〈표 1〉 1995년도 명동대성당 사순절 통일 특강

때	주제	강사
3월 8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민족통일	김대중 선생(아태재단 이사장)
3월 15일	종교와 민족통일	김덕(전 통일원 부총리)
3월 22일	민족공동체의 통일-한반도통일과 한민족	박종화 교수 (한신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총무)
3월 29일	민족통일은 가능한가?-현실진단	김학준 교수(단국대학교 이사장)
4월 5일	인간구원과 화해로서의 통일	최창무 주교
4월 12일	통일을 위한 기도회	김수환 추기경

\*출처 : 천주교 서울대교구 선교국, 「서울주보」 제907호(1995. 3. 12).

검토하자고 제안하였다.

오탈신부는 광복 50주년을 기념하는 일은 서울대교구 사회사목부에서 우선 구체적으로 시행해 갈 수 있으며 통일을 지향하는 운동을 할 때에는 교회 혹은 교구 안팎에 있는 기존의 단체 내지는 기구들과의 협조와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 밖에 ①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현재 교회 안팎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사한 사업들에 관한 정보 수집, ② 이 사업의 수행을 위해서는 먼저 그 명칭 및 조직과 주관자를 분명히 하고 다른 단체나 기관과의 관계도 선명히 규정할 것, ③ 민족의 화해를 지향하는 운동은 쌍방성(雙方性)을 갖는 것이므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향에서 진행할 것, ④ 모든 행사는 교회력을 참조하여 교회의 일반 행사와 연계시키며 진행할 것, ⑤ 자발적 참여를 촉구할 방안 모색 등의 안건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 2)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명칭

제1차 회의가 끝나고 4일 만인 2월 16일에 광복 50주년 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1차 모임 참석자 7명 외에 환경사목을 담당하고 있던 이재돈(李載敦, 세례자 요한) 신부가 새로 위촉되어 참석하였다.<sup>3</sup>

제2차 회의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의 역사가 시작되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다. 광복 50주년 준비위원회는 50주년 기념사업으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이룩하는 데 전념키로 하고 이를 전개하는 기구에 적합한 명칭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애초에 민족화해위원회 외에 민족통일위원회, 민족연대위원회, 북한선교위원회 등이 거론되었다.

‘민족통일위원회’는 그간 정치적 용어로 많이 쓰여 왔기에 용어의 선명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개념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민족연대위원회’의 경우 민족 내부의 연대를 위한 것은 맞지만 폴란드 등 유럽 교회에서 다소 많이 사용되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그리고 ‘북한선교위원회’는 남한과 북한이 모두 포괄되어야 하는데 선교라는 용어는 북한 형제들에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이미 자신들을 선교의 대상으로만 국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는 사실도 지적되었다.

논의 결과 위원회의 명칭을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로 하되 교구장의 승인을 거쳐 공식 확정하기로 하였다. 위원회의 명칭은 교회가 민

3 「광복 50주년 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록」, 1995. 2. 16. 장덕필 신부는 이 자리에서 준비위원회의 명칭을 '광복 5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에서 '광복 50주년 준비위원회'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최창무 주교는 광복 50주년 준비 모임이 교구의 위촉에 의해서 준비된 것임을 밝히고 단순히 사회사목부 사업으로만 표시하지 말고 교구 차원의 사업이라는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청하였다.

족을 위해 추구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선명하게 제시하는 용어이자 통일 이후 교회가 추구해 나가야 할 사업도 포괄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결정하였으며 영문은 Korea Reconciliation Committee, Archdiocese of Seoul(약칭 : KRC)로 하였다. 특히 위원회의 명칭과 관련해서는 ‘민족화해’의 개념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통일’이라는 일반 용어가 가지고 있는 개념에 ‘민족화해’라는 요소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위원회 조직 구성은 당연직 위원으로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장을 포함시키고, 위원장 위촉위원은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 가운데 위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위원회의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교회 내 언론기관(가톨릭신문, 평화방송 등)의 관계자를 위원으로 위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함께 위원장을 사회사목 담당 주교로, 위원은 교구청 내 사무처장, 평신도 사목국장, 선교국장, 2000년대 복음화 위원장,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장, 한마음한몸운동부장, 통일사목연구소장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이 외에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를 위원장 주교가 위원으로 위촉하기로 하였다.

당시 원칙적으로 민족화해위원회는 기획 조정 기능을 맡을 뿐 직접적인 수행은 제한하고 구체적인 사업 집행은 교구 내 기존의 단체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지만, 1995년 3월 1일자로 민족화해위원회가 교구 기관으로 공식 설립되고 수행할 사업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위원회가 기획한 일들을 명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족화해위원회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 3)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사업 계획안

광복 50주년 위원회는 1995년 2월 16일에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사업 계획안’을 작성하였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과 행사 그리고 운동을 구별하여 진행하기로 하고,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하되 특히 북한과 남한의 신자들에게 민족화해의 필요성과 결단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다음 <표 2>와 같은 세부 내용을 계획안으로 확정하였다.

이 밖에도 사업 계획안에서 다루어진 내용은 1980년대 이래 한국교회가 교황청을 통해서 추진해 오던 북한교회와의 접촉을 위한 시도를 존중하고 이와 병행하여 북한 신도 내지는 북한교회와 접촉할 수 있는 시도가 다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북한교회와의 연대를 다지고 남한교회의 북한 방문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 교섭은 정부(통일원)를 통해서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중국 천주교 교무위원회 등의 도움을 받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한마음한몸운동의 차원에서 중국교회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진행시키면서 북한교회와의 연결을 시도할 수 있으며 중국교회를 지원하는 경우 중국 북경에 있는 각 교구 연합신학교인 북경천주교 신철학원(神哲學院)에 대한 지원이나, 중국어 천주교 성서 간행을 위한 지원을 전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교구장의 방북을 준비하고 공동 기도문을 작성하거나, 교구 내 성지에서 공동 기도회를 갖기 위한 계획의 사전 협의를 위해서 북한교회의 인사를 남한에 초청하고자 할 때는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이나 명동대성당 주임 신부 혹은 평협 회장 등의 명의로 초청을

〈표 2〉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사업 계획안 내용

주제	주요 실천 내용
특별 강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순절 특별 강론 : 현재 명동대성당에서 김대중, 김덕, 김학준, 박종화로부터 민족통일에 관한 특별 강연을, 교회 내 인사로는 최창무 주교의 특별 강론을 듣기로 계획되어 있다.</li> <li>- 순교자성월 특별 강론 : 사순절 특별 강론의 성과를 검토하여 8월 30일, 9월 6일, 9월 13일, 9월 20일 등 4회에 걸쳐 민족통일에 관한 특별 강론을 다시 진행하기로 한다. 그리고 9월 23일(토)과 24일(일)에는 서울의 주요 성지에서 민족화해를 위한 순회기도회를 개최한다. 순회 기도회에는 북한 형제들을 초청할 수 있으며 기존의 도라산 전망대보다는 성지에서 기도회를 함으로써 순교 신심을 미래의 교회와 연결시키도록 한다.</li> <li>- 대림절 특별 강론 : 경우에 따라가서 대림절 기간 동안 특별 강론을 시행할 수 있다.</li> </ul>
민족화해 기원 미사의 정례화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미사를 민족화해 기원 미사로 선언하고 민족화해를 위한 운동을 지속한다.
단식 기도일 선정	민족화해를 위한 단식기도를 시행한다. 민족화해를 위한 참회와 기도의 의미를 살려서 민족화해미사가 개최되는 화요일에 단식을 권장하여 시행하는 문제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신자들은 민족화해를 위한 기도와 참회와 단식 그리고 미사와 헌금으로 화요일을 뜻깊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민족화해 헌금	민족화해미사가 개최되는 매주 화요일, 민족화해 헌금을 걷어 사업의 재원으로 총당 하되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한미헌금운동의 취지에 입각하여 진행하고 교회 내 언론기관의 협조를 요청한다. “화요일은 화해의 날”이라는 표어 아래 민족의 화해를 위해 특별한 기도와 희생을 바치도록 권장한다.
민족화해를 위한 남북한 공동 기도문 작성	민족화해를 위해 남북한 신자들이 공동으로 바칠 수 있는 기도문을 작성하되, 북한 신자들과 이 문제를 협의한다. 공동 기도문이 작성되기 전에는 기존의 민족화해를 위한 기도문을 사용하거나, 본 위원회에서 별도의 기도문을 제정하여 바치도록 한다.
민족화해 기원 성지순례 개최	순교자성월 특별 강론을 모두 마친 다음, 별도의 날짜를 정해서 서울 시내 성지 4곳을 선정하여 서울대교구의 주교님 네 분이 시차를 두고 미사를 집전하며, 이 미사 참여와 성지 순례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성서 운동과의 연계	11월 26일 그리스도왕 축일부터 1주일 동안은 성서 주간이다. 이 성서 주간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지향하며, 분단 상황에 대한 참회를 이끄는 특별 성서 공부를 집중적으로 개최한다. 이 공부는 명동대성당에서 진행시킬 수도 있을 것이며, 교재를 미리 작성하여 전국 내지는 서울대교구 내의 본당과 단체에 배부하여 동시에 교육을 진행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민족화해학교의 개설	민족화해를 위한 특별 강론은 민족화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 여론을 확산시키는 데에는 효과적이다. 그러나 민족화해 문제를 심도 있게 이해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6주~8주 정도의 민족화해학교를 개설하여 민족화해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방안도 덧붙였다.

이 사업 계획안은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가 3월 1일 교구 기관으로 공식 출범한 이후 순차적으로 실행되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사제와 신자들이 마음을 모아 논의하고 결정하였기에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사업과 행사 그리고 운동을 구별하여 진행할 수 있는 확실한 토대가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는 남북한 신자들에게 민족화해의 의지와 노력을 복돋울 수 있는 일들을 추진한다는 목적을 꾸준히 견지하였으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한국교회에 특별히 부탁한 바 있는 중국 선교의 추진도 더불어 진행하였다.<sup>4</sup>

한편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가 설립된 그해 중국 천주교회의 북경천주교 신철학원장 종회덕(宗懷德) 주교를 단장으로 주교 2명, 신부 3명, 평신도 지도자 2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이 9월 20~21일에 방한하여 김수환 추기경을 예방하였다. 당시 함께 온 중국 천주교 교무위원회 부주임 류백년(劉柏年, 안토니오) 씨는 1992년에 이미 북한을 방문하여 부활절 미사를 봉헌한 바 있다며, 북한 방문 당시 종회덕 주교가 평양 신자들에게 ‘김수환 추기경이 평양교구장이니 공식적으로 추기경과 연락을 하라’고 권고했다고 전하였다.<sup>5</sup>

4 1989년 제44차 서울세계성체대회 당시 한국을 방문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한국교회는 아시아인들에게 봉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북한과 중국 대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성모님께 의탁합니다.”라며 한국교회가 북방선교의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는 역사적 소명을 깨우쳐 주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북한선교위원회, 『한국천주교통일사목자료집(1945~1991)』, 『서울세계성체대회 평화의 메시지』(1989. 10. 8. 서울 여의도광장), 260~261쪽.

5 맹제영, 「현대 중국천주교회에 관한 소고」, 『가톨릭신학과사상』 제14호, 신학과사상학회, 1995. 12. 309쪽.

#### 4)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의 발족과 조직 변화

상술한 바와 같이 가톨릭신문의 김수환 추기경 인터뷰 '신년 특별대담'에서 촉발된 민족화해위원회 준비 모임은 2월 28일 민족화해위원회 이름을 내건 첫 회의로 그 본격적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날은 김수환 추기경과 최창무 주교를 비롯하여 이미 섭외된 위원들을 중심으로 모여서 앞으로의 구체적 인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sup>6</sup> 민족화해를 위한 미사 준비, 민족화해학교 개설, 기존의 북한선교 혹은 사회사목 활동과의 관계 설정 등에 대해 논의하였고, 상임위원 제도를 추진하여 최창무 주교, 염수정 신부, 김윤태 신부, 오태순 신부, 이기우 신부, 이관진, 조광, 윤여덕, 이윤자 총 9명이 임명되었다. 또한 위원회의 규약의 내용, 추가해야 할 사항 등을 의논했다. 그리고 마침내 민족을 위한 중요한 기념일 중 하나인 3·1절에 맞춰서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가 공식 발족하게 되었다. 3월 1일을 창립일로 선택한 데에는 거족적 민족운동이었던 3·1 운동처럼 민족화해운동이 교회 안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의 민족이 함께할 수 있는 제2의 거족적 민족운동으로 전개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새롭게 시작한 조직이었지만, 초기에는 본업이 따로 있는 교구 안팎의 인물들로 이루어진 위원회 하나뿐이었다. 사무실도 없고, 실무를 전담할 직원도 없었다. 때문에 교구 내에서 활동의 성격이 비슷한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서

6 1995년 2월 28일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김수환 추기경, 최창무 주교, 김성태 신부, 오태순 신부, 장덕필 신부, 염수정 신부, 김인성 신부, 박기주 신부, 이재돈 신부, 이기우 신부, 유수일 신부, 김윤태 신부, 김애라 수녀, 이관진, 조광, 노길명, 이윤자, 박상진, 윤여덕 등 19명이었다.

#### ◆ 민족화해위원회를 발족하며

올해는 광복 5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다. 또한 올해는 민족이 본단의 길을 걸은 지 5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이 50년 동안 한민족은 극심한 변화와 격동의 역사를 체험해야 했다. 이 격동의 역사과정에서 전쟁으로 인한 중오에도 불구하고, 식지 아니하는 동포애는 지속되어 왔다. 이 동포애로 인해서 남북한의 민족구성원 대다수는 분단시대를 살면서도 민족의 화해와 연대의 일치를 그리워해 왔다. 그러나 그 중오의 그림자로 인해 민족의 화해와 일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당면의 과제로 남았다.

오늘의 교회는 민족공동체의 화해와 일치에 기여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교회는 민족의 보편적 구원을 지향하며 민족 구성원 모두가 하느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기를 기원한다. 교회는 화해와 일치의 성사인 까닭이다. 이를 위해서 자신의 지난날을 되돌아보고 스스로 참회하며, 민족 구성원 모두에게 참회와 용서의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민족내부에 자리잡고 있는 중오를 사랑으로, 불화를 화해로, 분단을 일치로 이끌어 나가려 한다.

우리 나라 근·현대사에 있어서 민족과 교회는 식민지 지배의 고통과 해방의 감격을 공유해 왔다. 우리 교회와 민족은 전쟁의 쓰라림과 독재의 굴레에 함께 시달렸다. 교회는 민족의 구원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면서 민족이 당면했던 고통의 극복을 위해 민족과 함께 공동의 노력을 전개해 왔다. 이 전통은 현대 교회의 가르침과 함께 오늘의 교회가 민족의 미래를 위해 투신할 수 있는 귀중한 자산이 되었다. 이에 오늘의 교회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본단의 무거운 책임을 이룩하고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일에 새롭게 매진해 나가자 한다.

우리는 인류에게 평화와 일치를 명하신 하느님의 말씀에 온 다 충실하고자 한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은 평화와 화해와 일치를 이루지 못하였다. 인류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소명을 짊어진 우리 교회는 이 때문에 참회와 회성을 먼저 실천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천주교 서울대교구에서는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민족화해위원회를 발족하며, 우리의 마음을 넓게 열고자 한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여라도 상호간에 사랑과 존엄성을 해치는 모든 일을 배격하며, 합당한 평화와 일치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 제물로 바치자 한다. 그침 없는 회성과 기도와 실천적 행동을 통해서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진정한 화해와 일치의 정신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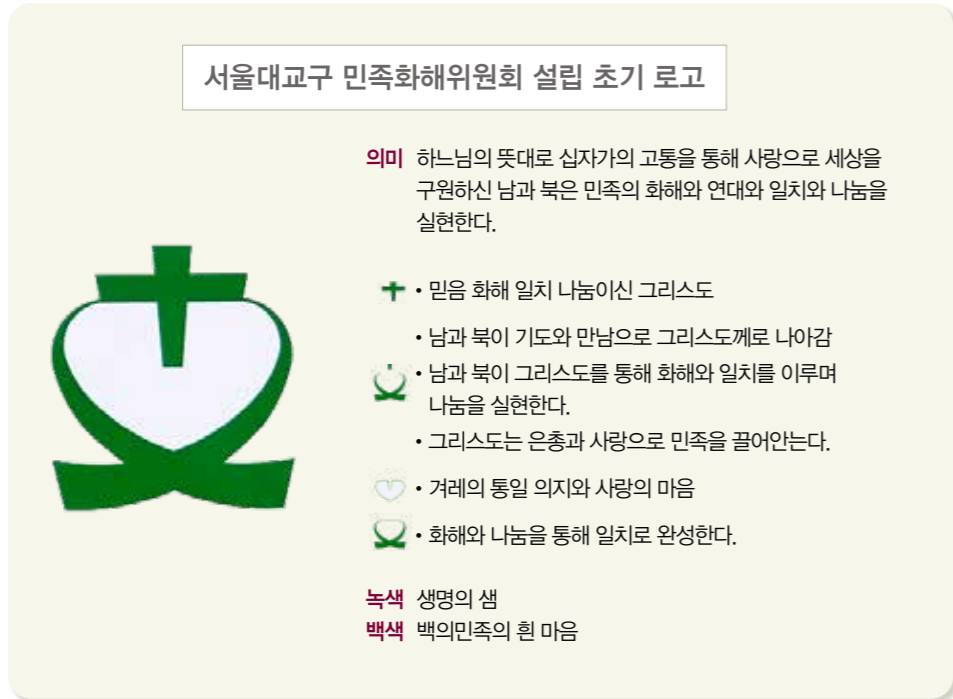
광복 50주년은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이다. 우리는 이를 민족의 경사로만 이해하지 않고 그리스도교의 오래된 전통에 따라 오늘에 이 시점을 민족의 회년으로 받아들이며, 화해와 일치의 역사를 새롭게 이룩해 나가자 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천년을 기념하게 될 때까지 화해와 일치를 위한 노력을 즐기차게 지속하면서,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뿌리내리는 데에 우리의 모든 힘을 바치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인간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뜻이 이 땅에서 더욱 잘 구현되고, 민족의 화창한 미래를 여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여기에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를 발족하는 까닭이 있다. 우리는 그 화해를 키우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내딛으며 뜻을 같이하는 모든 이들을 이 길에 초대하는 바이다.

1995년 3월 1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최 창 무 주교



민족화해위원회를 다방면으로 지원해줬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서도 기존의 활동에 더해서 김수환 추기경의 방북 원의가 발표된 1995년부터 대북지원 사업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민족화해위원회의 사업과 연계할 수 있었다.

당시 최창무 주교가 사회사목 담당 교구장 대리로서 한마음한몸운동본부와 민족화해위원회의 책임을 맡았을뿐더러,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본부장이던 오태순 신부가 민족화해위원회 운영위원장을 겸임했기 때문에 이러한 협력이 쉬웠다. 사업에 필요한 직무의 인력을 민족화해위원회 이름으로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소속으로 두고 실질적인 업무만 보게 했던 것이다. 1996년 8월에 현판식을 거행했고, 1996년 9월 모금 계좌를

신설하기도 했으나, 사실상 업무의 대부분을 공유하였다. 때문에 초창기에는 업무 협력을 위해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사무실과 민족화해위원회 사무실이 나란히 위치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민족화해위원회의 활동이 점점 커지면서 별개의 조직으로 자리를 잡을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1997년 초부터 민족화해위원회 조직의 정비 논의되었다. 급선무는 한마음한몸운동본부와의 관계 정리였다. 민족화해위원회의 사무실을 가톨릭회관 621호로 옮겨 사무 공간을 분리했고, 사업도 인수인계 과정을 밟았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서 민족화해위원회 관련 업무를 하던 직원들도 새로운 공간으로 이전했다. 초기 실무진은 오태순 신부, 정 마리아네 수녀, 김대민, 김현미로 꾸려졌다. 물론 여전히 전국민적 모금운동과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같은 활동은 함께 했으며 필요시에는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직원이 민족화해위원회 일을 돕기도 했다. 때문에 두 개의 기관이 공동의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곤 했다.

결국 몇 차례 조정 과정을 거쳐 1998년 7월부터는 한마음한몸운동본부가 서울대교구의 사회사목 총괄 부서로서 민족화해위원회의 재정 업무까지 통합해서 관리하되 민족화해위원회 사업을 전담하는 직원을 별도로 두어 재정 자체는 분리시키기로 정리되었다. 이러한 한마음한몸운동본부와의 관계는 2002년까지 지속되다가 민족화해위원회의 규모와 사업이 확대되면서 최종적으로 대북 관련 사업은 민족화해위원회에서 전담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한편 교구에서는 1997년 4월 3일 통일사목위원회를 발족시켰으나 활동의 성격이 민족화해위원회와 비슷하고 신자들에게 혼동을 주는 경우가 있다 해

서 이듬해 6월부터는 민족화해위원회와 통일사목위원회의 통합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통일사목위원회도 최창무 주교가 사회사목 담당 교구장 대리로서 위원장을 역임 중이었기 때문에 통합을 위한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다만 두 기관이 통합을 논의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교구장 권한인데, 마침 김수환 추기경이 은퇴하고 신임 정진석 대주교가 서울대교구장 착좌식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라 논의 단계에서 잠시 그쳤다가 9월에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두 기관이 최종적으로 완전히 통합된 것은 12월 6일의 일이었지만, 10월부터 공동의 이름으로 북한사목 희망사제를 모집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업무가 이관될 수 있도록 하였다. 통합 이후 통일사목위원회에서 추진하던 북향민<sup>7</sup> 지원 사업과 북한사목 희망 사제 모임 등은 민족화해위원회의 주요 사업이 되었다.

한편 민족화해위원회를 조직하고 본격적인 모금운동을 시작하던 1995년도 9월부터 ‘북한동포돕기 추진위원’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각 본당에 민족의 화해와 일치에 대한 관심을 불러넣고, 민족화해학교 교육에 동참하며, 필요시 봉사자가 될 수 있는 이들을 모아서 모금운동의 동력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본당별로 사목위원, 구역장, 단체장 등 활동 중인 인물 중에서 3명의 위원을 선임해달라는 요청에 따른 참여자가 기대만큼 많지는 않았다. 1996년 3월에 우선 모인 이들로 1차 임명식을 하고도 여러 차례 참여를 추가

7 당시에는 귀순자라 불리었다가 탈북민, 새터민,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표현이 변화했다. 현재(2024년) 민족화해위원회에서는 ‘북에 고향을 두고 이주해온 사람’이라는 뜻에서 ‘북향민’이라고 부르고 있다.

로 독려한 끝에 1997년 4월에야 최종적으로 추진위원을 선정할 수 있었다. 민족화해와 북한에 대한 관심 있는 이들의 자발적 참여도 있었지만, 본당 사목 위원들이 의무감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한계는 이후 추진위원회 활동이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추진위원들은 대규모 모금활동이 있을 때마다 각 본당에서 홍보 활동을 하며 신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1998년 12월 민족화해위원회의 조직이 재정비되었고, 1999년부터는 기존에 위원장으로 있던 최창무 주교가 광주대교구장으로 임명되면서 강우일 주교가 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실무를 담당하는 자리도 오태순 신부에서 이기현(李基憲, 베드로) 신부, 2000년부터는 정광웅 신부로 바뀌었다. 그리고 1999년 10월에는 주교회의 북한선교위원회가 마침내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로 개편되면서 강우일 주교가 위원장을 겸직하게 되었다.

##### 5) 민족화해위원회의 모금활동과 문화 행사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는 2001년 초에 기존에 관리하고 있던 후원회원들의 명단을 각 교구별로 분할·이관하였으며, 이때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로는 18,000여 명의 명단이 이관되었다. 민족화해위원회에는 1996년부터 2000년까지 국수 나누기 운동을 통해 모집된 후원회원에 더하여 적지 않은 수의 회원이 늘어난 셈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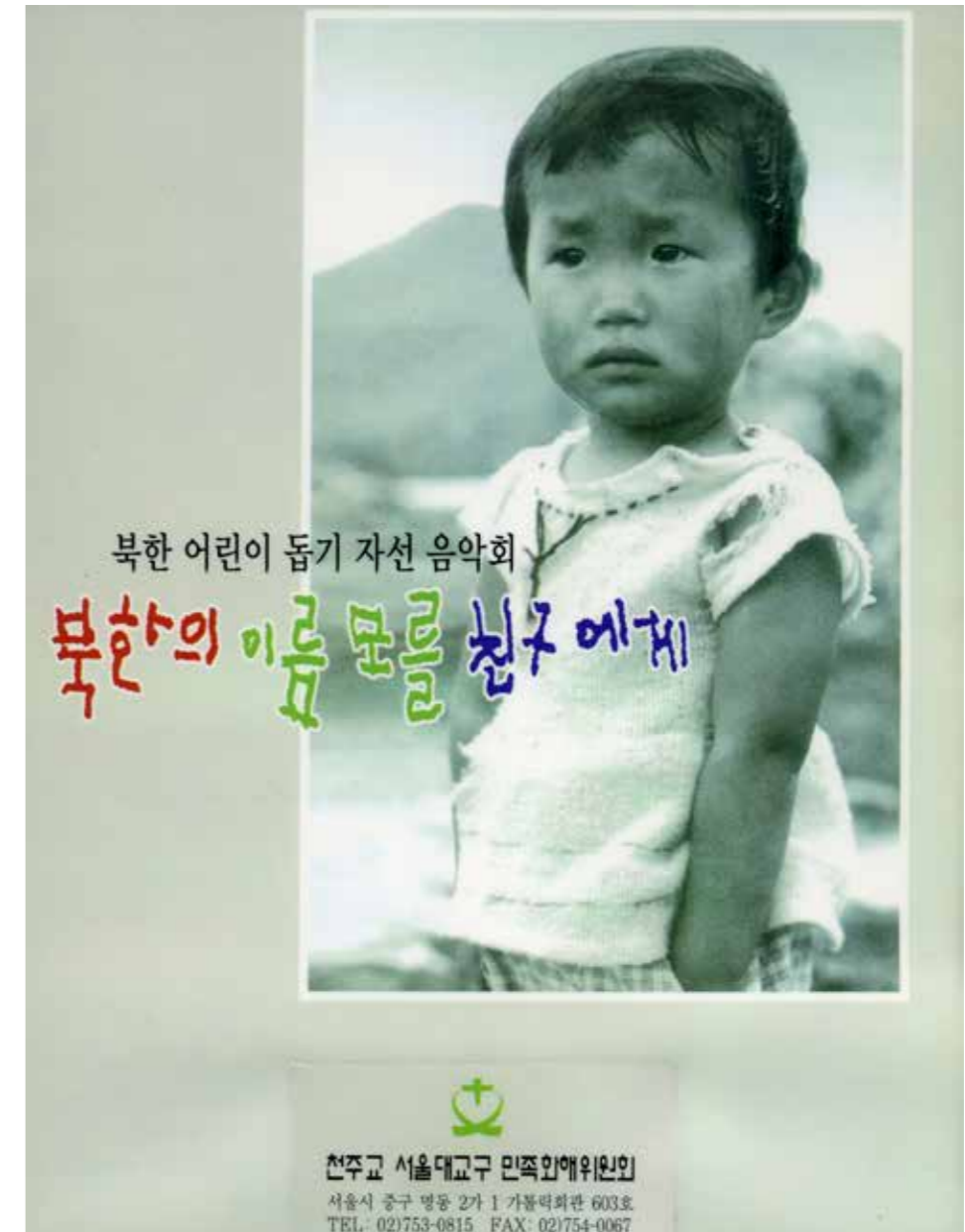
후원회원 제도의 관리와 운영은 품이 드는 일이라 별도로 이를 담당할 직원을 추가로 고용하기도 하는 등 이에 대비했으나, 전반적인 추세가 북한에

대한 관심이 예전 같지 않아서 얼마 지나지 않아 후원회원의 수가 급감했다.

민족화해위원회 총회 자료에 따르면 2000년에 18,000명이 넘는 후원회원이 2001년도에 7,800명, 2004년에는 5,219명까지 줄어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활동을 위한 예산의 확보는 중요한 문제였다. 다행히 2000년부터 매년 6월에 있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미사의 2차 헌금을 민족화해위원회 활동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다.

민족화해위원회는 모금활동 외에도 민족화해위원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다. 그 시발은 1996년 12월 23일 있었던 ‘겨레와 함께하는 감사의 밤’ 음악회였다. 처음 계획은 민족화해위원회 주최로 하고 사회사목부 산하 여러 기관 단체가 후원하는 것이었으나, 준비 과정에서 민족화해위원회 주관, 사회사목부 주최로 바뀌었다. 행사 준비는 민족화해위원회를 위주로 진행했으며, 음악 부분은 백남용(白南容, 바오로) 신부가 맡았다. 민족화해위원회 주관 행사였으나 동시에 서울대교구의 행사로서 치러졌으며, 음악회를 통해 민족화해위원회를 비롯한 서울대교구 사회사목부의 활동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1999년에는 북한 어린이 돕기를 위한 모금활동의 일환으로 6월 26일에 일일찻집을 운영하고, 9월 22일에는 자선음악회를 개최했다. ‘북한의 이름 모를 친구에게’라는 이름으로 일일찻집을 운영하여 2,350여만 원의 수익을, 같은 이름의 자선음악회를 통해서 2,460여만 원의 수익을 거두었다. 2002년에는 광복과 동시에 분단이 되었던 민족의 아픔을 기억하며 8월 14일에 통일음악제를 개최하였다. 행사를 위해서 평화방송의 후원을 받아서 창작 성가팀을 공모하였고, 두 차례 경연을 거쳐 최종 9팀을 선정했다. 창작 성가팀과 외부 초



1999년 북한어린이돕기 자선음악회 포스터.

빙 가수들, PBC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까지 풍성한 무대로 명동대성당 성모 동산에서 성대하게 치러졌다. 이러한 행사는 대체로 일회성으로 그치긴 하였지만,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교회 안팎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후원금을 모집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 2. 북한교회를 위한 민족화해위원회의 노력

### 1) 민족화해미사와 기도운동

민족화해위원회 조직이 꾸러지고 처음 시작한 사업이 바로 기도였다. 1995년 3월 1일 발족하고 바로 일주일 만인 3월 7일에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첫 미사가 봉헌되었다. 이 미사는 이후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명동대성당에서 봉헌되었고, 약칭 “화해미사”로 불렸다. 첫 미사는 김수환 추기경의 집전으로 이루어졌는데, 첫 미사 강론의 주제는 ‘용서하고 기도하자’였다. 주님의 기도와 민족의 화해를 접목시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이루기 위한 실천의 맥락에서 주님의 기도문의 내용을 설명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예수님께서 용서를 말씀하신 대목을 강조하였다. 즉 먼저 우리가 이웃과 형제를 용서함으로써 화해와 일치를 이룰 때 하느님께서 용서와 화해와 일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주신다는 내용이었다. 매 미사마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주제로 하는 특별 강론이 이어졌으며 신자들에게 북한교회를 기억해야 하는 당위성과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기회가 되었다.

〈표 3〉 1995년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특별 강론

회차	날짜	강론 제목	강사
1	3. 7	용서하고 기도하자	김수환 추기경
2	3. 21	화해의 참된 의미	이원규 신부
3	3. 28	장벽을 헐어 내는 화해와 일치를 위하여	구요비 신부
4	4. 4	화해와 일치를 위해 무엇을 할까? - 뱀에게 물렸어도 구리뱀을 본 사람은 죽지 않았다 -	이기우 신부
5	4. 11	마음속에서부터 평화와 통일을 살자	김우성 신부
6	4. 18	예수님의 빈 무덤의 신비로 통일을 기원하자	장덕필 신부
7	4. 25	하느님의 용서와 사랑을 믿자 -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단죄를 받을 것이다 -	강우일 주교
8	5. 2	생명의 빵	김정수 신부
9	5. 9	예수님의 자유	도요안 신부
10	5. 16	예수님의 수난과 부활에 깊이 참여하자	박문수 신부
11	5. 23	현명한 분별력을 갖자	외국인 신부
12	5. 30	만남에서 화해와 일치를	이재돈 신부
13	6. 11	“명동대성당에 공권력 투입” - 광복 50주년 분단 50주년에 분단의 벽을 넘어 대화로 문제 해결의 시기 -	김수환 추기경
14	6. 27	너희가 나에게서 바라는 대로 나에게 해주어라	최창무 주교
15	7. 4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회개를 하자	김우성 신부
16	7. 11	사람들이 마귀들린 병어리 한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다	용동진 신부
17	7. 18	민족화해미사 봉헌의 의미	오태순 신부
18	7. 25	마음을 비워 우리 안에 하느님의 보화를 청하자	이영찬 신부
19	8. 1	민족의 화해와 일치는 지금 여기에서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임경명 신부
20	8. 8	물 위를 걸어간 베드로	이기우 신부
21	8. 22	하늘 마음으로 돌아가자	김우성 신부
22	8. 28	내가 네 옆에 있어 도와주리라. 이는 내 말이라 어짐이 없다	이은형 신부
23	9. 5	민족화해의 길	조광 교수
24	9. 12	민족화해는 우리의 절박한 과제	서춘배 신부

회차	날짜	강론 제목	강사
25	9. 26	남북의 동포가 서로 형제로 보일 때 통일은 온다	이기우 신부
26	10. 3	세상을 올바르게 볼 줄 아는 해안의 마음을 갖자	김우성 신부
27	10. 31	민족화해와 일치 - 겨자씨가 큰 나무되고 누룩이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듯이 -	도요안 신부
28	11. 7	초대받은 사람의 자세 -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도록 하여라 -	이기우 신부
29	11. 14	저희는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이영재 신부
30	11. 21	하느님의 화해와 일치 없이 민족의 화해와 일치는 없다	이원규 신부
31	11. 28	종말은 새로운 창조 새시대를 여는 희망	구요비 신부
32	12. 8	북한동포 수해보고회 참가기	-
33	12. 17	세례자 요한과 민족통일	이기우 신부
34	12. 26	기도와 희생은 민족화해와 일치를 위한 우리의 큰 몫이다	김우성 신부

기도운동을 남한만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었기에 북한의 장충성당에서도 함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소통을 시도했다. 비록 북에서는 미사를 드리기가 어렵지만, 매주 화요일 같은 시간에 기도를 봉헌하기로 약속함으로써, 적어도 공동 기도문을 통해서 마음을 함께 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1995년 8월에는 박창득 신부를 통해 남북이 공동으로 바치는 기도문으로 프란치스코 성인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를 사용하기로 북측과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9월 10일부터 공동 기도문으로 「평화를 구하는 기도」를 평양의 장충성당과 명동대성당에서 함께 바쳤으며 현재까지 민족화해미사의 핵심 기도문으로 사용되고 있다.

주교회의 북한선교위원회는 6월 25일과 가까운 주일을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로 지켜오다 1992년에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로

이름을 바꾸었다. 민족화해위원회 창립 초기에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미사를 주교회의와 함께 봉헌하다가, 1999년부터는 별도로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만의 전례 행사로 진행하게 되었다.

## 2) 북한교회와의 관계 맺기: 대북 접촉의 시작과 뉴욕 세미나

1980년대 후반 소련의 붕괴와 사회주의 정권의 몰락으로 북한도 세계와 소통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면서 조금씩 개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바티칸을 통한 방북이 가능해졌고, 1988년에는 장충동에 성당이 건립되었으며, 조선천주교인협회<sup>8</sup>가 설립되었다. 이는 북한에도 종교적 자유가 있음을 드러내려는 목적이 강했으나, 한편으로 남한 천주교회의 입장에서는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생긴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민족화해위원회와 북한교회의 소통은 김수환 추기경의 방북을 논의하면서 처음 시작되었다.<sup>9</sup> 중간에서 서신 등을 전달하는 중계자로 중국교회나 미주 한인, 혹은 유엔 산하 기관 등을 이용하기도 했으나, 차츰 팩스를 통한 교류 방식이 자리 잡아갔다. 민족화해위원회가 창립되고 최초의 소통은 공동의 기도운동을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자리를

<sup>8</sup> 1988년 설립될 때는 ‘조선천주교인협회’라는 이름이었고, 1999년 ‘조선카톨릭교협회’로 개칭했다.

<sup>9</sup> 김수환 추기경의 방북 문제는 1980년대 바티칸을 통한 북한과의 소통이 시작되고 북한에서 초청 의사를 밝힌 이래로 지속해서 거론되던 사회적 이슈였다. 1989년부터 서경원 의원 밀입북 사건 재판 중에 김수환 추기경의 방북 논의가 쟁점이 되어 언론에 오르내리기도 했고, 1992년에는 평화방송과의 신년 대담에서 김수환 추기경이 방북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그러다가 1995년 초에는 연내 방북 의사가 있다는 데까지 진전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김수환 추기경의 방북이 추진되기에 이른 것이다.



공경하는 김수환 추기경님

안녕하십니까.  
 인편을 통하여 귀의 소장을 전하는 기쁨은 가리게 되었  
 습니다. 여러 기회에 추기경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계시대로 신앙과 교구와 민족을 사랑하는  
 기도를 쉬지않고 바치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흔팔 모로는 신성한 속사 흘러 대하로  
 굽어내리고 있는 현실속에서 우리는 민족의 고통과  
 더불어 교회의 분열이 있습니다. 이 현실의 분열은  
 성령께서는 고치실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해결할것도 아라고  
 있습니다. 라는 여기에서 추기경님의 자비와 역할이  
 크다는것을 전후할때 마스산으로 더없이 추기경님을  
 사랑하고 공경합니다.  
 추기경님, 오늘 북한판교는 경성되어있습니다.  
 이 경성도 우리 추기경님께서 널리 리해하시고 공평한

추의 판단에 따라 수교해주시는것은 시대와 민족의 요구  
 맞는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하나 건강한 성난관계해소에서 군현은 평화와  
 민주대평결(일체)의 해로 맞이하기 위해 서로 화해하고  
 평양이나 서울 또는 제3중에서 만나 견해를 교환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동일승운서 개점되는 과정으로 될것입니다.  
 이러한 디나에서 귀는 추기경님의 희망방향을 환영합니다.  
 솔직히 밝히며 공화국의 성령들은 견영신과는 상대리화하지  
 말아야 한다는것이 하나의 큰선 디리온 군사제입니다.  
 재가 왜 추기경님에 이 중대한 문제를 표현하는가이  
 대하여 잘 리해하시고 찬조하여 주십시오.  
 추기경님, 리재권외와 박창준신부님이 기성하게 평양을  
 방문하여 우리 장충성당에서 성령세미나으로 의의 관계  
 하였습니다. 또한 민족분열을 가하기 위해 사랑의 사도로  
 행동하여 여기에서는 천주교의 귀승이 좋습니다.  
 나와 우리 교구들은 그분들을 성군하게 리해하게 리었습니다.  
 추기경님, 박창준신부님이 수고스러이 리계하여 추천하는

베르가 3월 초에 온다고하니 기쁘고 전기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박창준신부님과 리재권신부님께 추기경님에게  
 한번 말은하여 주시면 합니다.  
 공경하는 추기경님, 귀는 성령의 계시대로 아무로  
 사랑과 화해, 자부, 평화, 단결(일체)로 전하 시해  
 하고 있다고 보게 됩니다. 지은 의 시각에도 귀는 성령  
 적으로 추기경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을  
 하느님께서 잘고 계시고 있습니다.  
 지난해 리주에 나오셨던 분들의 수요를 많이 하였고 그분들이  
 강변하게 우리 대표단을 대해주어 추기경님에  
 알려 드립니다. 최근에는 기쁘게 만나면서도 시명서적  
 하였고만 리해되니 일러 평양한 공적들이 높고 따뜻한  
 포용이 느리게 리었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라온지경  
 에서 50 (백만)이 많았다고 하여 아직도 리론은 풀리지  
 않다고는 있는것 같습니다. 리해하면..., 그에 대하여  
 강기 생각할것입니다. 모든것은 하느님께서만이 관장

계실것입니다.  
 "목욕을 하지 않은 사람이요 하여 상이 아닌 것이 아니라  
 목욕은 못한 리습을 먼저 원리하고 할것입니다."  
 공경하는 추기경님, 디신보다 믿고, 분열보다 화해, 서로  
 보다 화해, 증오보다 사랑, 나쁜것보다 좋은것, 불의  
 보다 정의를 위해 살라는 성령속에서 기도를 바치는  
 행성이 달라진 바치고 있습니다. 리안디 바쳐오는 리희입니다.  
 덕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너제도, 오종도, 리해되도 영원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996년 3월 3일  
 김수환 추기경

장재철 위원장이 김수환 추기경을 초청하는 편지(1996. 3. 3).



조선 천주교인 협회 중앙위원회  
장재철 사무엘 위원장

장재철 위원장께서 1996년 1월 31일부터 보내 주신 제의에 대  
 하여 동의하며, 겸해서 평양 장충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하기를 회  
 망합니다.  
 저의 평양 방문 시기는 1996년 5월 1일부터 약 1주일간 방문하  
 기를 희망합니다.

가 수 환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 겸  
 평양교구장 서리  
 추기경 김 수 환

1996년 3월 8일, 서울

ARCHBISHOP'S HOUSE 2-KA 1 MYONG-DONG SEOUL KOREA CABLE ARCHDIOCESE SEOUL

북한의 초청에 대한 김수환 추기경의 답신 공문(1996. 3. 8).

주님 예수

친애하는 북녘의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은총으로 여러분 모두 영육간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찾아가서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교회생활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싶어서  
 간절합니다. 특히 광복 50주년이 되는  
 올해에 2번 기회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허락되기를 마음으로 빌어 왔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렇게 줄로써만  
 여러분에게 인사를 보내게 되어 참으로  
 아쉽습니다.

이번에 평양을 방문하시는 박창득  
 아소스님 신부님께서 저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저의 마음을 인사로 전달하여 주시길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사랑의 사랑의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기쁨은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길 바랍니다." (고고전도 13, 13)

1995년 8월 10일 서울대교구장 겸 평양교구장서  
 추기경 김수환

김수환 추기경이 북한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1995. 8. 10).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김수환 추기경의 방북은 여러 여건상 당장은 어렵다 하더라도 우선 가능한 사람들끼리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하며 접촉을 늘려가는 것은 향후의 각종 사업 진행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었다.

1995년 5월에 중국교회의 도움을 얻어 북경교구에서 최초의 만남을 시도했다. 최창무 주교, 오테순 신부, 장덕필 신부, 이동익(李東益, 레미지오) 신부, 조광 교수는 중국교회의 초청장과 비자를 받아 출국했다. 그러나 오기로 했던 북한교회 신자들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서 중국교회만 둘러보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북한교회와의 접촉을 위한 첫 시도는 무산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북경신철학원에서 최창무 주교와 장덕필 신부가 준비된 강의를 하고, 부철산(傅鐵山) 주교와 그밖에 중국교회의 여러 인사를 만났다. 당시 최창무 주교는 "윤리신학의 토착화"를 주제로, 장덕필 신부는 "한국 현대 천주교회의 전개"를 주제로 강의하였으며 통역은 중국인으로 한국에서 활동했던 성심수녀회의 주매분 수녀가 맡았다.

1995년 8월 미국의 박창득 신부가 평양을 방문해서 장충성당에서 광복 50주년 기념미사를 봉헌하면서 김수환 추기경의 '북한 신자들에게 보내는 친필 메시지'를 전달했고, 주교회의 북한선교위원회 이동호 아빠스가 보낸 초청장도 전달하였다. 그리고 상술한 바와 같이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공동 기도문으로 사용할 것을 합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1995년 10월 말 드디어 미국 뉴저지 포트리(Fort Lee)의 힐튼 호텔에서 민족화해위원회와 조선천주교인협회의 만남이 성사될 수 있었다. 포트리가 뉴욕시와 바로 붙은 위치에 있다 해서 통칭 뉴욕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최초의 남북한 천주교인의 만남이었다.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서 만나긴 하지만, 만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했기 때문에 부득이 세미나라는 학술 모임의 형태를 빌렸고, 행사의 주제는 “조국 통일을 위한 천주교인들의 역할”이었다. 남한의 참가자는 최창무 주교, 장덕필 신부, 최창화(崔昌和, 토마스 데 아퀴노) 신부, 손병두, 조광, 이윤자, 이강렬이었고, 북한은 장재철, 차성근(율리오, 평양 장충성당 회장), 김유철(조선천주교인협회 부부장), 전응렬(조선천주교인협회 상무위원), 김배화(조선 해외동포원우회 참사), 그리고 미주 동포 대표로 박창득 신부, 염봉덕(廉鳳德, 프란치스코) 신부, 이창재(요셉) 종신부제, 박기호(베드로), 이재진(루이스)이 참석했다.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이루어진 모임 중에서 세미나 일정은 10월 30일이었고, 이에 앞서 28일에는 세미나 일정의 세부적인 사항을 조절하기 위한 준비모임도 가졌다. 나머지 날들은 함께 미사를 드리고, 식사를 나누었

〈표 4〉 1995년 10월 30일 뉴욕 세미나

일정	발표자	발표 내용 요지
오전 조국 통일을 위한 천주교인들의 역할	장재철 (북측)	통일이 급선무이므로 연방제에 의한 통일을 강조, 천주교인의 전쟁 위험 감소 노력 필요
	장덕필 (남측)	신약과 구약 성서에 기초하여 민족의 분단에 대해 설명, 신앙인 간의 대화가 필요함
	이창재 (해외동포)	북한의 현 체제를 존중하면서 천주교 신앙을 전파해야 하며 남북한의 대화가 중요
오후 남북 해외 천주교인의 연대 강화 방안	손병두 (남측)	남북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공동 기도문 확인, 상호 협조 하에 구체적인 사업들을 협력해나가자
	김유철 (북측)	중립 연방제 통일국가가 필요함, 민족 자주정신을 바탕으로 단결, 관계 증진과 연대성 강화 등
	박창득 (해외동포)	종교적 교류에 그쳐야 하며, 천주교 신자나 김수환 추기경의 방북이 통일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으며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처음에는 다소 긴장되어 있던 북한 신자들도 같은 공간에서 숙식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친밀감이 싹텄고, 마지막에는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석별의 정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

뉴욕 세미나가 있기까지 박창득 신부의 역할이 컸다. 1972년부터 미국 뉴저지주에서 사목을 하던 박창득 신부는 1993년 4월부터는 미주 지역 해외 교포사목 담당 총대리 역할을 맡기도 하였다. 북한선교에 관심을 갖고 1980년대부터 교포 자격으로 북한을 몇 차례 오가면서 북한교회와 접촉해 왔으며 1989년에는 미주 한인 신자들과 함께 평양 장충성당에서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신자 합동미사를 봉헌하기도 했다. 또한 1995년에는 반대로 북한 신자들의 방미도 이루어졌다.<sup>10</sup> 1995년 8월에 박창득 신부가 장충성당에서 광복 50주년 기념미사를 봉헌할 수 있었던 것도 이렇게 교류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 3) 최초의 사목적 방문

뉴욕 세미나로 시작된 교류는 평양 방문을 준비하는 예비모임으로 1997년 6

10 1995년 2월 미국 빌리 그래함 재단의 초청으로 장재철(북한천주교인협회 위원장), 이범(미카엘), 오정우, 리춘구, 이정인, 전용갑, 김용수, 한성렬 8인이 미국을 방문하였다. 2월 5일에는 미동부지역 한인천주교회와 평신도 사도직협의회가 이들을 초청하여 환영 간담회를 가졌다. 남한의 천주교회에서는 미국에서 사목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제(박창득, 정옥진, 안상인, 김청문, 김육웅, 염봉덕, 남해근, 조학문, 김규택, 신현복)와 수녀(유경자, 이현숙), 그리고 각 한인 본당의 사목회장과 교우들이 참석하였다.

월과 1998년 3월, 북경에서 두 차례 더 이어졌다. 예비모임에서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 협의가 주를 이루었지만, 북한교회의 상황을 살피고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한 시도 역시 빠지지 않았다.<sup>11</sup> 1998년 3월 「예비모임 보고서」에 따르면, 조선천주교인협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인 장재철은 1936년생이고, 동 위원회 부부장 김유철은 1956년생으로 16세 때 북한으로 간 재일교포 출신이며 평양 외국어대 일어과를 졸업하였다. 동 위원회 책임지도원 이세복은 1941년생이며 덕원 출신으로 8세 때 영세를 받았는데 장재철이 구교 집안인 그의 집안 내력을 보고 발굴한 인물로 평양 김형직 사범대학의 교원이었다고 하였다. 이처럼 예비모임을 통해 북측 관계자의 신상 뿐만 아니라 평양 외에 3개의 천주교 지구가 있으며 성당이 없어 신자들 집에서 모인다는 사실도 확인하는 등 이후 교류를 진전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알게 되었다.

1998년 초에는 평양에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기원하는 부활절 미사를 함께 드리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부활절 시기에 맞춰 방북할 순 없었고, 5월 15일에 최초의 방북이 성사되었다. 1998년 5월 방북이 있기까지 북측과 여러 차례의 의견 개진의 과정을 거쳐야 했다. 북한 당국이 김수환 추기경의 방북을 여러 차례 권유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양하게 논의를 해왔던 것이다. 다만 여건이 맞지 않아 추기경의 방북은 끝

11 1997년 5월 15일 자 북한주민접촉 승인요청 공문에 따르면 1997년 6월의 북경 모임은 민족의 화해와 일치 및 상호 교류를 위한 남북 세미나(북경 세미나)라는 타이틀이었다고 하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학술적인 내용보다는 대북지원을 위한 협의, 김수환 추기경의 방북 관련 논의 등이 주를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내 결렬되었고,<sup>12</sup> 1998년 3월 만남에서는 4월에 명동대성당과 장충성당 각자의 자리에서 동일한 시간에 공동으로 부활절 미사를 드리는 것이 논의되었다. 대신 5월 중순에 약 1주일 정도의 일정으로 남한 사제와 신자들이 방북하기로 결정되었다.

방북 일행은 최창무 주교, 오태순 신부, 이기현 신부, 류덕희, 조광, 이운자, 이강렬이었다. 최초의 합의 사항은 중국을 통해서 육로로 이동하는 것이었으나, 일행이 중국에 도착했을 때 북한에서 비행기 이동으로 계획을 바꾸었다. 이를 두고 방북단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북한에서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니 그냥 돌아가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어렵게 성사된 일을 여기서 포기하면 다시 이 자리에 오기까지 너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었다. 결국 일곱 명 중 다섯 명은 당장은 북한 방문이 어렵겠다고 판단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기현 신부와 오태순 신부만 준비해 온 물품을 그대로 가지고 돌아갈 수는 없으니 중국 국경지대의 북향민들에게 나눠주기라도 하자고 남았다가, 아무래도 기회를 놓칠 순 없다 해서 북한과 비행 일정 등을 논의 후에 11일에 먼저 평양행을 택했다. 두 사람이 단동에서 다시 북경으로 와서 비행기로 평양에 갔다는 소식을 들은 나머지 일행도 다시 중국으로 나와 15일에 대련에서 평양의 순안공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북한 땅을 밟게 되었다.

이들은 평양의 초대소에 머무르면서 지원한 물품이 현장에 제대로 분배되었는지 확인하고, 장충성당에서 미사를 드렸으며, 북한교회 인사들과 함께 만

12 북에서는 1997년까지도 교환 서신에서 김수환 추기경의 방북을 위한 노력을 언급했으나, 1998년 6월로 추기경이 은퇴하게 되면서 그 뒤로는 관련된 언급 없이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논의만 이어졌다.

〈표 5〉 1998년 최초의 사목적 방문 일정

날짜	세부 일정	날짜	세부 일정
5. 11(월)	선발대 평양 도착	5. 18(월)	금강산 이동
5. 12(화)	농업위원회 비료분배 확인 장충성당 미사	5. 19(화)	금강산 관광
5. 13(수)	묘향산 이동	5. 20(수)	금강산 관광 대북지원논의
5. 14(목)	평양으로 돌아옴	5. 21(목)	평양으로 돌아옴
5. 15(금)	나머지 5인 도착 선발대는 시내 관람 5시 장충성당 신자들과 만남 저녁 환영만찬	5. 22(금)	중국 대련으로 이동
5. 16(토)	평양 관람(만수대, 만경대 등)	5. 23(토)	귀국
5. 17(일)	장충성당 주일 미사 유정를 성인 사적지 협동농장 방문		

〈표 6〉 1995-2000년 북한교회와의 대면 접촉 내역

날짜	지역	내용
1995. 10~11	미국 포트리	뉴욕세미나(최초의 만남)
1997. 6	중국 북경	북경세미나
1998. 3	중국 북경	방북에 대한 협의
1998. 5	평양	최초의 사목적 방북
1998. 7	중국 대련	대북지원사업 협의
1998. 9	중국 대련	대북지원에 관한 합의서 교환
1998. 12	평양	물품 지원 현황 확인
1999. 12	평양	물품 지원 현황 확인
2000. 7	평양	물품 지원 현황 확인, 장충성당 미사 봉헌

찬을 하고, 만수대, 만경대 등을 방문했다. 5월 17일에는 장충성당에서 북한 신자들과 함께 주일 미사를 봉헌하고, 북한 신자들에게 성체를 영해 주었다.<sup>13</sup> 이 외에도 그룹별로 나눠서 다양한 현장을 방문했고, 묘향산과 금강산을 다녀 오면서 중간에 평양이 아닌 지역의 물품 분배 현황도 확인했다.

방북 전에 여러 차례 협의가 있어야 했던 것은 첫 방북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1998년 12월에 두 번째 방북이 있고 그 뒤로 매해 한 번씩 물품 지원의 상황을 확인한다는 목적의 방북이 가능하긴 했지만, 사전에 두세 차례 중국 북경 등지에서 만나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대북지원사업의 품목이나 지원 금액 등에 대해 논의해야 했다. 그렇지만 2001년부터는 논의를 위해 중국을 거칠 필요가 없어졌다. 이후로는 필요에 따라 북한을 오가며 물품 지원에 관해 논의도 하고 현장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 4) 장충성당 지원

장충성당은 1980년대 후반에 새롭게 지어진 그리 크지 않은 성당이었다. 1990년대 말 당시 북한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약 3,000명의 천주교 신자가 있었고, 그중에 800명이 평양 거주자였다. 그러나 남한의 사제가 방문해서 장충성당에서 미사를 집례할 때 확인되는 미사를 드리러 오는 인원은 많아야 200명 정도였다고 한다. 성당 건물의 규모도 그 이상을 소화할 정도로 크지 않았

13 최창무 주교의 주례로 이루어진 장충성당 미사 시간에 맞춰 명동대성당에서도 공동기도문 〈평화를 위한 기도〉를 함께 바쳐,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마음을 모을 수 있었다.

다. 더욱이 북한 정부에서 성당을 처음 건축할 때 북한 내에 상주 사제가 없었기 때문에 제대나 감실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제의실도 그저 쓸렁한 빈방에 불과했다. 전례도구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처음에는 신부들이 각자 가지고 다니던 휴대용 전례도구를 사용해야 했다. 자연스럽게 방북 이후로 장충성당 미사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물품 지원이 논의되었다.

이에 따라 1998년 7월과 12월에 성당을 위해 타올과 의약품, 약간의 쌀과 분유, 그리고 그 밖의 선물이 전달된 데 이어 1999년에는 주일학교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기금을 보내기도 했다. 2003년 3월 남북종교인행사로 장재언을 비롯한 북한 신자들이 명동대성당을 방문했을 때, 이들을 통하여 5만 달러의 현금을 지원하기도 했는데, 장충성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되었다. 2003년 8월에는 본당 내에 14처를 꾸며주기도 하고, 12월에는 제대 등 가구를 마련해서 보내기도 하였다. 이렇게 해서 장충성당도 조금씩 성당의 모습을 갖추어갈 수 있었다.

##### 5) 북한사목 희망 사제 모임

1997년 4월에 발족된 서울대교구 통일사목위원회는 통일을 대비한 사목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교구 사제들을 대상으로 북한선교에 관심 있는 사제들을 모집하였다. 당시에는 통일이 머지않았다는 희망이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조만간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 지역에 가서 사목할 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이에 통일사목위원회는 교구 사제들에게 공문을 보내 희망자를 모았으며 1998년 10월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진리관에서 ‘북한사목 희망 사

제 모임’을 공식 결성하고 최창화 신부를 모임 대표로 선출하였다.

그러나 1998년 11월에 민족화해와 일치를 위한 교육과 기도운동을 비롯 교회 차원의 행정적, 사목적 통일준비를 보다 효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일사목위원회가 민족화해위원회와 통합되면서 이후에는 민족화해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사제 외에 신학생 중에서 북한, 그리고 민족의 화해와 일치에 관해 관심이 있는 이들의 동아리인 ‘모듬살이’와 지속적으로 관계 맺으며 이들을 지원했다. 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1999년에는 신학생과 북한민이 함께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고,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신학교 내에서 북한사목 희망 사제 모임을 운영했다.

2000년 7월에는 기존 사제들 중에서 관심 있는 이들을 모아서 북한사목 희망 사제 모임을 가졌는데 총 22명 정도가 참석했다. 2000년 12월에는 각 본당에 공문을 보내서 관심 있는 사제들을 모집하기도 했다. 2001년 1월 16일 장충동 분도회관 피정의 집에서 개최한 북한선교 희망 사제 교육에는 총 40여 명의 사제가 참석했다.

##### [2001년 1월 16일 북한사목 희망 사제 모임 프로그램]

- 시작 기도
- 제1강 통일에 기여한 서독교회의 역할과 민족의 화해와 일치에 대한 한국교회의 과제(주도홍 교수, 기독교신학대학 대학원 역사신학)
- 북한 관련 VTR 관람
- 북한 방문 사제 체험 나누기(최창화 신부, 정광웅 신부)
- 제2강 북한 복음화에 대한 우리의 자세(북한이탈주민)

- 북한 방문 사제 체험 나누기(한정관 신부, 이성만 신부)
- 주교님 말씀 및 마침 기도

#### 6) 북한 신자들의 명동대성당 방문

이천년대 들어서면서 남북관계의 긴장이 해소되고 민간의 교류가 차츰 증가하였다. 이런 평화의 분위기 속에서 2001년 광복절에는 평양에서, 2002년 광복절에는 서울에서 민족통일대회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민족화해협력범국민연합회, 7대 종단 대표부로 구성된 2002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가 중심이 되어 진행된 2002년도 행사를 통해 북한의 천주교 신자들이 남한으로 왔다. 8월 16일 부문별 상봉모임 시간에 당시 민화위 위원장을 역임 중이던 염수정 주교, 그리고 인천교구장 최기산(崔基山, 보니파시오) 주교와 수원교구장 최덕기(崔德基, 바오로) 주교가 북한 신자들과 만남을 가졌으나 어디까지나 전체 행사의 일부였던 만큼 함께 미사를 드리지 못하는 못하였다.

2003년에는 3·1절을 기해 남북종교인행사가 열렸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와 조선종교인협회의 공동 개최로 열린 이 행사를 통해 북한에서 온 천주교, 불교, 개신교, 천도교 신자 60여 명이 서울을 방문했다. 이 중에 천주교 신자는 장재언(조선종교인협회 회장, 조선카톨릭교협회 위원장), 강지영(조선카톨릭교협회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학철(조선카톨릭교협회 중앙위원회 부장)을 비롯하여 장

충성당 성가대원까지 총 17명이었다.<sup>14</sup>

이들은 3월 1일에 서울에 와서 오후에 3·1 민족대회 본대회 행사를 치르고 이튿날인 2일에는 각자의 종교 행사에 참석하였는데, 천주교 신자들은 명동대성당에서 11시 교중 미사를 함께 드렸다. 미사는 김운희 주교의 주례로 이루어졌는데, 민족화해위원회 활동 중에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이나 관계된 이들이 평양의 장충성당에서 함께 미사를 드린 적은 여러 번 있었으나 북한 신자들이 명동대성당에서 남한의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드린 것은 최초의 일이었다.

방문단은 미사 전에는 당시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이던 김운희 주교와 만남의 시간을 가졌으며, 미사 중에는 장충성당 성가대가 특송을 부르기도 하였다. 또한 미사 후에는 명동대성당 문화관에 모여서 다과를 나누며 환영 행사로 남한의 신자들과 다채로운 나눔의 기회를 가졌다. 특히 신자들끼리의 만남인 환영 행사는 평양교구 신우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 명동대성당에서의 일정이 끝난 뒤에 2일 저녁에는 공식 행사장인 워커히호텔에서 만찬과 평화통일 기원의 밤 행사에 민족화해위원회 정광웅 신부와 직원들이 함께 참석하기도 하였다.

14 당시 방문한 북한 신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장재언, 강지영, 한일선, 김유철, 김학철, 장남천, 유오상, 김광철, 서재영(이상 가톨릭교협회/조선종교인협회), 리산옥(조선 카톨릭녀성회), 리영임, 리성애, 리승희, 박원복, 정영실, 허금빈, 방영실(이상 장충성당 성가대).

### 3.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 1) 대한적십자사, 홍콩 카리타스를 통한 지원


민족화해위원회가 출범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한 1995년 8월, 한마음한몸운동본부와 민족화해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했다. 당시에는 아직 한국 정부의 정책상 남한의 민간단체들이 직접 대북지원사업을 할 수는 없었다. 때문에 국제적인 기구를 통해서 지원금이나 물품을 전달하는 것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우선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무엇이든 어떻게든 일단 도움의 손길을 보내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곧바로 대규모 모금운동에 나섰다. 먼저 교회 안의 신자들에게 동참을 호소해서 9월부터 헌미헌금운동을 벌였다. 이 시기에는 아직 한마음한몸운동본부와 업무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모금에서부터 후원금의 관리와 대북지원까지 한마음한몸운동본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모인 기금은 1995년 9월과 12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북한에 전달되었다. 또한 대한적십자사 외에도 홍콩 카리타스를 통해서 중국교회나 그밖의 국제적 기관을 중간 기탁처로 삼아 우회적으로 물품 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1996년부터는 단순히 북한을 돕자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주제를 정해서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 국수 나누기 운동을 시작했다. '북녘 형제와 국수 나누기 운동'이라고 이름 붙인 이 모금운동은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서 분리된 민족화해위원회의 모금 계좌를 마련하고 8월부터 본격적인 홍보에 들어갔으며 그해 하반기에만 약 5억 원의 기금을 모았다. 국수 나누기 운동의 성과는 상당한 것이어서 국수 나누기 운동 기금을 24개월 기간의 약정

북녘 형제와  
국수 나누기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밥과 복 서로가 6·25라는 민족적 비극으로 입은 상처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뉘우침이 있을 때 용서가 가능하고 화해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며, 비로소 마음이 열린 대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통일을 향해 우리가 걸어야 할 과정이라고 여깁니다.

— 천주교 서울대교구 1996년 서울대교구장 취임 특별담에서 —



겨레와 함께하는 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안내전화 : (02) 753-0815  
FAX : (02) 754-0067

북녘 형제와 국수 나누기  
북녘 형제와 국수 나누기 운동은 1995년 8월 8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민족화해위원회의 모금 계좌를 마련하고 8월부터 본격적인 홍보에 들어갔으며 그해 하반기에만 약 5억 원의 기금을 모았습니다. 국수 나누기 운동의 성과는 상당한 것이어서 국수 나누기 운동 기금을 24개월 기간의 약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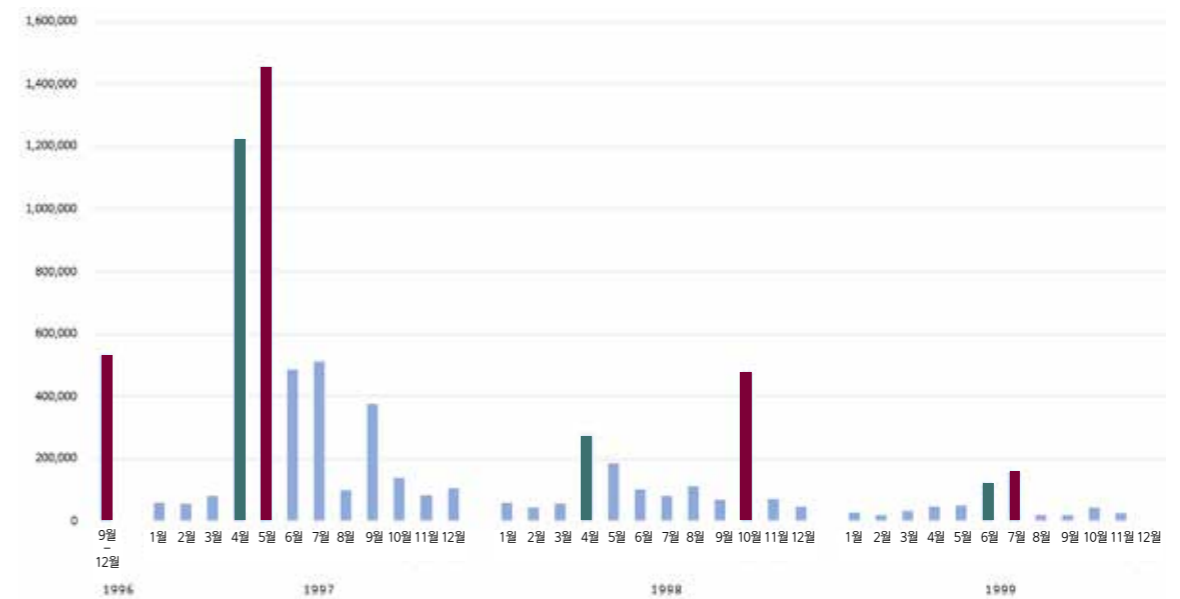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북녘 형제와 국수 나누기 운동 포스터.

〈표 7〉 1997-1999년성금 모금 현황

연도	월	금액
1996	9-12월	533,760,000
1997	1월	61,947,230
	2월	56,897,140
	3월	80,582,527
	4월	1,222,853,164
	5월	1,455,750,788
	6월	484,289,466
	7월	512,376,397
	8월	96,895,983
	9월	375,536,029
	10월	140,789,616
	11월	85,462,698
	12월	105,832,184
	<b>소계</b>	<b>4,679,213,222</b>
1998	1월	59,449,588
	2월	45,653,377
	3월	56,922,058
	4월	272,848,769
	5월	184,815,085
	6월	102,214,055
	7월	82,186,235
	8월	111,475,590
	9월	68,847,811
	10월	478,585,982
	11월	72,079,460
	12월	48,918,411
	<b>소계</b>	<b>1,583,996,421</b>

연도	월	금액
1999	1월	31,695,365
	2월	19,116,170
	3월	33,626,740
	4월	48,925,200
	5월	52,032,058
	6월	119,505,019
	7월	157,755,861
	8월	21,268,630
	9월	18,492,101
	10월	45,183,374
	11월	26,725,350
	12월	(자료 없음)
	<b>소계</b>	<b>574,325,868</b>



으로 받았는데 1997년 한해에만 약정액이 45억에 달할 정도로 모금액의 규모가 커졌다.

1997년 말에는 기존의 곡물 위주의 지원에서 지원 품목이 늘어났다. 긴급 구호를 위한 식량 외에도 어린이 영양식 같은 특정 목적의 구호가 생긴 것이다. 그러나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촉발된 경제 위기 상황에서 IMF 구제금융 신청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인도적 대북지원을 위한 모금운동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했고, 시기가 지남에 따라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대중적 관심도 많이 줄어들었다. 국수 나누기 운동을 통한 모금활동은 2000년까지 이루어졌으며, 2000년 11월에 28일에 사업 총결산 보고를 하였다.

한편 국수 나누기 운동과 더불어 1997년 4월부터 ‘한 주 한 끼 굶기’ 운동을 시작하기도 했다. 한 주에 한 끼를 금식하고 그 비용을 후원금으로 모금하는 취지였다. 다만 국수 나누기 운동에 비해 그 효과가 크지는 않았다. 국수 나누기 운동이 마무리되어 가는 2000년에는 ‘한 달 한 끼 단식’ 운동으로 바뀌어 재차 시행하기도 했다. 2000년은 대회년으로 기념하였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고, 민족화해위원회도 설립 5주년을 맞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민족의 화해와 일치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불러일으키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 2) 범종교연합 모금운동

1995년 북한의 도움 요청으로 인해 여러 민간단체가 북한을 도울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아직 경색된 남북관계가 해소되지 않았고,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도 마련되지 않았다. 이러던 와중에 1995년 10월 천주교, 개신교, 불교, 천도교, 유교, 원불교의 6개 종단이 참여하는 ‘종교간 대화 모임’ 30주년 기념행사 자리에서 ‘범종단북한수재민돕기운동’ 발족식을 가졌다. 이후 준비위원회 상태로 활동을 전개했다.

당시에는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대북지원 창구가 대한적십자사로 통일되어 있었는데, 지원 물품 등에 제한이 심해서 여러 단체별로 이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았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1996년 6월에는 종교계 연합으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창립되었다. 민족화해위원회의 최창무 주교가 초기 구성원으로 함께했으므로 90년대 후반까지 한마음한몸운동본부나 민족화해위원회 등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각종 사업을 함께하기도 했다.

1997년 3월에는 민족화해위원회,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을 포함 총 18개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단체가 합동으로 북한에 옥수수 보내기 운동을 시작했다. 당시 운동 실무진에서는 4월 12일에 각종 정치계 종교계의 사회지도층 인사를 초청해서 옥수수죽 먹기 체험 행사를 열었다. 옥수수죽을 직접 먹어보고, 이것조차 없어서 굶주리는 북녘 형제들의 어려움을 체감하며 모금 참가를 독려한다는 취지였다. 이날 김수환 추기경은 천주교가 솔선하여 옥수수 1만 톤을 보내겠다고 약정하였고, 실제로 1만 톤의 옥수수를 위한 13억의 기금을 민족화해위원회 이름으로 모금하기도 하였다. 옥수수 보내기 운동은 처음에는 우선 1만 톤을 목표로 활동을 전개했는데, 국민들의 열띤 참가가 줄을 잇자 10만 톤으로 목표를 상향해서 보다 장기적인 캠페인으로 확장했다.

한편 남북한 적십자사를 통한 대북지원으로 창구가 단일화되어 있는 것에 대한 대북지원 민간단체와 후원에 참여한 시민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정부에서도 방안을 내놓아 1997년 5월부터는 적십자사를 통하되 지원 단체가 수탁 대상과 지역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 기탁을 실시하게 되었다. 따라서 민족화해위원회에서도 함께 소통해 오던 협력 단체인 조선천주교인협회를 수탁 대상으로 지정하여 직접 지원이 가능해졌다.

1997년 7월에는 천주교, 개신교, 불교가 만나 북한 동포 돕기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는데, 이는 민간단체의 지원사업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보아 국가 차원의 식량 지원을 촉구하기 위함이었다. 7월 5일부터 시작한 이 운동은 20여일 만에 50만 이상의 서명을 받았으며, 8월 25일까지 모두 107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목표를 달성했다. 직접 모금운동이 아닌 정부의 참여를 촉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대통령 비서실에서 향후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신을 보내고, 8월 26일에 서명운동의 결과 보고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활동이 마무리되었다. 이 과정에서 전국민적 관심을 고조시켜 대북지원을 위한 각종 모금운동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날이 추워지기 시작하는 11월에는 ‘겨울나기 사랑의 옷 보내기’ 운동을 통해서 모금이 아닌 물품 모집 사업에 나서기도 하였다. 1995년부터 두 해에 걸친 대홍수로 산림이 유실된 상황에서 변변한 연료도 없이 남한보다 추운 북쪽의 겨울을 보내야 하는 형제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자는 것이 주된 사업의 방향이었다. 천주교를 포함한 6개 종단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비롯한 28개 민간단체가 함께 모여서 추진한 이 사업의 결과로 민족화해위

북한동포 사랑의 옷보내기운동에 참여합시다

## 혹독한 추위가 다가오기 전에 시급히 동포애를 발휘해야 합니다

◀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는 남부한 옷차림의 북한 주민들. 한 겨울의 혹한에도 얇은옷과 목도리, 장갑만으로 추위를 견디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 겨울은 인쓰럽지만 춥다.

▶ 지난 3월, 식량을 구하기 위해 중국 국경을 넘어온 북한주민들이 신고온 신발.



**주최단체(9년 10월 1일 현재)**

**6대종단** | 개신교, 불교, 원불교, 유교, 천주교, 천도교  
**시민**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공동체역량개발국민운동협의회, 가짜교 윤리실천운동,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한YWCA연합회, 두레공동체운동본부, 민족문화기회의, 부강부흥추진시민연합, 선서회공동선운동연합, 우리 민족세로돕기운동,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 원불교 온애심기운동본부, 원불교 봉공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 공영노동조합연합회, 조국평화통일불교인협의회, 천주교영선수도회협의회, 청년여성문화원, 한국가정협의회, 한국대학생선교회 (C.C.C),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부인회, 한국신경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정책연구소, 한국여성학회, 한국연극협회, 한국프로듀서연합회, 흥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중구 병동2가 1 가톨릭회관 전화 : 753-0815/774-3488 FAX 754-0067/767-7879

북한 동포 사랑의 옷 보내기 운동 홍보물.

〈표 8〉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내역(1995~1998년)

시기	금액(원)	내용	품목
1995(총 4회)	240,000,000	복넉형제돕기	밀가루, 양말
1996(총 5회)	270,000,000	국수보내기	밀가루
1997(총 24회)	2,689,287,776	국수보내기 옥수수나누기 긴급식량보내기 사랑의옷보내기	밀가루, 옥수수, 감자, 구호식량, 어린이 영양식, 의류 등
1998(총 23회)	3,252,571,229	긴급식량지원	밀가루, 옥수수, 어린이 영양식, 구호식량, 비료, 의약품 등

원회에서만 그해 겨울에 의류 550 상자, 총 290만 원 상당을 북한으로 보낼 수 있었으며 그 뒤에도 한동안 겨울이 다가오면 의류를 모집해서 보내곤 하였다.

1998년 9월부터는 기존에 대한적십자사나 해외의 기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던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에서 각 단체별로 직접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방침이 바뀌었다. 따라서 지원 품목이나 현장이 중복되지 않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협의를 위한 새로운 기구의 마련이 필요해졌다. 이에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하는 단체들이 뜻을 모아 1999년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현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를 만들었다. 민족화해위원회도 북민협에 가입은 했으나, 민족화해위원회 자체의 사업으로도 바빴기 때문에 북민협이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지는 않고, 가입 단체로 포함되어 있는 정도로 관계가 유지되었다.

### 3) 대북지원사업의 다각화 노력

앞서 서술한 것처럼 1998년도부터 IMF의 여파로 인해 모금활동에 어려움이 있었고, 반면에 북한의 상황은 1995년도 당시보다는 조금은 개선되었다. 1998년 9월부터는 기존에 대한적십자사나 해외의 기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던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에서 각 단체별로 직접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방침이 바뀌었다.

1998년 5월 민족화해위원회의 방북 조사단은 물품 분배의 현장을 살펴본 뒤 북한 내의 접촉 창구를 기존의 조선천주교인협회로 통일하기보다는 다각화해보자는 의견을 제기하였고, 이에 1998년 9월에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위원장 김용순, 이하 아태)와 추가로 협약을 맺기도 하였다. 아태와 민족화해위원회는 1998년 9월 15~16일에 중국 대련에서 면담을 진행하였다. 9월 17일 자로 양측이 서명한 합의서에 따르면, ‘천주교는 앞으로 2년간(1998. 10~2000. 8) 아태를 통하여 식량 부족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공급할 식량을 확보하는 데 따라 수만 톤 정도를 보낸다’, ‘아태는 천주교의 해당 인원들이 식량 도착과 공급 정형(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인민학교, 병원 등 확인 대상은 입국 후 협의하여 정한다’, ‘식량 도착 및 공급 정형(과정)을 현지에서 확인하는 경우에 협의하고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다’ 등 7개의 원칙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조선카톨릭교회(전 조선천주교인협회)의 항의가 심했고, 북한 내부에서도 창구를 통일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함에 따라 민족화해위원회 본부장 이기현 신부와 조선카톨릭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장재언이 1999년 9월 17일에 아태와 상호 합의한 내용을 조선카톨릭교회로 이양한다는

〈표 9〉 연도별 농업용품 지원 금액

연도	금액(원)
1998	1,138,602,934
1999	248,736,038
2000	(자료 없음)
2001	18,243,500
2002	50,146,800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아태와의 관계는 1년여 만에 끝났다.

이와 더불어 1997년도 하반기부터 1998년 12월까지 한마음한몸운동본부와 통일사목위원회와의 관계가 정리되면서 민족화해위원회의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에 있어서도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게 되었다. 1998년 3월에 유규영 위원을 새롭게 위촉한 것은 이러한 모색의 일환이었다. 교역회사를 운영하며 중국과 교류하던 유규영 위원을 통해 대북지원사업을 위한 물품의 구입이나 운반, 통관 등의 문제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변화는 지원 방식과 대상이 넓어졌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기근으로 대량의 굶주림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먹을 수 있는 것, 즉 식량을 지원하는 것이 급선무였지만, 계속해서 식량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어려웠다. 북측에서도 비료 등 경제적 자립을 위한 물품을 요청해 왔고, 다른 대북지원 단체에서도 농업이나 의료지원 등 사업을 넓혀가고 있었다. 민족화해위원회에서도 북측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1998년부터 농업용 비닐, 비료, 농기구 등을 보내기 시작하였다.

그러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는 아예 새로운 방식의 지원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국수 나누기 운동이 2000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고,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수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을 지어주기로 한 것이다. 국수공장은 미주 한인 교회에서 1996년부터 추진한 사업이었으나 여러 여건상 지속적인 운영이 어려워 민족화해위원회에 몇 차례 공장 인수 혹은 위탁 운영을 요청해왔다. 때문에 처음에는 이 제안을 수용해서 공장을 인수받아 설비와 재료를 지원하고 운영하게 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논의 끝에 신천 지역에 새롭게 공장을 짓는 방안도 동시에 진행이 되었다. 이는 물품 분배 상황을 확인하러 방북할 때 평양 지역에 국한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했다. 평양이 아닌 지역에서 공장을 운영하게 되면 적어도 공장 일대의 지역은 방문할 수 있으리라는 계산이었다.

신천의 국수공장은 2001년 초에 부지를 구해서 아예 새롭게 공장을 꾸렸고, 최종적으로 공장 설비가 모두 갖춰진 것이 10월이었다. 그리고 신천 외에 남포 지역에도 국수공장을 설립하였다. 남포 국수공장은 기존에 운영하던 공장 자리가 있었으나 제대로 된 설비조차 없었던 것을 민족화해위원회에서 기계와 설비를 들여 새롭게 세웠다. 남포 국수공장은 2001년 7월부터 가동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하여 그해 11월부터 신설된 두 군데의 공장도 미주 한인 교회에서 운영을 위탁받은 평양 옥류 국수공장까지 세 지역에 재료가 공급되기 시작했다. 한편 2001년 10월부터는 나선의 빵 공장 운영을 위탁받아서 공장 설비와 차량, 그리고 빵 제조를 위한 재료(밀가루, 우유가루, 설탕 등)를 보내기도 했다.

또 다른 한 가지 방향은 활동을 위한 자원 마련의 다각화였다. 1990년대 후

반까지는 전국민적 모금운동이 가능했다. 그렇지만 IMF로 인한 국가적 경제 위기, 그리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대중적 관심의 하락 등으로 인해 기존 모금 방식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었다. 북녘 형제와 국수 나누기 운동을 통해 모집된 회원에 더하여 2001년 초에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로부터 18,000여 명의 회원이 이관되면서 정식 후원회를 조직·운영하기 시작했다. 다만 후원회원의 관리가 쉽지 않았고, 후원회원의 규모도 급속도로 줄어들었다. 자금 마련의 다각화를 위한 노력으로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남북협력기금을 신청해서 2001년도 4월에 5억 1천만 원, 2002년 8월에 3억 4천만 원의 지원을 받기도 했다. 2000년대 초반까지 민족화해위원회의 예산은 매년 평균 10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후원금과 각종 지원금, 그리고 매년 6월에 이루어지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특별 헌금 등으로 충당해오고 있었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까지 민족화해위원회의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은 긴급구호에서 차츰 북한 경제의 자조와 자활의 기반을 마련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다.

#### 4) 북향민 지원사업과 ‘하이모’ 결성

90년대 후반에는 먹고 살길을 찾아 남한으로 내려온 북향민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한국 정부도 이에 따라 통일부로 개편한 이후 1999년 7월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흔히 ‘하나원’이라고 불리는 북향민 교육기관을 설립하였다. 민족화해위원회의 북향민 지원사업은 통일사목위원회와의 통합 이후의 일이었다. 통일사목위원회에서 이미 북향민을 접촉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기 때문에 통합 이후에도 같은 방향성을 가진 활동을 했던 것이다. 하나원 설립 이후에는 하나원에 가서 종교에 관한 교육을 하거나 그밖에 북향민들이 남한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체험 행사를 개최하였다.

‘하나를 이루어가는 모임’, 줄여서 ‘하이모’라 불리는 모임은 북향민 자녀 혹은 연령대가 어린 청소년 북향민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성인의 어려움은 주로 생활의 어려움, 즉 경제적인 부분이 크다면 어린이와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은 그보다도 더 정서적인 것이었다. 기존에 받았던 교육과 전혀 다른 내용의 학교 수업, 또래 집단의 놀림이나 따돌림, 공감대를 얻을 친구에 대한 필요 등의 한계로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 북향민 청소년의 경우에는 더 어려웠다. 때문에 어린이와 청소년 북향민과 도우미를 1:1 방식으로 맺어주어서 함께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필요시에는 전화 통화로 도움을 주며 다양한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일종의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다.

하이모는 1999년 4월 13일 처음 만들어져서 곧바로 1기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하이모 프로그램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꾸렸고, 도우미들의 사전 교육도 진행되었다. 1:1 결연 후에는 북향민 청소년은 ‘동생’, 도우미는 ‘선생님’이라고 불렀고, 관심 있는 이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종교색을 배제하였다.

모임은 매월 2차례 정도 각자의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되었으나 하이모 활동을 하는 북향민 청소년, 도우미가 한자리에 모이는 전체 행사도 있었다. 2000년부터는 매년 여름캠프를 했는데 행사 프로그램은 물놀이, 운동

회, 조별 활동, 문화 행사 등 함께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밖에 고궁이나 놀이공원을 방문하고, 혹은 봄가을에는 야외로 소풍을 가기도 하고, 연극이나 뮤지컬, 영화도 관람했으며, 겨울에는 성탄 행사도 개최하였다. 어디까지나 정서적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었던 만큼 최대한 청소년이 편한 마음으로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때로는 성교육같이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지식 정보를 전달해 주거나, 심리치료 같은 프로그램도 기획했다. 도우미들 역시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일정한 교육을 받아서 북한민의 상황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고, 활동 중에도 관련된 전문가를 초청해서 특강을 듣기도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북한민 청소년들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일깨워주고, 또 공동체성을 길러줄 수 있었다.

#### 4. 북한과 북한교회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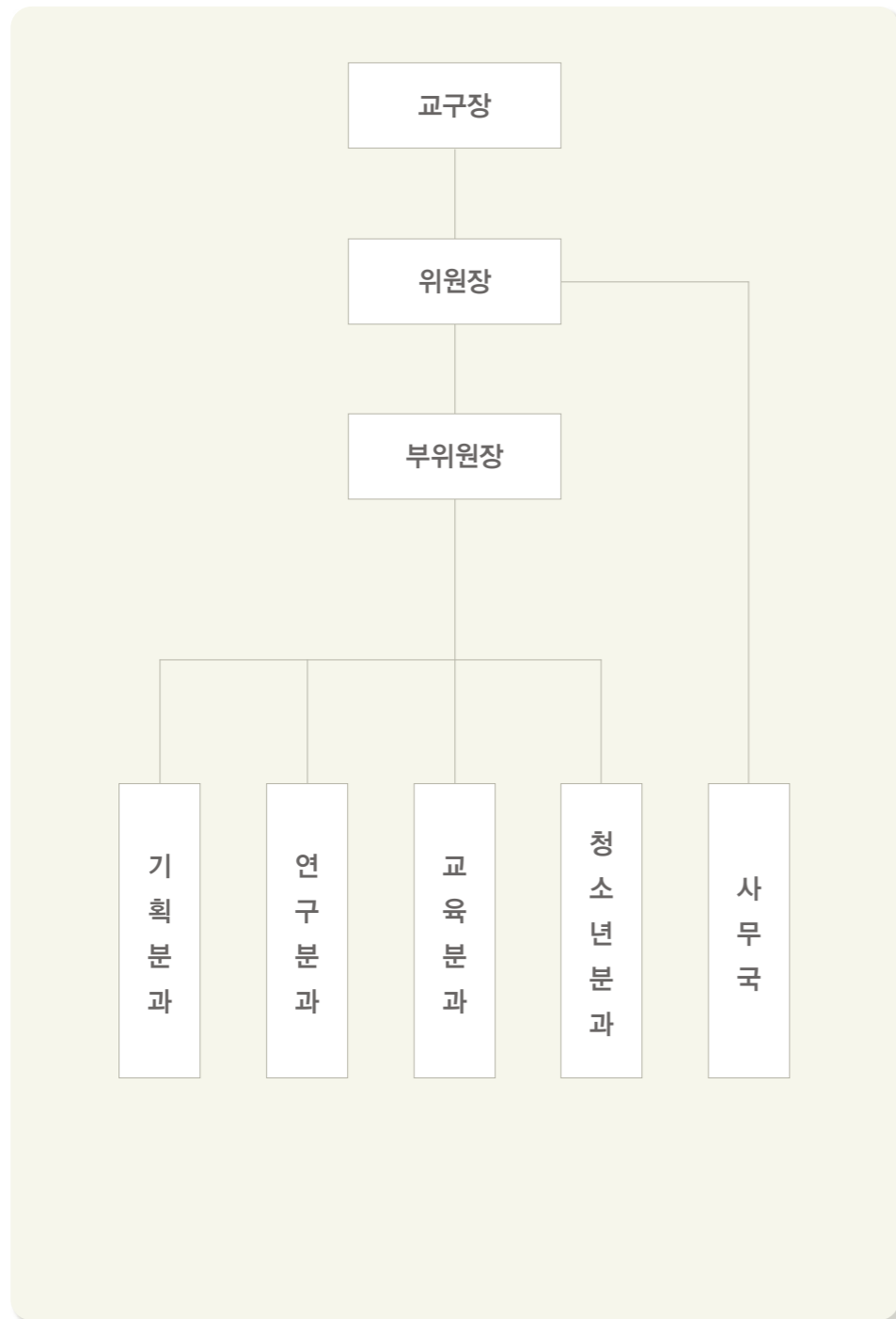
##### 1) 민족화해학교 개설

민족화해위원회를 창립할 당시 세웠던 기도, 나눔, 교육과 연구의 세 가지 방향성은 북한, 그리고 북한교회에 대해 바로 알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자각하게 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어졌다. 민족화해학교라는 이름의 이 교육 프로그램은 기존에 한국 정부의 반공주의 일변도의 교육이 여러 오해를 낳고 있다는 판단에서 북한에 대해 제대로 알자는 목적으로 다양한 시각을 아우를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 민족화해학교 개설 과정

- 1995. 2. 16 광복 50주년 준비위원회 제2회 모임에서 민족화해학교 개설 제안
- 1995. 5. 23 민족화해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민족화해학교의 기본 방향과 소위원회 구성 논의. “남북 통일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의 화해를 지향”하기로 결정
- 1995. 7. 7 민족화해학교 준비모임 제1차 회의에서 운영에 관한 기본 방침 논의
- 1995. 7. 18 민족화해위원회 제3차 회의, 교과과정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강의 주제와 내용 보고
- 1995. 8. 15 최창무 주교 성명서(「민족화해학교를 개설하며」) 발표
- 1995. 8. 21 민족화해학교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자문위원단 구성을 결의하고 운영과 홍보 방식 등을 논의
- 1995. 8. 29 민족화해학교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다양한 회원 모집 방안을 마련
- 1995. 8. 31 민족화해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민족화해학교 교과과정을 보고, 전용 전화 개설(753-0815) 등 제반 사항을 결의
- 1995. 9. 4 민족화해학교를 위한 본격적인 홍보와 모집 시작
- 1995. 10. 4 제1 단계 1기 교육 개강, 최창무 주교 개강 미사 강론(「화해학교 개강에 즈음하여」)

민족화해학교 조직도



1995년 7월 7일 최초의 민족화해학교 준비모임의 참가자는 최창무 주교를 비롯, 안병영(베네딕도), 남현욱(요셉), 조광, 노길명, 전상인, 박상진, 이운자, 서정숙 등 9인이었다. 기획 단계에서 민족화해학교 강의 대상자로는 서울대교구의 성직자와 수도자, 본당 사목위원 중에 추천받은 자, 교구 내 단체 임원, 주교회의 북한선교위원회 임원, 각 신문 및 방송사의 북한 담당 기자, 각 종단의 실무 책임자, 정계 인사, 기타 기업체 및 시민단체 인사 등을 염두에 두었다. 각계각층에서 총 600명 이상 모집을 목표로 했다.

최초의 민족화해학교 프로그램인 제1 단계 1기의 교육 기간은 총 25주로 10월 4일에 개강해서 1996년 4월 3일 종강 미사로 끝나는 계획이었다. 시간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서 9시까지, 수강료는 1인당 5만 원으로, 당시 교계 내의 비슷한 교육과정들과 균형을 맞추어서 책정되었다. 강의 장소는 명동대성당 문화관이었다. 처음에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총 505명이었으나 실제로 강의를 들으러 온 인원은 468명이었으며 이 중 강의를 끝까지 듣고 수료한 사람은 289명이었다. 제1 단계 1기 교육의 종강 미사는 김수환 추기경이 직접 집전했는데 「민족화해 증진을 위한 마음의 준비」라는 주제로 강론을 하였다.

1996년 6월 19일부터 제1 단계 2기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1기 교육의 기간이 너무 길다는 이야기가 있어 강의를 압축하고 하루에 강의를 두 개씩 배치하고 종강미사까지 총 13주간 운영했다. 1997년에는 제1 단계 교육을 마친 이들을 위한 제2 단계 1기가 3월 19일부터 14주간, 2기가 9월 24일부터 12주간 이어졌다. 그리고 1998년 5월 제3 단계는 함정동의 세계성체대회 기념 교육관(꾸르실료회관)에서 1박 2일의 워크숍을 진행해서 최종 단계의 수료자를 배출해 냈다.

〈표 10〉 민족화해학교 각 단계별 수강인원

회차	교육 기간	수강인원(명)
제1 단계 1기	1995. 10. 4-1996. 4. 3	505
제1 단계 2기	1996. 6. 19-1996. 10. 9	215
제2 단계 1기	1997. 3. 19-1997. 6. 25	347
제2 단계 2기	1997. 9. 24-1997. 12. 10	79
제3 단계 1기	1998. 5. 30-31	52
제1 단계 3기	1999. 5. 19-1999. 7. 14	86

보다 내실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각 교육과정이 끝날 때쯤 설문지를 통해 강의와 운영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으며 피드백 내용은 다음 단계의 민족화해학교 운영에 반영되기도 했다. 제1 단계 1기 교육을 마친 뒤에 받았던 설문조사 중에는 북향민의 실제 체험을 듣고 싶다거나, 사례, 통계, 영상 등을 통해 북한 사람들의 실생활을 좀 더 알고 싶다는 바람이 있었고, 이에 제2 단계에는 영상과 북향민의 체험을 나누는 시간 등이 추가되었다. 또 강사의 일방적 강의 외에도 그룹별 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따라 교육과정에 조별 토의 시간을 짜 넣기도 하였다. 다만 제2 단계 1기 교육이 끝나고 받았던 설문조사의 내용 중에서 청장년의 참여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대목이 있었는데, 이는 끝내 반영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1999년 5월에는 다시 제1 단계 3기 교육과정이 시작되었는데, 강의 과정이 많이 간소해져서 개강 미사, 종강 미사 외에 강의는 10회, 그리고 영화 상영이 두 차례 있었고 참가자들의 토의가 한 번 있었다. 참가자의 수도 초기에 비하면 확연하게 줄어들었다. 이에 2000년에는 각 지구별로 찾아가는 강의를 계획했으나 11지구와 14지구에서만, 그것도 고작 3-4주에 걸쳐 잠깐 진행되

〈표 11〉 민족화해학교 제1 단계 1기 교과 과정

강의 제목	강사
개강미사	강론 : 민족화해를 향하여 최창무 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b>I. 세계질서의 변화와 민족분단 상황 및 남북한체제에 대한 기초적 이해</b>	
1. 통일시대를 열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가톨릭 정신 오경환 신부   인천교구 총대리
	세계화, 통일 그리고 민족문제 강영훈   전 국무총리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와 새로운 세계질서 임현진   서울대학교
2. 민족분단의 역사적 성찰과 남북한체제 비교	민족분단의 역사적 성과 최상룡   고려대학교
	북한의 국가건설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한의 국가건설 장달중   서울대학교
남북한체제의 비교/평가 전상인   한림대학교	
<b>II. 북한체제의 실상과 변화에 대한 이해와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평가 및 분단국 통일사태에 대한 검토</b>	
3. 북한체제의 이해	북한의 통치 이데올로기 이용필   서울대학교
	북한의 권력구조 유호열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의 경제 안석교   한양대학교
	북한의 사회/문화 서재진   민족통일연구원
4. 통일정책과 통일사태	북한의 대외관계와 군사전략 임용순   성균관대학교
	북한의 통일정책 전인영   서울대학교
	남한의 통일정책 김덕   전 통일부총리
분단국 통일사태의 비교 연구 안병영   전 교육부 장관	
<b>III. 통일을 위한 노력과 통일 이후에 대한 준비 및 교회의 역할</b>	
5. 통일을 위한 노력과 통일 이후에 대한 준비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구본태   국회의장 비서
	민족공동체 형성과 통일문화 이호철   소설가
	통일을 위한 남한의 개혁과제 남현욱   세종대학교
	한반도의 통일구상 - 평화에서 통일까지 하영선   서울대학교
	민족화해와 해외동포 서경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통일 및 통일 이후를 위한 「작은 토론회」	
6. 민족화해와 통일을 위한 가톨릭교회의 사명	북한의 종교현황과 종교적 심성 조광   고려대학교
	민족화해와 통일을 위한 교회의 반성과 새로운 역할 최창무 주교 / 오태순 신부
종강미사	강론 : 민족화해 증진을 위한 마음의 준비 김수환 추기경

고는 그 뒤로는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다. 초기에 강좌를 수강했던 이들은 과정이 끝난 직후에 동문회(초기 회장 봉두완)를 조직하는 등 의욕이 있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남북 문제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줄어들었고, 또 교계 안팎에서 관심 있는 이들은 이미 교육을 이수한 탓에 새로 등록할 사람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았다. 특히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의 규모가 본격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시기였기에 조직의 역량이 대북 사업에 쏟려던 영향도 배제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5년부터 2000년까지의 강의를 통해 약 1,000여 명의 수료자가 배출되었고, 이들의 관심과 애정이 민족화해위원회 활동을 위한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주었다.

## 2) 민족화해학교 교육과정

1995년 10월 4일 개강미사로 그 시작을 알린 민족화해학교 1기 제1 단계 교육은 ‘세계질서의 변화와 민족분단 상황 및 남북한체제에 대한 기초적 이해’, ‘북한체제의 실상과 변화에 대한 이해와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평가 및 분단국 통일사례에 대한 검토’, ‘통일을 위한 노력과 통일 이후에 대한 준비 및 교회의 역할’ 세 단계로 구성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총 여섯 개의 세션이 배치되어 다양한 전공과 배경의 강사들이 총망라되었다. 제1 단계 2기 교육은 1기 교육과 비슷한 강의와 주제로 진행되었다. 같은 주제로 같은 강사가 강의하기도 했으나 일정 등의 문제로 어려운 경우 해당 주제의 전문성이 있는 다른 강사로 바뀌기도 하였다. 교육과정 역시 약간의 변동이 있어 주제별 세션이 ① 세계의 변화와 민족의 화해, ② 북한의 이해, ③ 통일의 대비 이렇게 나뉘



민족화해학교 강의 자료집

었다.

1997년에 있었던 두 차례의 제2 단계 교육은 제1 단계 과정을 마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인 만큼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진행했는데, 이론적 깊이를 주기보다는 다양한 체험에 초점을 맞췄다. 강사진 구성은 여전히 교계 내외의 다양한 성향을 가진 이들로 구성되었다. 제2 단계 1기 과정 중에 북한민을 초청하여 직접 이야기를 듣는 간담회 시간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반응이 좋아 제2 단계 2기 교육에서는 “월남 이주자들의 남한생활 체험 나누기”라는 제목으로 각기 성인, 여성, 청소년으로 나뉘서 세 차례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또한 민족의 범주를 남북한에 국한시키지 않고 재중동포(조선족), 러시아동포(고려인)까지 확장시켜서 참가자들의 시각을 넓히고자 노력했다. 마지막으로 제3 단계 교육으로 있었던 워크숍에서는 구체적인 실천의 방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한편 교육 강의안을 모아서 단행본을 펴냈는데 강의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이라도 북한과 북한교회에 대해 더욱 잘 알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첫 번째 권은 제1 단계 1기 교육 강의안을 모아서 1996년 7월에 『민족의 화해를 향

하여』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으며, 두 번째 권은 제2 단계 1기 교육 강의안을 모아서 1999년 3월에 『민족의 일치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 3) 그밖에 학술 활동

창설 초기에는 민족화해학교의 운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그 외의 연구 활동을 수행할 여력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민족화해위원회 활동 중에 연구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은 초기에 북한 신자들과의 만남이 모두 세미나 형식을 띠고 있었던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민족화해위원회 창립 첫 회의인 1995년 2월 28일 회의록이나 창립 직후인 3월 24일에 있었던 제1회 상임위 회의록에도 심포지엄과 통일 특강 등 학술 행사에 대한 계획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조직이 아직 완전히 자리 잡기 전이었고, 민족화해학교를 준비하는 데 역량이 집중되다 보니 계획했던 것을 실행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로도 별다른 학술 활동은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여러 교구별로 민족화해위원회가 속속 생기기 시작하던 2000년 6월 10일에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대강당에서 민족화해 심포지엄이 열렸다. 한국전쟁 50주년을 맞아 「분단사에 대한 교회적 반성과 의식 전환」이라는 주제로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에서 주최하고 서울대학교 민족화해위원회에서 주관한 행사였다. 이날 기조 강연은 최창무 대주교(광주대교구장)가 하였으며 제1 발제는 강인철 교수(한신대 종교사회학과)가 「분단과 한국교회: 반성적 고찰」로, 제2 발제는 정광웅 신부가 「대북지원 활동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날 심포지엄에

서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의 실현이 쉽지는 않겠지만, 통일과 분단체제 해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 5. 민족의 재발견에 함께하는 교회

1995년에 서울대학교 민족화해위원회가 설립된 것은 패러다임의 전환이었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는 1980년대부터 통일운동이나 학생운동 단체에서 사용하던 표현이기는 했으나 이를 한국 천주교의 입장에서 재정립해낸 것은 한국교회사 전체로 봐서도 큰 의미가 있다 하겠다. 이는 무엇보다 북한을 적대적 대상이나 선교의 대상으로만 보던 반공주의의 극복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이었다.

민족화해위원회는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처음 시작했으며, 하나의 독립된 기구로 꾸러지기까지 많은 조직적 변화를 겪었다. 동시에 북한의 굶주리는 형제들을 위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에 특히 관심을 기울였고 역량을 발휘했다. 대북지원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다른 종교인들과 함께 하는 범종교적, 전국민적 활동도 활발하게 했으며, 민족화해위원회를 통해 모금되고 지원되는 물품의 양도 적지 않았다. 한편 교회 내에서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촉구하기 위한 영적, 정신적 활동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매주 화요일에 봉헌되는 민족화해미사 참가자는 처음 시작할 때는 그리 많지 않았지만 회차를 거듭할수록 그 수가 늘어났다.

민족화해위원회의 이러한 활동에는 민족화해위원회와 서울대학교 그리고

함께하는 많은 이들의 노력이 바탕이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적 정세,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남북관계, 그리고 시대적 분위기에도 영향을 받았다. 2000년대 초반에 접어들면서 과거와 같은 사회적인 관심은 줄어들었지만, 조직이 안팎으로 정비되었고, 정부의 대북 정책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기조를 형성해 갔기 때문에 오히려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은 더욱 활발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렇게 분단 50년을 맞아 민족의 회복을 위해 조직된 민족화해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한국교회는 민족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할 수 있었고, 이는 지금까지도 민족화해위원회가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이론적 밑바탕이 되었다.

## 민족화해를 위한 인도적 대북지원과 활동

2004  
-  
2013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른바 ‘평화변영정책’으로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하면서도 햇볕정책의 문제점들을 보완, 발전해갔다. 노무현 정부는 남북의 화해를 넘어 장기적으로 남북통일에 목표를 두고 경제협력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남북은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남북관계를 한 걸음 더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이자 항구적인 평화 정착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한국교회는 한반도 평화와 민족화해를 위해 적극적인 입장표명을 아끼지 않았다. 북핵 위기가 고조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6자 회담이 시작되던 2003년 ‘이 땅에 평화를 위하여’라는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발표하였다. 2006년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와 정의 평화위원회는 핵무기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뜻을 밝히며, 핵실험으로 남북 화해의 길이 막혀서는 안 되고 지속해서 대화해야 한다는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른바 ‘비핵·개방·3000’ 구상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이루고 개혁·개방을 전제로 10년 이내에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를 달성할 수 있도록 남한이 경제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반발한 북한의 태도 변화로 남북관계가 경색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08년 금강산 관광객 사망 사건을 시작으로 2009년에는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단행하여 한반도와 국제 사회에 긴장을 조성하였다. 2010년에는 남한 해군 46명이 희생된 ‘천안함 침몰’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에 사과와 사건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며, 남북 간의 교역 및 교류 중단, 방북 불허, 북한 선박의 남한 영해 항행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5·24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후 북한은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에 포격 도발을 감행, 남북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 이후 대북지원 활동이 끊기는 등 풍전등화의 남북관계 속에서, 서울대학교 민족화해위원회는 민족화해를 위한 모색과 활동을 새롭게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려고 노력하였다. 남북 간의 신뢰 회복 없이 민족화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2011년 6월에는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한반도 평화기원 미사'를 봉헌하면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발표하였다.

1. 미래 통일사목의 토대 마련

서울대학교 민족화해위원회는 1995년 3월 1일 조직한 후 6월 1일 교구장 인준을 거친 '천주교 서울대학교 민족화해위원회 규약'을 시행하였다. 규약은 '총칙, 조직, 기구, 운영' 등 4장으로 구성되었으며, 1998년 11월 5일 자, 1999년 3월 1일 자로 두 차례 개정되었다. 2004년 9월 서울대학교 민족화해위원회는 '비영리법인 단체'로 등록하기 위해 기존 규약을 폐지하고,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정관을 참고하여 새롭게 정관을 제정하였으며 서울대학교구장의 승인을 얻었다. 이에 따라 민족화해위원회는 사회사목부 소속으로 상임위원회와 감사, 사무국과 함께 기획홍보분과, 교육연구분과, 교류협력분과, 복지활동분과로 조직 체제를 정비하였다.

2004년 조직도



〈표 1〉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2004년도 신임 상임위원

직책	성명
위원장	김운회 주교
부위원장	최창화 몬시뇰
본부장	장금선 신부
상임위원(성직자)	김병일 신부
"	김용태 신부
"	최부식 신부
"	신희준 신부
상임위원(평신도)	이윤자
"	변진홍
"	정영화
"	윤병수
"	손병두
"	김현욱
"	봉두완
"	박효종
"	유호열
"	황상민
"	구본영

출처 :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임시 총회 회의록(2004년 10월 20일 자)

그리고 정관 제3조(목적)<sup>1</sup>에 따라 민화위 사업에도 북한교회의 재건 및 재복음화 사업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제3장 상임위원회에 관한 항목을 상세히

1 민족화해위원회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지향하고, 북한 지역 교회들의 재건과 재복음화를 준비, 실행하고, 이와 관련된 사목적 문제에 관하여 서울대교구 교구장을 자문하며, 교구장의 승인을 받아 제반 활동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다루어 상임위원회의 체계를 새롭게 하였다.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본부장 1인, 상임위원 7인 이상 15인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본부장 포함), 감사 2인을 두었다. 그래서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손병두 회장 등 6명을 평신도 상임위원으로 새로 임명하는 등 위원회 체계를 재정비하였다. 그리고 2004년 10월 28일 임시 총회를 개최하여 기존 상임위원 중 노길명, 류규영, 윤갑구, 박상진, 정성영을 고문으로 위촉하였다. 그리고 김홍진(金弘鎭, 사도요한) 신부, 김준영(金俊榮, 미카엘) 신부, 이병연, 김홍두, 선한승, 김재룡은 탈퇴하였다.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는 2004년 미래 통일사목을 대비하기 위한 인적·물적 토대 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통일사목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와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서, '민족화해센터'의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통일사목을 펼쳐 나갈 인재 양성을 위해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더불어 민족화해 의식의 제고를 위해서, 평신도들에 대한 재교육과 평신도 지도자 양성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민족화해학교를 재개하고자 하였다.

#### 1) 참회와 속죄의 성당과 민족화해센터 건립

민족화해위원회는 설립 10주년을 앞둔 2004년 참회와 속죄의 성당 건립을 본격화하였다. 당시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은 2003년 9월 교구 시노드 후속 교구장 교서 '희망을 안고 하느님께'를 통해 민족화해센터의 건립 필

요성을 강조하였다.<sup>2</sup> 이를 계기로 2004년 10월 28일 민족화해센터 건립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원장은 김운회(金雲會, 루카) 주교, 위원은 최창화 몬시뇰, 장궁선(張兢善, 예로니모) 신부, 봉두완, 손병두, 이윤자, 간사는 박창호였다. 민족화해위원회는 첫째, 통일사목의 방향 정립과 대북선교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전문적 기능을 뒷받침할 종합적 연구센터 설립의 필요성, 둘째, 민족화해센터를 중심으로 교구와 본당의 통일사목 역량 결집 및 확산, 셋째, 교구 차원의 증장기적인 통일사목 전략 수립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실천 방안 모색, 넷째, 통일사목 추진에 필요한 인력 양성, 다섯째, 교구 내 각 기관 및 단체와의 유기적 협력, 정보 제공을 위해서 센터 건립을 추진하였다. 센터 예상 규모는 대지 3,000평, 연건평 1,000평(5층)이었다.<sup>3</sup> 부지는 천주교 한민족복음화 추진본부<sup>4</sup>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기도 공간이 필요하다는 김수환 추기경의 제안에 따라 성금을 모아 1992년 매입해 서울대교구에 기증한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771 통일동산 내 2,400평이었다.

민족화해위원회는 2006년 4월 8일 오전 11시 정진석 추기경 주례로 참회와 속죄의 성당 및 민족화해센터 착공 미사를 봉헌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의정부교구장 이한택(李漢澤, 요셉) 주교와 서울대교구 김운회 주교, 조규만(曹圭晩, 바실리오) 주교를 비롯해 평양교구 출신 사제 등 40여 명의 성직자와 수도

2 「민족화해센터 필요성 제기」, 『가톨릭평화신문』 2004. 1. 28.

3 제1회 (가칭)민족화해센터 건립 추진위원회 회의(2004. 11. 4).

4 한민족복음화추진본부는 신허민과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신자들을 주축으로 기도와 모금운동을 펼치던 통일성 전건립추진위원회가 1994년 개칭한 단체이다.

자, 박정훈·이관진·여규태 한국평협 상임고문, 한홍순 한국평협회장, 봉두완 건립추진위원장, 이종석 통일부 장관, 손학규 경기지사, 김덕규 국회의장, 신국환 국민중심당 대표 등 교회 안팎 귀빈과 평신도 5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정진석 추기경은 강론을 통해 “먼저 뉘우치고 고백할 때 마음이 열릴 수 있다.”라고 역설하고 “지난 잘못을 뉘우치고 보속하는 뜻에서 희생하며 속죄와 참회의 성당을 짓자.”라며 신자들과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하였다. 최창화 몬시뇰은 인사말을 통해 “여러 난관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지만 남과 북의 협력은 지속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속죄와 참회의 성당은 민족의 화해와 일치라는 시대적 소명을 짊어질 전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착공식에서 정진석 추기경과 이한택 주교는 민족화해센터 완공 이후 운영에 관한 공동 사목 합의를 교환하고, 향후 제반 사항에 관해 서울대교구와 의정부교구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2006년 11월 27일에는 당시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김운회 주교 주례와 서울대교구 및 의정부교구 사제단 공동집전으로 참회와 속죄의 성당 상량 미사를 봉헌하고, ‘상량관’ 축복식을 거행하였다. 성당의 외형은 과거 북한 신의주 진사동 성당의 모습으로, 내부는 북한 덕원수도원 대성당의 모습으로 지어 북한교회와의 연계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날 상량식 중에는 남북 화해의 상징적 작품이 될 북측 만수대창작사가 제작한 유리 모자이크 벽화 「구세주」(140×240cm)가 제대에서 일부 공개되었다. 북한 화가 7명이 9월부터 40여 일간 중국에서 제작해 국내에 반입한 작품이었다. 성당은 터파기, 골조 공사와 종탑 공사가 마무리돼 이날 기준으로

50%에 가까운 공정률을 보였다.

민족화해위원회는 착공 미사는 봉헌하였으나 예산 문제로 지연되었던 민족화해센터도 2007년 3월 21일에 착공하였다. 민족화해와 일치, 통일사목 연구 및 교육의 장이 될 민족화해센터는 통일부에서 25억 원, 경기도에서 5억 원 등 정부에서 30억 원을 지원받아 공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골격공사를 마무리한 뒤 추가 건립비를 마련하지 못해 공사가 3년째 중단되었고, 2011년 2월 23일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는 중단된 민족화해센터 건립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마침내 2013년 6월 25일 오후 2시 참회와 속죄의 성당 봉헌식이 정진석 추기경 주례와 주교단 공동집전으로 거행되었다. 이날 봉헌식 미사는 정진석 추기경 주례로 주교회의 의장 강우일 주교, 서울대교구장이자 평양교구 교구장 서리 염수정 대주교,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장이자 덕원자치수도원구 자치구장 서리 박현동(朴賢東, 블라시오) 아빠스 등 주교단과 사제단 150여 명이 공동집전하였으며 정관계 인사와 신자 1,5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정진석 추기경은 미사 강론에서 “민족의 화해를 염원하는 이 성당의 이름을 ‘참회’와 ‘속죄’라고 지은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며, “진정으로 다른 이를 용서하려면 우리가 먼저 참회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정 추기경은 특히 서로 간에 저지른 비인도적인 잘못에 대한 진정한 뉘우침과 참회가 있을 때 용서가 가능하고 용서가 선행될 때 화해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진정한 용서는 하느님의 은총으로만 가능하다.”라며 “남북한이 진정한 화해와 일치를 이루는 그 날까지 신앙인들이 솔선수범해 이 성전에서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참회와 속죄의 성당 완공으로 한국 천주교회는 지난 60년 동안 분단의 상징이 돼 온 임진강 인근 남쪽 땅에 분단의 비극을 아파하며, 그동안의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며 민족의 참다운 평화와 화해, 일치를 위한 기도와 예배의 중심이 될 기도터를 갖게 되었다.

교황청 선교통신사 피데스(Agenzia Fides)는 6월 21일 참회와 속죄의 성당과 관련한 소식을 보도하면서, “참회와 속죄의 성당과 민족화해센터가 남북 평화와 화해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소개하였다. 또 교황청립 외방선교회(PIME, Pontificio Istituto Missioni Estere)가 운영하는 아시아뉴스와 바티칸 라디오 방송(Vatican Radio), 그리고 필리핀 주교회의 뉴스채널 CBCP News도 이 소식을 전하며 한국교회의 남북통일 염원에 관심을 드러냈다.

한편 참회와 속죄의 성당은 2006년에 서울대교구와 의정부교구가 맺은 ‘공동 사목 합의서’에 따라 2013년 1월 1일 자로 의정부교구로 이관되었다. 1년 늦은 2014년에 완공된 민족화해센터도 동일한 순서를 밟았다.

## 2) 신학생 ‘모듬살이’ 금강산 연수

민족화해위원회는 신학생으로 구성된 ‘모듬살이’라는 모임을 통해 통일사목과 북한 복음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신학생들과 함께 연수를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 바로 알기 및 북한교회 어제와 오늘 분석」이라는 주제로 2005년 8월 17-20일 금강산 연수를 다녀왔다.

‘함께 산다’는 뜻을 지닌 모듬살이 동아리는 1995년 신학교에서 매주 토요일 「북녘 동포를 위한 묵주기도」를 함께 바치던 신학생들을 중심으로 태동하

였다. 1999년 ‘모듬살이 동아리’로 학교에서 공식 인준을 받았으며 학기마다 정기적 학습을 통해 남북의 역사, 한반도 주변 정세, 국제 관계 등을 공부하며 기도 모임을 가져왔다. 민족화해위원회는 이들과 연계하여 북한 복음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미래적인 사목적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금강산 연수를 함께한 신학생과 사제단은 가톨릭대 성신교정 부제단과 대 신학교 연구과 1년생 이상 신학생 8명과 당시 가톨릭대 신학부 총장인 정의철 신부, 영성지도 담당 김남길(金南吉, 대건 안드레아) 신부, 장공선 신부, ‘모듬살이’ 회원 출신 새 사제 이호섭(李昊燮, 요셉) 신부 등 12명이었다. 연수를 마친 신학생들은 “그동안 북쪽은 ‘남’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정말 ‘같은 민족’ ‘형제’라는 걸 절실히 느꼈다.”라고 고백하였다. 동행한 상임위원 유호열(바오로)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사흘 동안의 연수 중 ‘북한체제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두 차례 강의하였다.

### 3) 민족화해학교 재개

민족화해위원회가 1995년 설립 때부터 중점을 둔 분야 중 하나가 교육이었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교육의 장인 민족화해학교는 1995년 10월 개설하여 2000년 12월까지 운영하며 1,000여 명의 통일사목 역군을 양성하였다. 이후 민족화해학교는 중단되었다. 하지만 민족화해위원회는 2007년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와 공동으로 4월 13일부터 5월 18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에서 ‘민족화해학교’ 강좌를 재개하였다. 신자들에게 민족의 화해와 일치, 그리고 통일의식을 고취, 교회 안에서

민족 간 나눔의 중요성을 알리고 통일 이후 북한사목을 위한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한다는 목적이었다.

민족화해학교는 겨레 화해와 일치, 통일에 대한 의식 고취, 통일사목을 위한 평신도 지도자 양성, 그리고 민족동질성 회복에 중점을 두었다. 교구 내 평신도와 수도자 90여 명이 수강을 신청하였고, 이 중 35명이 전 강좌를 이수해 수료증을 받았다. 강의와 함께 사회교리와 한국근대사, 북녘 종교 실태와 형제들의 생활상 등 관련 영상물 상영이 이루어져 참가자들에게 감동을 안겼다.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최창화 몬시뇰은 18일 종강 미사 강론을 통해 “어제(17일) 반세기 만에 남북열차 시험 운행이 이뤄지는 걸 보며 민족화해학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느꼈다.”라고 하였다.<sup>5</sup> 또한 “서로 회개하고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한 이 땅에 진정한 화해와 일치, 진정한 평화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민족화해위원회는 2007년 11월 2일 2007년 제2기 민족화해학교를 개설, 12월 7일까지 6주간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운영되었다. 60여 년간 분단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온 겨레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화해와 일치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며, 평신도 지도자 양성에 초점을 맞춰 제1기처럼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와 함께하였다. 강의와 함께 관련 사회

5 2007년 5월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 정부가 합의한 ‘남북철도연결구간 열차시험운행과 관련한 합의서’에 따라 민족화해학교 종강 날인 18일 전날(17일) 경의선과 동해선 각각 두 노선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열차를 직렬 운행한 남북 열차 시험 운행이 이루어졌다.

교리 및 복녘 종교, 옛 복녘 성당, 복녘 주민 생활, 복녘에서의 삶과 탈북 여정 등 사진 및 영상물도 상영하였다.

〈표 2〉 2007년도 제1기 민족화해학교 교육 일정

주간	월 일	교육 내용	강 사
1	4월 13일	사회교리를 통해 본 민족화해와 일치	변진홍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
2	4월 20일	한국근대사와 공산정권의 형성	신복룡   건국대 교수
3	4월 27일	분단 이전의 북한교회 그리고 현재의 북한교회	장금선 신부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본부장
4	5월 4일	내가 본 북한사회 그리고 북한 사람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국장
5	5월 11일	내가 살던 고향 이야기	최영화   북한이탈주민
6	5월 18일	통일을 향한 신앙인의 자세	유호열   고려대 교수
		종강미사	최창화 몬시뇰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표 3〉 2007년도 제2기 민족화해학교 교육 일정

주간	월 일	교육 내용	강 사
1	11월 2일	사회교리를 통해 본 민족화해와 일치	변진홍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
2	11월 9일	복녘 종교정책의 변화와 종교 실태	김병로 서울대 통일연구소 연구 교수
3	11월 16일	복녘 교회의 어제와 오늘	장금선 신부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본부장
4	11월 23일	내가 본 복녘 사회	최혜경 어린이 어깨동무 사무국장
5	11월 30일	내가 살던 고향 이야기	현인에   북한민
6	12월 7일	통일을 위한 신앙인의 자세	유호열   고려대 교수
		종강미사	최창화 몬시뇰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 2. 민족화해와 일치를 구하는 기도

### 1) 민족화해위원회 10주년 기념미사

1995년 민족화해위원회의 설립은 당시 ‘북한선교’ 차원에 머물렀던 교회 통일관을 ‘민족화해’로 전환, 남북분단의 고통을 민족적 파스카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교회 안팎에 제시하였다고 평가되었다. 이후 민족화해위원회는 분단 50년 세월을 증오와 대립, 질곡으로 살아온 우리 민족에게 ‘화해’ 정신을 과급시키는 선구적 역할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인도적 대북지원사업과 기도운동, 교육을 통해 남북이 하나 되는 길을 제시하며 화해와 일치의 물꼬를 텃다.

민족화해위원회는 2005년 3월 1일 오후 6시 서울 주교좌 명동대성당에서 설립 10주년을 맞아 기념미사를 봉헌하고, 겨레의 평화와 일치를 위한 새로운 여정을 다짐하였다.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해 주한 교황대사 에밀 폴 체릭(Emil Paul Tscherrig) 대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대주교, 광주대교구장 최창무 대주교, 군중교구장 이기현 주교 등 사제단과 신자 등 1,300여 명이 민족화해위원회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통일을 향한 주춧돌이 될 것을 천명하였다.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대주교는 “민족화해위원회 출범 이후 10년은, 50년 분단의 멍에를 써온 한국교회가 화해의 여정으로 가는 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뜻깊다.”라고 밝히고, “분단 60주년을 맞는 이 시점을 민족의 희년으로 받아들이면서 화해의 손길을 뻗치고 마음으로 하나될 수 있도록 하자.”고 하였다. 기념식에서는 김운회 주교가 기념사를 통해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민족의 진정한 화해와 일치를 위해, 복녘 동포들을 실질적으로 지

원하는 사업들을 구체화하고 활성화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기” 위함이라며 “남과 북의 위정자들과 남과 북, 해외 동포들도 민족화해 대장정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라고 하였다.

김수환 추기경은 축사에서 “장애인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장애인시설이 들어서려고 하면 온 마을 사람들이 나서서 반대하듯이 통일을 원한다고 하면서도 탈북자를 위한 학교가 세워지는 것을 반대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비판하였다.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사람들도 화해할 수 있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용서해주시듯 용서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였다.

민족화해위원회는 기념미사에서 창립 멤버로 민족화해에 공헌해온 안병영 전 교육부장관, 조광 고려대 교수, 노길명 고려대 교수, 박상진 그린기획 대표 등 4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후원자들에게 감사패를 증정하였다.

## 2) 민족화해미사

민족화해위원회는 1995년 3월 7일 오후 7시 명동대성당에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기원하는 화해 미사를 봉헌하고, 남북으로 갈라진 분단의 비극을 극복하기 위한 7천만 겨레의 화해와 용서를 촉구해왔다. 2004년 민족화해위원회는 명동대성당 민족화해미사를 매주 화요일 오후 7시에서 오후 6시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전과 다르게 4개 지구좌 본당에서도 월 1회 화해 미사를 봉헌하도록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각 지역 소속 모듬살이 신부님들이 미사를 집전하기로 하였다. 2005년에는 미사 집전 사제 모임을 결성하기로 하였다. 새 사제들이 미사 집전을 하고 있으나 북한선교 희망사제를 중심으로

미사 집전을 추진하기로 하였다.<sup>6</sup>

‘겨레와 함께하는 민족화해 500차 미사’는 1995년 3월 7일에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에서 첫 미사를 봉헌한 이후, 9년 10개월 만인 2004년 12월 7일에 봉헌되었다. 이 미사는 민족화해위원회 관계자를 비롯해 신자 600여 명이 참석하여, 민족화해를 위해 걸어온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다짐을 하는 자리였다. 미사를 주례한 김운회 주교는 강론을 통해 “분단으로 인한 많은 사회적 갈등을 민족적 파스카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밝히고,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복음 말씀처럼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는 마음으로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또 “민족화해미사는 불신과 반목, 냉전과 분열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남북 화해와 일치를 위한 불쏘시개 역할을 해왔다.”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이 미사가 앞으로도 겨레가 하나 될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민족화해위원회는 2004년 제500차 민족화해미사에 이어 2006년 12월 12일 600차를 맞아 명동대성당에서 위원장 최창화 몬시뇰 주례로 제600차 민족화해미사를 봉헌하였다. 이날 미사에서 신자들은 2006년 10월 초 북한 핵실험 사태 때문에 악화일로로 걷는 남북의 화해를 위한 기도 일꾼이 될 것을 다짐하였다. 또 화해의 성사이신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한반도에 평화의 씨앗을 심는 평화의 도구가 되어 민족화해와 일치에 헌신하기로 하였다. 최 몬시뇰은 이날 미사 강론을 통해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 겨레에게 일치

6 민족화해위원회 총회자료 (2004. 1. 15).

와 화해의 은혜를 주시리라 믿는다.”라며, “기도와 정성으로 그 은총의 시간이 앞당겨지도록 열심히 평화의 사도가 되어줄 것”을 당부하였다.

### 3) 개성공단 신자공동체, 로사리오회 특별미사

개성공단 신자공동체인 ‘로사리오회’ 회원들은 2013년 5월 19일 서울 동소문동 4가 서울대교구 특수사목 공동사제관인 대건의 집에서 민족화해위원회 본부장 정세덕(鄭世德, 아킬레오) 신부의 주례로 미사를 봉헌하였다. 당초 북측 공단에서 미사를 봉헌할 계획이었지만, 당국의 허가를 받지 못해 사제들이 입경하지 못하여 이날 미사를 봉헌하게 되었다.

로사리오회는 2008년 9월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식당에서 목주기도 모임을 계기로 결성되었다. 그리고 약 5년간 모임을 이어오다 이날 첫 미사를 봉헌하고 앞으로 매달 셋째 주 주일 오후 4시 대건의 집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하기로 하였다. 미사에는 로사리오회원 28명 가운데 10여 명이 참례하였으며, 2016년 2월 10일 잠정 폐쇄된 개성공단이 재개되어 민족화해위원회 전문위원과 직원들이 함께 개성공단으로 가는 길이 다시 풀리기를 염원하며 기도하였다.

미사를 주례한 정세덕 신부는 강론을 통해 “개성공단 잠정 폐쇄 장기화에 따른 고통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고통을 이겨내는 힘은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믿는다.”라며, “힘겹고 어려우시더라도 개성공단 교우 기업인 여러분들은 용기를 내시고 희망을 잃지 말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이어 “개성공단이 재개되리라는 희망과 확신, 미래에 대한 비전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

느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라고 기원하였다.

2013년 7월 21일에는 서울대교구청 주교관 소성당에서 염수정 대주교 주례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특별미사’를 봉헌하였다. 이 미사에는 로사리오회원과 가족 5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서울대교구 특수사목 담당 교구장 대리 최창화 몬시뇰과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본부장 정세덕 신부가 공동집전하였다. 이날 미사는 개성공단 폐쇄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로사리오회원들이 매달 공동체 미사를 봉헌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염수정 대주교가 위로와 격려 차원에서 회원들을 초대해 이루어졌다.

염수정 대주교는 강론을 통해 “로사리오회가 공단의 북한 근로자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전해주었으리라 믿는다.”라며, “우리나라의 주보인 성모 마리아와 요셉 성인께서 평화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전하고, 개성공단 입주 기업가와 근로자들을 위로하였다.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 유동옥(가밀로) 공동위원장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가와 근로자들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민족화해와 일치의 소명을 갖고 외로운 싸움을 해왔다.”라며, “하지만 오늘 염 대주교님의 말씀처럼 같이 슬퍼해 주는 분들이 계심에 다시 힘을 얻게 됐다.”라고 심정을 토로하였다.

### 3. 생산기반 구축 지원과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2000년 이후 한국교회의 대북지원은 식량을 비롯한 비료,약품, 의류 등을 원

조하는 ‘긴급구호’ 성격에서 ‘생산기반 조성’으로 방향 전환을 모색하였다.<sup>7</sup> 이에 따라 국제 카리타스는 북한주민들이 자립 갱생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사업을 펼쳐 나갔다. 1995년 이후 식량 등 물자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민족화해 운동이 해를 거듭할수록 점차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설득력을 더해갔다.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도 단순 식량 지원에서 농자재 지원과 농업 생산성 향상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으로 대북지원 방향을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즉 북한의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경운기, 양수기 등을 전달하였다. 그동안 비닐하우스용 비닐이나 비료, 삽 등의 물품이 지원된 적은 있으나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지원이 결정되기는 처음이었다. 이로써 10년 가까이 지속해온 민족화해위원회의 대북지원은 새로운 민족화해의 영역을 개척하며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 1) 인도적 대북지원과 방북

### (1) 국수공장 운영 지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는 1996년 한 핏줄을 나누는 동포이자 신앙인으

7 룡천역 열차 폭발사고 이후 북한 동포 구호활동에 대한 범국민적인 공감대와 함께 민족화해운동이 새롭게 나는 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아울러 이번 사고를 계기로 북한 돕기를 비롯해 경제교류 등 그간 전개되어온 남북관계 전반을 점검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민족 복음화의 과제를 지닌 교회에도 적잖은 시사점을 던져주었다(『가톨릭신문』 2004. 5. 9, 『북한 자생 기반 구축 도와야』).

로서 그들의 굶주림을 외면할 수 없다는 인도적, 종교적 차원에서 시작한 북녘 동포와의 국수 나누기 운동을 시작하였다. 2004년 민족화해위원회는 취약계층의 굶주림 해결을 위해 분기마다 300톤씩 총 1,200톤의 밀가루를 매년 중국 단둥에서 조선카톨릭교협회에 보내 남포, 평양, 신천 국수공장에 지원하였다. 또한, 밀가루 포대에 민족화해위원회 로고와 명칭을 한글로 표기하기 시작하였다. 평양 옥류 국수공장의 경우, 취약계층에게 국수가 분배되지 않는 등, 2004년 하반기부터 투명성 확보에 어려운 문제점들이 발생하였지만, 인도적 지원은 계속되었다.

민족화해위원회는 매년 2~3차례 북한을 방문, 민족화해위원회가 지원하는 국수공장을 찾아 국수 생산 과정을 살펴보고 생산일지와 분배일지 확인 등 모니터링을 하였다.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발전기를 사용해 국수를 생산한다는 어려움을 듣고 발전기도 지원하였다. 2004년 5월 15~18일에는 3박 4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하였다. 방북단은 남포 국수공장을 방문해 지난 4월 23일 지원한 국수 제작용 밀가루 300톤의 분배 현황을 확인하고, 황해북도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을 견학하기도 하였다. 또 조선카톨릭교협회 관계자 등과 만나 향후 지원지역을 비롯해 지원 물품 등 구체적인 대북지원 방향과 방안 등 활동 전반에 관해 협의하고 돌아왔다.

### (2) 룡천역 폭발 참사 지원

2004년 4월 22일 오후 1시경 평안북도 룡천군 룡천역에서 가스열차 폭발 사고가 발생하였다.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는 4월 24일 조선카톨릭교협

회 중앙위원회 장재언 위원장 앞으로 위로 전문을 보냈다. 그리고 서울대교구 긴급구호기금 미화 8만 달러와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지원분 2만 달러 등 총 10만 달러(1억 2천만 원 상당)로 국내에서 컨테이너 2대 분량 미숫가루 15톤을 구입해 7일 인천항에서 선적,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조선가톨릭교회협회에 지정 기탁 방식으로 지원하였다. 미숫가루 지원 품목 선정은 북한민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이뤄졌다. 미숫가루 60g(국내가격 480원 상당)이면 한 끼 식사를 대신할 만큼 영양분이 풍부하고 식사 마련이 간편하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 (3) '북녘에 보내는 사랑의 경운기' 사업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는 북한의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04년 6월 조선가톨릭교회협회에 지원하기로 합의하고, 7월 14일 인천항을 통해 북한에 경운기 50대와 로터리기, 트레일러, 양수기 등 8종의 부속품을 지원하였



북녘에 보내는 사랑의 경운기.

다. 조선가톨릭교회협회 중앙위원회에 지정 기탁된 경운기 등은 북한 남포를 거쳐 원산지역 협동농장에 전달돼 북한의 생산기반 조성 사업에 투입되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동안 교구나 단체 차원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물품이 지원된 적은 있으나,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결정된 것은 처음이었다.

지원되는 경운기에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를 보내는 곳으로 하고, '조선가톨릭교회협회 중앙위원회'를 받는 곳으로 적은 철제 명판이 부착되어서 원산지역에 대한 교회의 지원이 처음으로 공식화되었다.

### (4) 어린이 영양제 생산공장 건립과 지원

북한사회는 2005년에 접어들면서 '고난의 행군' 시기를 벗어나고 있었다. 그리하여 민족화해위원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방법도 그에 적합한 형태로 전환하였다. 평양 옥류 국수공장 지원은 중단하고, 영양 상태가 열악한 북한 어린이를 위한 지원 방법을 모색하였다. 그래서 민족화해위원회는 ① 영양 부족으로 인한 질병, 발육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북한 어린이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 ② 일반 긴급구호 지원에서 개발 및 시설 지원으로 전환함으로써 어린이 영양제와 관련하여 북한 자체 연구 개발을 촉진하는 목적, ③ 북한 현실에 맞는 시설과 원료 의약품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어린이 상황에 맞는 영양제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며, ④ 설비 지원 후 원료 의약품을 지원하면 완제 의약품 지원보다 6~7배 이상 효과가 있고, 북한의 유휴 인력 활용 목적으로<sup>8</sup> 2005년 11월 16일 평양 동대원구 평양어린이영양관리연구소에 어린이 영양제 생산 라인을 구축하였다. 이 어린이 영양제 생산 라인은 원료 혼합기, 타정기, 건조기 등 총 7대 기계로 구성돼 있으며 한 달에 영양제 300

8 2005.9. 어린이 영양제 생산공장 설비 지원 계획서.

만 정을 생산할 수 있다. 이곳에서 생산된 영양제는 소화 불량 해소와 발육 증진에 효과가 있고 비타민 D가 풍부한 '효모 영양제'(일명 원기소와 동일 성분)이다. 서울 민족화해위원회는 매달 2만 5,000여 명의 어린이들이 먹을 수 있는 영양제 원료 4개월분을 함께 지원하였다.

3년간 어린이 영양제 3,000만 정을 생산할 수 있는 원료인 '건조 효모'를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2006년에 이어 2008년, 2009년에도 세 차례에 걸쳐 4개월분씩 어린이 영양제 원료를 지원하였다. 어린이 영양제 원료 지원에 따른 기대 효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양제 원료 의약품인 건조 효모 등은 북한 어린이의 영양 불균형을 개선하고 건강 증진을 유지하며 신진대사 등에 효능을 발휘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정상적으로 발육하는 데 효과적이다. 둘째, 개발 지원을 통한 북한 자체 어린이 영양제 연구 개발 효과로, 북한 어린이 현실에 맞는 영양제 시설과 그에 따른 원료 의약품을 지원함으로써 북한 자체적으로 어린이 영양제 연구와 개발을 촉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셋째, 북한 유흥 인력 활용 효과 측면에서 시설과 일정량의 원료 의약품 지원을 통해 북한의 유흥 인력들이 노동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해주는 데 일익을 담당하는 효과가 있다.

##### (5) 북한 어린이 돕기 운동 우리은행 전국지점 저금통 비치

민족화해위원회는 식량 부족 등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북한 어린이들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우리은행과 함께 북한 어린이 돕기 모금운동을 펼쳤다. 이 모금운동은 우리은행이 2004년 말 북한 개성공단에 최초로 지점을

개설한 것을 기념하여,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의 북한 어린이 돕기 운동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었다. 2005년 4월 1일 서울 명동 우리은행 가톨릭회관 지점에서 '북한 어린이 돕기 운동 저금통' 전달식을 하고 모금운동에 들어갔다. '북녘 어린이를 우리 밥상에 초대합시다'라는 글귀가 새겨진 저금통을 우리은행 전국 700여 지점과 출장소에 전달하고, 11월까지 8개월간 모금운동을 전개하였다. 모금액은 4,135만여 원이었다. 우리은행 황영기 은행장은 12월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대주교에게 북한 어린이 돕기 성금과 우리 사랑 기금 1,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민족화해위원회는 2007년에도 우리은행과 공동으로 북한 어린이 돕기 모금운동을 전개하였다. 민족화해위원회는 14×14cm 크기에 정육면체 모양 저금통을 제작, 3월 23일 우리은행 본점과 지점, 출장소 등 839개 영업점에 전달하고 공동캠페인을 하였다.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북녘 형제들 가운데 특히 취약 연령층으로 꼽히는 어린이들 돕기에 초점을 맞춰 '북녘 어린이를 우리 밥상에 초대하는' 마음으로 모금에 참여토록 하였다. 우리나라 국민 한끼 식사비 5,000원이면 북녘 어린이와 국수 100그릇을 나눌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담아 북녘 어린이들과 사랑으로 연대토록 하였다.

##### (6) 왕진 가방 지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는 2007년 8월 22일 인천항을 거쳐 북한 남포항으로 북한주민 의료지원을 위해 왕진 가방 500세트를 조선가톨릭교협회를

통해 황해남도 신천군 인민병원에 전달하였다. 민족화해위원회는 선박 출발에 앞서 8월 17일 경기도 성남시 신원물류센터에서 민족화해위원회 본부장 장궁선 신부가 왕진 가방 축복식을 하였다. 축복식에서 장궁선 신부는 “현재 북한사회의 의료 기반은 열악하지만, 당장 병원을 건립하는 등의 지원이 어려운 관계로 보다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왕진 가방을 지원하게 되었다.”고 전하였다.

민족화해위원회의 왕진 가방 지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sup>9</sup> 기금으로 마련된 대북지원 물품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06년 9월, ‘북한주민건강지원사업’으로 민족화해위원회의 왕진 가방 지원을 선정하였다. 민족화해위원회가 왕진 의료기기 및 가방을 대북지원 품목으로 선정, 지원한 이유는, 1990년대 초반 이후 북한 각급 병원 진료 장비나 필수 의약품, 냉장 장비 등이 부족해지면서 의료전달체계가 취약해졌기 때문이다. 거기에 북한의 현행 일차 의료체계는 의사담당구역제로서, 일정 행정 구역 내 주민들을 담당하는 주치의가 직접 가정방문을 다니며 진료를 펼치는 운영방식이다. 이에 따라 왕진 가방은 북한의 동 진료소와 구역 병원에 근무하면서 환자 방문 진료를 펼치는 호 담당 의사들에게 필수적인 의료 장비로 꼽혔다. 왕진 가방 세트에는 혈압계, 청진기, 설압자, 타진기, 팬라이트, 수은체온계, 침세트, 침통, 부황세트, 약상자, 가위, 핀셋, 건전지, 진료일지 등 14개 의료품목이 포함되었다.

9 1998년 설립되어 공동모금운동을 통해 사회복지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촉진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공동 모금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사랑의 열매를 나눔의 상징으로 하고 있다.

## (7) 콩기름 공장 건립과 운영 지원

민족화해위원회는 국수공장 운영을 중단한 이후 북측에서 요청한 콩기름 지원 대신 콩기름 공장 운영을 제안하고 시설 일체와 원료인 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합의하였다. 콩기름은 취약계층의 육류 대용식품이었다. 이에 따라 2007년 8월에 콩기름 공장 건립을 위한 자재를, 9월에는 착유 시설을 인천항을 통해 남포항을 거쳐 황해남도 신천군 신천읍 콩기름 공장에 보냈다. 10월에는 중국 단둥항을 통해 콩기름 생산 원료(콩) 180톤을 지원한 데 이어 본부장 장궁선 신부와 국내 기술진 등 7명이 방북, 콩기름 공장을 점검하고 착유기와 분쇄기 등 설비 설치를 마무리하였다. 이로써 가동에 들어간 콩기름 공장 운영을 위해 2008년 5월과 8월에 콩기름 원료 각 180톤, 12월에 240톤을 지원하였다. 2008년에는 세 차례 방북해 하루 1,100kg의 콩기름을 생산하여 신천 인근 취약계층에 하루 30g씩 분배되는 것을 간접 확인하였다.

## 2) 후원회 활성화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후원회원의 수가 2001년 이후로 계속 감소하였다. 그 원인으로는 ① 전반적인 경제적 어려움, ② 대북지원 관련 피로 현상, ③ 국제정세 흐름의 영향이었다. 이에 따라 민족화해위원회에서는 적극적인 회원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2004년 민족화해위원회는 후원회가 서울대교구 후원회 체계와 별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 기존 5,000여 명 후원자를 기본 동력으로 재정비를 하고자 했다. 그래서 사회사무부 위원회가 아니라 교구 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후원회와 후원회 월레미사 활성화

를 위해 후원회 조직화를 시도하였다. 그리하여 회장단을 구성하고 지역별 책임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또한, 월례미사 활성화를 위해 미사 후 통일사목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만 실시 중인 2차 헌금도 몇 번 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였지만,<sup>10</sup> 후원회 개편이 쉽지 않았다.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는 설립 10주년을 기념하여 2005년 10월 19일 15명의 후원회원들을 초청하여 분단체험 행사를 하였다. 후원회원들은 비무장지대 내 제3땅굴과 도라산 전망대 등을 돌아보며 남북이 대치하는 현실을 확인하였다. 또 최전방부대인 1사단 전진부대에서 미사를 봉헌하며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기도하였다. 이날 미사에서 장궁선 신부는 “북녘 하늘 아래서 신앙을 지키며 살고있는 형제들도 다른 의미의 순교자라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그들을 진정한 형제로 생각하고 기도하며 관심을 가져왔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하였다.

2006년 4월에는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최창화 몬시뇰, 본부장 장궁선 신부와 후원회원 등을 포함해 61명이 단체로 4월 26~29일 3박 4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하였다. 민족화해위원회 차원에서 성직자와 수도자들을 중심으로 북한 방문이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후원자들을 포함한 단체 방북이 이루어지는 민족화해위원회 설립 후 처음이었다. 방북에 함께한 이들은 사랑이 복음 정신의 핵심이자 화해의 밑거름임을 재확인하고, 신앙의 힘으로 민족의 앞날을 헤쳐나갈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10 2004. 4. 29 민족화해위원회 상임위원회의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

### 3) 북한민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하이모’

1999년 4월 13일 결성된 하이모(하나를 이루어가는 모임)는 민족화해위원회가 주관한 북한민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다. 하이모는 회원(선생님)과 북한민 청소년(동생)의 1:1 결연을 통해 이들의 정신적·심리적 안정을 돕는 데 목적을 두었다.

하이모는 매년 4월과 5월경에는 봄소풍, 어린이날 행사를 열었다. 식목 행사와 조개 캐기, 갯벌 체험, 전시 및 영화·연극·뮤지컬 관람, 박물관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은 북한민 청소년의 긴장상태를 이완시켜 주거나, 학업이나 대인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도와주는 계기가 되었다.

매년 여름과 겨울에는 2박 3일 또는 1박 2일 일정의 캠프를 열었다. 캠프는 회원들과 북한민 청소년들이 서로 마음을 나누며 친밀한 유대를 쌓아가는 기회였다. 이들에게는 좋은 추억거리를 남길 수 있는 자리였으며,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사회성을 향상하는 계기이기도 하였다. 여름·겨울 캠프에서는 물놀이를 비롯한 다양한 야외놀이, 민속놀이, 자연학습체험, 우리 가락과 탈춤 배우기, 눈썰매 타기, 스키 배우기,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2004년 8월 7~9일 하이모는 ‘너는 특별하단다’를 주제로 경기도 용인시 양지 청소년 수련관에서 북한민 청소년 23명과 특별한 여름캠프의 즐거움을 만끽하였다. 물놀이를 비롯해 다양한 야외놀이, 민속놀이, 자연학습체험 등은 추억거리를 남기기에 충분하였다. 또 하이모 도우미들, 구속주회 수사 등 40여 명의 봉사자가 일정을 함께하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2005년 여름캠프는 서울시 성동 청소년 수련관에 위탁, 각종 미술치료 등

청소년들의 심리치료를 병행한 전문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의미를 더하였다. 민족화해위원회는 캠프에서 실시된 심리검사결과를 통해 앞으로 북향민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보완에 나섰다.

2005년 12월 18일에는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북향민 가정 청소년들을 초대해 성탄절 행사를 하였다. 남한에 정착해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30여 명의 북향민 청소년들은 도우미를 비롯하여 성직자, 수도자 등 20여 명의 봉사자와 레크리에이션, 촛불 예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함께하며 친교를 다졌다.

2006년에는 5월 6일 북향민 청소년 후원금 모금 ‘일일찻집’을 열었고, 7월 28~30일 안동교구 문경시 가은성당에서 ‘2006 하이모 하계 캠프’를 가졌다.

2007년 8월 15~17일에는 ‘우리 것은 좋은 것이여’를 주제로 마련한 여름 캠프를 경기도 용인시 양지 청소년 수련원에서 개최하였다. 북향민 청소년 20여 명에게 물놀이를 비롯해 우리 탈 만들기, 강령탈춤 배우기, 민속장단 배우기 등을 통해 전통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2008년 1월 19~20일에는 경기도 포천 베어스타운에서 스키캠프를 가졌다. 서울에 사는 북향민 청소년 9명과 대학생 및 청년 자원봉사자 5명이 함께 해 초·중급으로 나뉘어 스키 강습을 받고 북향민 청소년과 자원봉사자 간 친목과 화합을 다졌다.

‘하이모’는 설립 10주년을 맞아 2009년 4월 17일 오후 7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에서 김운회 주교 주례로 10주년 기념미사를 봉헌하였다. 기념미사와 기념식, 만찬 순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위원장 최창화 몬시뇰, 본부장 장궁선 신부, 구속주회·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자, 하이모 회

원과 역대 회원 등 80여 명이 참석하였다. 기념식에서는 하이모 발전을 위해 힘쓴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의 이선중 수녀, 오혜정 수녀, 구속주회의 김용호 수사, 강지영(피아), 류정희(에밀리아나), 이슬기 등 6명에게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 명의의 감사패가 수여되었다. 김운회 주교는 축사를 통해 “새터민들에게 겨레의 따뜻한 품을 전하고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준 하이모가 앞으로 그들의 위로가 되고 등대가 되며 발전하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하이모는 10주년 기념집 『모두의 기쁨, 우리의 희망』(152쪽, 비매품)을 발간하였다. 기념집에는 하이모 소개, 하이모 10년 발자취, 하이모 탄생 주역 인터뷰, 북향민 청소년들과 하이모 회원 글, 북향민 관련 자료 등이 담겨있다.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은 격려사에서 “10년 동안 새터민 청소년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함께하였던 하이모 활동은 성경의 말씀을 이 땅에 실현하는 행동이었다.”라며, 회원 모두가 하이모에 처음 들어올 때의 그 마음을 한결같이 간직하고 봉사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4.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육·연구

##### 1) 민족화해위원회 설립 9주년 세미나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는 설립 9주년을 맞아 민족화해위원회 방향 설정을 위해 2004년 3월 27일 가톨릭회관에서 설립 9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그동안 민족화해 및 일치운동을 결산하고 겨레 복음화 의지를 새롭게 다졌다. 김운회 주교는 개회사에서 “북핵 문제로 남북관계가 냉각

되면서 민족화해가 위축됐지만, 교회는 화해와 일치의 성사이기에 이 세미나를 통해 오늘 우리 모습을 성찰하고 남북화해의 의미를 다시 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저희의 무관심을 깨닫게 해주소서’를 주제로 한 9주년 세미나는 장궁선 신부의 기조 강연에 이어 중국에서 사목하는 서울대교구 김준영 신부와 정영화(바오로) 서경대 법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와 ‘중국에서 바라본 민족화해의 필요성’, ‘북한교회의 현황과 그 전망’을 각각 다뤘다. 김준영 신부의 논평자는 이원웅(토마) 관동대 북한학과 교수와 일산본당 주임 맹제영(孟濟永, 로마노) 신부였고, 정영화 교수의 논평자는 서울대교구 은퇴사제 최용록(崔鏞錄,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와 윤선자(도미니카) 전남대 사학과 교수였다. 1999년부터 중국 북경에 체류 중이던 김준영 신부는 “복음화는 그리스도 정신을 나누는 과정”이라며, “진정한 나눔은 미래형이 아니라 철저히 현재진행형”이라고 강조하였다. 정영화 교수는 북한교회 재건 원리로 공동선 증진을 위한 노력, 민족 내부뿐 아니라 개인 간 연대 강화, 인간 존엄성 강화와 교회 사회교리 실천 노력 등을 꼽았다.

## 2) 북한민 민주시민교육 실시

2004년 민족화해위원회는 민족화해의 토대 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민족화해의 이념적 토대 구축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교육과 홍보에 역점을 두기로 하였다. 지금까지 대북지원에 치중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북한민에 대해 국내 적응훈련과 함께 민주시민으로서 소양을 길

러주고 실생활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함으로써 국민 통합은 물론 장차 통일 디딤돌로 양성하겠다는 취지이다.

이에 따라 민족화해위원회는 신자들에게 민족화해 정신을 스며들게 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지속해서 마련키로 하는 한편, 행정자치부의 민간협력기금을 활용하여 처음으로 북한민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민을 포함,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통일사목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민족화해위원회는 5월 정현숙(안나) 상명대 교수를 팀장으로 연구팀을 꾸려 북한민 교육 프로그램 연구에 들어간 지 4개월 만에 교육과정을 확정하였다. 연구팀은 7월에 직접 분단국가였던 독일을 방문, 현지 민족 통합과정에서 통합교육 사례와 시행착오를 참조하고 우리 실정을 생각해 교육과정을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2004년 9월 11일부터 2005년 1월 29일까지 매달 3회씩 15회에 걸쳐 5개월간 ‘한국인으로 잘 살기’ 등 다양한 주제로 남한사회 적응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남한사회 이해를 위한 이론적인 교육뿐 아니라 법, 교육, 종교, 건강 등의 분야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방안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다는 측면에서 큰 호응을 받았다.

10월 30~31일 40여 명의 북한민들이 참여한 가족사랑캠프가 경기도 양주시 의정부 한마음수련원에서 열렸다. 팀워크 게임, 공동체 훈련, 인생 설계 등 다양한 놀이와 체험학습을 함께하며 남쪽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다.

당시 급증하는 북한민의 시민사회 적응 과정에서 심리적 갈등, 사회문화적 충격으로 인한 새로운 사회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북한민

〈표 4〉 2004-2005 북한민 민주시민교육 일정

	날짜	주제	내용	
2004	1	9. 11	시작하는 날	“우리 서로 친해집시다”
	2	9. 1	화해미사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됩시다”
	3	9. 28	추석(28일) 행사	망향의 동산 방문 (점심, 송편, 차례, 차량준비)
	4	10. 16	의사소통	문화로서의 의사소통의 의미와 남북한 의사소통 차이 이해하기 “남한사회에서 한국인으로 산다는 것은?”
	5	10. 23	한국인으로 잘살기	“사랑, 결혼, 일 그리고 나”
	6	10. 30-31	가족 캠프	“가족사랑캠프”
	7	11. 13	남한사회의 구조와 특성이해	남한사회의 이해
	8	11. 20	사회적 도움을 위한 네트워크와의 만남	법, 교육, 생활, 종교, 건강 등
	9	11. 28	문화에 대한 이해	“함께해요, 문화 탐구”
	10	12. 11	집단상담	심리극
	11	12. 18	남한사회의 구조와 특성이해	남한사회의 법과 경제
	12	12. 25	즐거운 크리스마스	“성찰과 나와의 만남” 크리스마스 파티
2005	13	1. 8	가족	그룹 토의
	14	1. 15	자아존중감	“나와 너, 그리고 우리 : 다른 만큼 재미있게”
	15	1. 22	자아존중감 훈련	자아존중감 증진 인간관계 훈련 “나는 참 괜찮은 사람”
	16	1. 29	졸업식 미사	화해미사, 졸업식

의 남한 입국자의 수적 증가에 비례하였다. 북한민의 입국자 수는 2002년에는 1,140명, 2003년에는 1,285명이 입국했다. 이들은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전혀 다른 환경과 여건 속에서 적응 준비 없이 이탈 순간부터 심리적 긴장과 위기의식을 경험하였다. 가족사랑캠프는 우리 사회 일원으로 각자 자

율적이고 책임감을 느끼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 목적이 있으며, 민족화해와 사회 통합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 3) 북한민 농촌 이주 및 생산협동조합 창업 지원 프로그램

서울대학교 민족화해위원회는 2009년 9월 12일 오후 4시 서울 명동 가톨릭 회관에서 ‘농촌 이주 및 생산협동조합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12월까지 진행된 농촌 이주 프로그램은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 북한민들에게 정보 제공과 함께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가톨릭농민회와 연계해 그들의 귀농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민들은 2000년 전남 구례로 귀농한 가톨릭농민회 광주대학교구연합회 김영길 상임이사의 강의에 참여해 귀농·귀촌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들었다.

### 4) ‘불어라 세계평화의 바람’(2012)

2012년 7월 28일부터 6박 7일간 국내외 청소년들이 비무장지대(DMZ) 248km를 횡단하며 경색된 남북관계에 작은 평화의 불씨를 놓았다.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사건으로, 그해 남북 교류와 협력 사업을 동결하는 ‘5·24 조치’가 취해졌고 이어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 2012년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남북관계는 갈수록 경색되는 시기였다. 이로 인해 교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과 북한 방문마저 중단되었다. 이러한 남북관계를 타개하고자 민족화해위원회는 ‘DMZ 평화-생태-역사’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2012 세계평화

의 바람'을 기획하였다.

이 여정에는 국내에서 75명, 국외에서 19명 등 국내외 청소년 94명이 봉사자 30여 명과 함께하였다. 순례 구간은 파주 통일대교를 출발해 5사단 신병교육대 및 열쇠전망대→철원 노동당사 및 제2땅굴→화천 베트남참전기념관→을지전망대 및 양구 전쟁기념관→영대자연휴양림→강원도 고성 및 건봉사(乾鳳寺)에 이르는 여정이었다.

세계평화의 바람은 「평화시대를 살아갈 국내외 청소년과 대학생을 위한 2012년 여름방학 평화-생태-역사 체험캠프!」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6박 7일간의 여정을 통해 구간별로 걷고, 맨발로 개울을 건너고 말 타고 자전거를 타며 우리나라 전방 일대를 순례하였다. 참가자들은 참회와 속죄의 성당, 판문점 앞, 열쇠전망대, 철의삼각전적관, 제2땅굴, 통일전망대, DMZ 비무장지대 등 남북분단의 상처와 역사,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천연 그대로의 자연을 가까이에서 체험하며 평화의 소중함을 깨우치는 시간을 가졌다. 신자, 비신자를 불문하고 외국인 유학생 19명과 전국 초중고 학생 75명, 서울 민족화해위원회 본부장 정세덕 신부와 기획위원 및 봉사자 등 120여 명이 참가해 모든 일정을 완주하였다.

6박 7일 순례 일정을 처음부터 함께한 민족화해위원회 본부장 정세덕 신부는 행사의 의미를 묻는 말에 “남북분단과 긴장이 오랜 세월 지속하는 상황에 아이들이 힘든 순례 여정을 소화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평화의 의미를 찾는 과정이었다.”라고 답하였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분단 현실을 통해 평화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나누는 기회였다.”라고 평가하였다.

## 5. 진정한 용서와 화해 그리고 자기 성찰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는 1995년 설립부터 북한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어려움을 파악하여 긴급구호사업, 농업지원사업, 의료사업 등을 통해 인도적 대북지원을 많이 하였다. 이를 통해 교회 테두리를 넘어 사회적 차원에서 복음이 선포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에 동참하였다. 특히 복음선포의 실천적 차원에서 민족화해학교와 매주 화요일 봉헌하는 민족화해미사를 통하여 민족화해와 일치를 위해 기도하고 이를 통해 교구민들이 민족화해와 평화의 필요성을 의식하게 하였고, 대북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2004년부터 건립을 추진한 ‘참회와 속죄의 성당’은 민족화해와 일치에 대한 국민적 합의 기반을 확대하고, 분단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기도운동을 독려하고자 건립되었다. 이와 함께 추진된 ‘민족화해센터’는 장기적인 통일사목에 대한 준비로 향후 남북한 종교교류에 대비한 인력 양성, 통일 세대가 될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평화교육의 장으로 키워낼 목적으로 건립되었다.

또한, 민족화해위원회는 북한의 어려운 환경을 벗어나 보다 나은 삶을 찾아 한국에 정착하는 북향민 지원 활동을 구체적으로 펼쳤다. 그 가운데 ‘하이모’를 통해 북향민 청소년들과 그 가정이 남한사회에 순조롭게 적응하도록 돕고, 이들을 돕는 남한 청년들에게는 민족화해와 평화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인도적 지원과 인적 교류가 중단된 상황 속에서 민족화해위원회는 참회와 속죄의 성당 및 민족화해센터를 완공하는 등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노력을 지속하였다.

##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과 '평화나눔' 운동으로의 전환

# 2014 - 2025

2014년부터 2023년까지의 남북관계는 긴장과 화해가 반복된 시기라 할 수 있다. 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핵·미사일 발사로 도발을 시도했고, 그에 대해 국제사회는 강력한 대북 제재로 대응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남북 정상회담으로 잠시 관계가 완화되기도 하였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는 북한의 도발에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다시금 남북은 긴장관계에 들어갔다.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강경하게 대응하면서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정책을 통해 점진적 대화를 시도했다. 그 결과 2014년 2월, 3년 만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금강산에서 재개되는 등 관계 개선의 작은 신호들이 보이는 듯했다. 그러나 북한은 2014년에 다시금 여러 차례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서 남북 간 긴장관계를 조성하였다. 더불어 2015년 8월에 북한이 비무장지대에서 지뢰 도발 사건을 일으키고 우리나라는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대응하며 긴장이 고조되었다. 다행히도 당시 8·25 남북 합의를 통해 위기를 넘겼으나 북한의 군사적 행동은 해가 바뀌어도 사그라지지 않았다. 북한의 도발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방식 역시 남북 간 긴장관계를 고조시켰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 탐지 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을 비롯한 이른바 3축 체계(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대량우징보복)를 바탕으로 군비를 증강했다.

2016년 1월 북한은 제4차 핵실험을 감행한 데 이어, 2월에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였다. 개성공단은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성을 가진 곳이었기 때문에,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는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 전선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다.

2017년에도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였다. 북한은 7월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두 차례나 성공시켰고, 9월에는 6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2017년 5월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2017~2022)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적 해결을 강조했다. 그 결과 북한이 2018년 우리나라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에 선수단과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한 것을 시작으로, 4월의 판문점 정상회담과 9월의 평양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남북 정상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전쟁 종식,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에서 합의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그해 6월 판문점에서 열린 북미 정상 회동에서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서 진전이 없자 북한은 2020년 들어 다시금 강경 노선으로의 회귀를 선택했다. 6월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이어 2021년에도 여러 차례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서 남북관계는 다시금 긴장관계에 놓였다.

2022년 북한은 수십 차례에 걸쳐 다양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였는데,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전술핵미사일 발사 실험은 특히 우리 정부에게 큰 군사적 위협을 느끼게 했다. 그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2022~2025)는 이러한 북한의 태도에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우선시했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의 연합 군사 훈련을 확대하고,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했다. 북한도 이에 대응하여 더욱 강하게 반발하면서 남북 사이의 평화와 화해는 아쉽게도 요원한 상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멈추

지 않았다. 2014년 8월에 이뤄진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은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이는 비단 일회성의 관심이 아니었으며, 남북 정부의 사이가 요원했음에도 한국교회는 민족의 화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편,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는 남북관계의 악화로 기존의 직접적인 대북지원 방식 대신 평화나눔 교육에 두는 무게를 점차 늘리게 되었다.

## 1. 북한민 지원사업의 본격화와 '평화나눔' 운동 추진

### 1) 조직 구성 변화와 체계 개편

2014년 서울대교구는 민족화해위원회의 체계를 개편했다. 그에 따라 조직의 구성에도 눈에 띄는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강조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었다.

2013년 7월 서울대교구는 교구장 대리 제도와 지구장 제도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동, 서, 중서울 등 3개 지역을 담당하는 교구장 대리와 7개 직능을 담당하는 교구장 대리를 임명하여 사목하는 형태였다. 이와 달리 개편된 직제는 각 지역을 지구장이 담당하고, 교구장이 월 1회 열리는 지구장 회의를 주재하는 형태였다. 이는 교구장이 지구장 제도를 통해 직접 지역 사목을 관할함으로써, 교구장과 사제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다만 '직능'에 한해서는 교구장 대리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에 기존 7개의 직능 분야를 총대리·가톨릭학교법인·청소년·사회사목·수도회 등 5개

분야로 개편하고, 특수사목 담당 교구장 대리제도는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앞서 결정된 개편안에 따른 실제 직제 개편은 2014년 2월에 이뤄졌다. 다만 세부적인 개편 내용에는 2013년에 결정한 것과 차이가 있었다. 서울대교구는 교구장 대리 제도를 유지하는 대신에 교구장 대리과 지구장이 참석하는 지구장회의를 교구장이 주재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단행했다.

당시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는 특수사목 담당 교구장 대리인 최창화 몬시뇰이 관할했는데, 이때의 개편으로 사회사목국 산하가 되었다. 당시 사회사목 담당 교구장 대리는 유경촌(柳京村, 티모테오) 주교였다. 서울대교구는 기존의 사회사목부를 사회사목국으로 승격시키면서, 사회사목국의 역할을 강조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러한 개편은 이후 2022년 8월 교구가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를 교구장 대리 직속기구에서 교구장 직속기구로 변경하기 전까지 유지되었다. 교구장 직속기구가 되면서 민족화해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구장 대리가 아닌 교구장이 맡게 되었다. 이는 곧 평양교구장 서리를 겸임하고 있는 서울대교구장이 민족화해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음으로써 북한교회에 대한 관심과 사목에 대한 준비를 더욱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었다.

한편,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는 2014년 2월 교구 내에서의 위치 변화뿐만 아니라 내부의 체제도 개편을 시행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는 특수사목 담당 교구장 대리가 위원장을 겸하고, 본부장이 그를 보좌하는 형태였다. 그런데 이때에 이르러 본부장 제도를 폐지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목을 관장하는 형식으로 체제를 개편했다. 기존에 본부장직을 맡은 정세덕 신부가 위원장 직책을 맡게 되었으며 이는 곧 여러 실

무를 담당했던 정세덕 신부에게 좀 더 힘을 실어주고자 한 의도가 반영된 것이었다. 그 결과 2014년부터 2022년 8월의 조직 개편이 있기 전까지의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의 실제 업무는 정세덕 신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리고 민족화해위원회는 3월 21일 실시한 2014년도 제1차 상임위원회의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사목 인력 양성, 북한과의 종교교류협력 확대, 전문 연구기능 강화(부설 민족화해연구소), 북한민 지원운동 등을 주요 사업 대상으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통일사목 사제모임 구성 및 전문 인력 양성, 교회 내 단체 간 합의된 북한 관련 정책 수립, 분단 이후 세례받은 북한 신자 관리 강화방안 마련, 민족화해연구소 설치를 통한 연구 논문 발표 및 세미나 개최, 북한민 쉼터 모임 및 하나원 방문 등이 논의되었다.

## 2) 대북 '평화나눔' 사업으로의 재개 움직임

2014년 이후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는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도 평화나눔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노력했다. 평화나눔이란 용어는 나눔이라는 실천을 통해 평화를 이뤄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화를 이룩하는 데에 실천적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만들어졌다. 이는 2013년 3월 프란치스코 교황이 즉위 이후 발표한 첫 부활 담화에도 관련이 있는 것이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부활 메시지(Urbi et Orbi-Easter 2013)에서 한반도의 불화가 극복되고 새로운 화해의 정신이 자라나기를 바란다고 발표하며 한반도의 화해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당시 한반도는 북한이 2013년 2월에 실시한 3차

핵심협 등으로 긴장이 고조된 상태였기 때문에, 프란치스코 교황의 메시지는 더욱 주목을 받았다.

교황의 메시지는 한국 천주교에도 영향을 끼쳤다. 2013년 7월에는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한국 카리타스 등 교회 단체를 포함한 56개의 대북지원 단체들이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대북협)의 성명 발표를 통해 인도적 대북지원 물자를 즉각적으로 반출하기를 요구했다. 또한 2014년 2월 추기경에 서임된 염수정 서울대교구장 역시 여러 공식 석상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강조하는 행보를 보였다.

염수정 추기경은 서임 하루 전인 2월 21일에 남북한 이산가족을 위한 기도를 요청했으며, 22일에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23일에는 로마 한인 신자들과의 주일미사 강론을 통해 남북의 화합과 평화를 당부했다. 염수정 추기경은 귀국 후인 2014년 5월에도 한국 출신 추기경으로서 처음으로 개성공단을 방문하면서 민족화해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갔다. 개성공단에서 염수정 추기경은 직접 천주교 신자 기업인들과 공단 관계자들을 만나 격려하고, 공단의 천주교 신자공동체를 살펴보는 등의 행보를 보였다. 염수정 추기경의 방문 이후,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쳐 약 1천 9백만 원 가량의 도서와 탁아소 건조기를 개성공단에 지원했다. 8월 5일에는 426권의 도서를 지원하였으며, 8월 8일에는 개성공업지구 내의 탁아소에 건조기 2대를 설치하고 전기공사 비용까지 지원했다.

부활 메시지를 통해 한반도 평화에 직접적인 관심을 드러낸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4년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한국을 방문하며 재차 한반도 평화를 기원했다.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의 주요 일정은 대전교구에서 개최하는

제6차 아시아 청년 대회 격려,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시복식, 성지 방문 등이었다. 그중에서도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기원하는 미사를 집전한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신자의 관심이 한반도의 평화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염수정 추기경은 미사에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기도와 평화의 상징을 담은 '파티마의 성모상'과 실제 휴전선의 철조망으로 만든 가시 면류관을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기원하는 의미로 전달하였다. 가시관이 놓인 설치문에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문〉을 라틴어로 새겨 넣어 그 의미를 드러내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서울대교구에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주도한 것은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산하 유니타스(Unitas)였다. 유니타스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수행하여 남·북한 갈등을 해소하고 통일과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1995년에 설립된 단체였다. 유니타스는 2014년에 통일부가 공고한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공고에 참가하여 본격적으로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통일부가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한 분야는 영유아 등의 질병 치료·예방·통제를 위한 진료소 지원사업, 북한주민 대상 온실 물품을 지원하는 온실 지원사업, 영유아 등 영양 개선을 위해 물품을 지원하는 낙농 지원사업이었다. 유니타스는 그 중 온실 지원사업과 관련한 계획서를 통일부에 제출했다. 당시 유니타스가 작성한 계획서에 따르면, 유니타스는 해당 대북농업협력개발사업을 통해서 북한지역의 농업생산력을 증대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며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선진농업기술을 전수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민족화해위원회는 2014년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중

우니타스 2014년도 조직도



국 심양을 방문하여 직접 북한교회 인사들과 접촉했다. 남한 측에서는 서울 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이던 정세덕 신부를 비롯하여 청주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김훈일(金勳日, 요한 세례자) 신부 등이 참석했고, 북측에서는 민족화해협의회 심양 대표인 리창덕과 참사인 김종수 등이 참석했다. 당시 심양에서 이들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맡게 된 우니타스를 소개하고 농업개발협력과 영유아 지원 등 지원사업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우니타스는 통일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단체로 선정될 수 있었다. 또한 평화를 위해 봉사하는 사도직 단체인 “산 에지디오 공동체(The Community of Sant'Egidio)”<sup>1</sup> 및 한국가톨릭의료협회와 함께 대북협력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전문성을 높이고자 했다.

우니타스가 가장 먼저 시행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은 평안북도 내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밀가루를 전달하는 일이었다. 해당 사업은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인 정세덕 신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지원과정에서 북측과 연락이 잘 닿지 않는 등의 문제들이 있었지만, 밀가루는 중국 단동을 거쳐 평안북도 신의주로 잘 전달되었다. 밀가루 전달은 2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1차 전달은 2014년 12월 19일에 90톤을 했고, 2차 전달은 12월 26일에 110톤을 함으로써 민족화해위원회는 총 200톤의 밀가루를 평안북도 내의 어린이에게 전

1 교황청으로부터 인준받은 가톨릭 신앙 공동체로, 1968년 이탈리아 가톨릭 청소년 조직의 리더였던 청년 안드레아 리카르디(Andrea Riccardi)에 의해 시작되었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정신을 따라 평화의 일꾼과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 단체의 목표이며, 로마의 본부를 중심으로 전 세계 70 개국에 5만 명의 후원회원이 활동 중이다. 현재 교황청과의 긴밀한 유대 속에 '세상의 치유'라는 슬로건으로 내전 국가의 평화를 위해 노력 중이며, 이외에도 종교분쟁 중재, 사형제 폐지 운동, 빈곤퇴치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달했다. 구체적인 밀가루 수혜 장소는 평안북도 신의주 애육원(고아원), 동림 중등학교(고아원 7~17세), 평안북도 양생원(장애노인), 룡천군·동림군·피현군·신도군·철산군·선천군 유치원이었다.

밀가루 지원사업을 마친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는 2015년 3월에 대북협력팀의 팀장으로 천주교구에서 파견한 김훈일 신부를 임명했다. 2015년 5월에는 김훈일 신부가 총괄하는 농업 관련 대북지원사업이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 2억 원가량의 예산을 받아 온실, 농기계, 종자, 비닐, 비료 등의 지원이 결정되었다. 해당 사업은 2016년 4월이 되어서야 비닐하우스에 심을 종자 씨 35kg을 평양에 1차적으로 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전달 임무를 맡은 해외 동포원회를 거쳐 사업을 진행하면, 본 사업에 지출되는 비용보다 활동 경비가 3~4배가 된다는 문제가 내부에서 제기되어 일단락되고 말았다. 그나마 대북 지원사업에 함께 참여한 피코미아 수녀가 2016년 5월 17일 358개의 여성용품을 북측에 전달한 것은 당시 지원 사업의 성과였다.

같은 해 7월에는 유니타스가 사단법인으로 전환되었다. 염수정 추기경은 천주교라는 이름으로 대북지원을 할 경우 북측의 사업을 논의할 상대가 조선 가톨릭교회로 국한되기 때문에 종교적 색채를 띠지 않는 단체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종교에 폐쇄적인 북한 정부와 협의하여 북한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염수정 추기경의 주장처럼 천주교의 이름으로 인도적 대북지원을 하는 데에 한계가 존재했다. 따라서 라틴어로 ‘하나 혹은 일치’라는 뜻의 유니타스를 설립하여 종교적 색깔을 드러내지 않은 채 일반 구호물품 외에도 북한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유니타스의 직접적인 인도적 대북지원은 2017년 6월 평양 및 강

원도 내 병원에 1천 5백만 원 가량의 의약품을 지원한 것이 마지막이 될 수밖에 없었다.

민족화해위원회는 2015년 8월 16일부터 21일까지 5박 6일간 광복 70주년을 맞아 조중접경 탐방 “2015 평화로 가는 길”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평화로 가는 길 프로젝트는 우리은행에서 후원을 받아 우리은행 직원과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40여 명의 그리스도인과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조중 접경지대인 중국 연길, 훈춘, 도문, 용정, 백두산, 집안, 통화, 단동, 대련 등을 탐방했다. 평화로 가는 길 프로젝트는 조중 접경지대를 둘러봄으로써 분단된 현실을 직시하고 한반도의 미래와 통일문제를 평화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주요 테마는 ‘걷다’, ‘바라보다’, ‘그리다’ 총 세 가지였다. 이는 조중 접경지대를 함께 걷고 바라보며 북한의 현실을 조망하고(걷다), 역사 유적지에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반도 미래를 바라보며(바라보다),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참된 한반도 평화의 길을 모색하자(그리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애초에 계획 당시에 탐방사업 이외에도 대북지원사업을 병행하는 것이었다.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의 김훈일 신부를 중심으로 한 대북협력팀은 조립사업과 농업협력사업 지원을 동시에 진행하려 했으나, 안타깝게도 통일부에서 조립사업과 농업협력사업 신청을 선정하지 않으면서 탐방사업만 진행하게 되었다. 계획에는 2억 원의 평양 묘목과 2억 원의 의약품, 1억 원의 종묘를 지원하려 했으나 무산되었다.

2016년에는 2014년에 정세덕 위원장과 함께 밀가루 지원사업을 함께하였으며,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에서도 대북협력팀장을 맡아온 김훈일 신

부가 유니타스의 초대 사무총장을 맡았다. 김훈일 신부는 기존에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뿐만 아니라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에서도 대북지원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유니타스의 사무총장에 적합한 인물이었다. 또한 김훈일 신부가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의 정책실장도 겸임하게 되면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 개편이 이뤄졌다.

이처럼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는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도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행보를 보였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제약에 부딪혀 위원회 구성원들의 노력이 빛바랜 부분도 분명 존재했다. 이로 인해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는 북한 내 주민들에 대한 지원 대신 제3국에 있는 북한 노동자와 청소년을 지원하는 방식을 차선책으로 택하기도 했다. 그 예로 2015년 몽골 항울성당의 허웅(許雄, 프란치스코, 대전교구) 신부를 통해 지원을 시작한 이후,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몽골 지역의 북한 노동자와 청소년을 지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역시 차선책이라는 점에서 곤경에 처해있는 북한주민들을 도와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는 곧 직접적 인도적 대북지원 방식보다는 국내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 3) 북한교회와의 ‘평화나눔’ 합의

한국교회는 북한주민을 위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북한교회와의 평화나눔을 합의하기 위해 노력했다. 2014년 8월에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이 확정되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의 정세덕 신부와 의정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이은형(李恩炯, 가브리엘) 신부, 청주교구 민화위 위원장 김훈일 신부, 카리타스 인터내셔널의 이종건(李鍾健, 시메온) 신부로 구성된 남한 측 인사들이 평화나눔을 합의하기 위해 북측 인사와 접촉했다. 이들은 2014년 5월 16일 중국 심양을 방문하여 서철수(조선카톨릭교협회 서기장), 정학준(조선카톨릭교협회 부회장), 리혁철(조선종교인협의회 부국장), 김영민(조선종교인협의회 사무부원)을 만났다. 이들이 논의한 사항은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과 관련한 북한 신자 초청, 남북한 신앙대회 추진,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신부의 평양 방문, 평화나눔을 위한 남북한교회의 역할 모색 등이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염수정 추기경은 직접 개성공단을 방문하여 남북한 근로자들을 격려하며 남북한교회의 평화나눔을 위해 노력했다.

2014년 11월 16일에는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정세덕 위원장을 비롯하여 평화나눔연구소장인 임강택(마르티노) 등 남한 측 인사가 중국 북경을 방문하여 북측 교회의 인사들과 접촉했다. 북한 측에서는 장재언(조선카톨릭교회 중앙위원장 겸 조선종교인협의회장), 서철수(서기장), 리혁철(조선종교인협의회 사무국 부국장), 정웅철(조선종교인협의회 사무국 과장) 등이 만남에 응했다. 이들은 남측 교회가 제안한 1,000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봉헌과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 초청 건과 성탄절 미사를 장충성당에서 봉헌하는 건에 대해서 논의를 나누었다. 비록 평화나눔을 위한 실질적인 진일보는 없었으나,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 북한 측 교회 인사들과 만남을 이뤄낸 것은 분명 한국 천주교의 남북한교회 간 평화나눔을 위한 노력의 성과라 할 수 있다.

#### 4) ‘더불어 함께’하는 북향민 지원의 확대

남북한 정부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긴장관계를 유지하자, 한국교회는 북향민 지원사업에 보다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중에도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의 활동이 주를 이루었는데, 특히 청년에 주목했다는 것이 그 특징이다.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는 하나원을 방문하는 체험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2000년에 중단된 사업을 재개시켰다. 또한 하나원생들을 대상으로 명동대성당 등을 방문하는 문화체험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민족화해위원회는 북향민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2013년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인천 가정동 기도의 집에서 이들과 함께한 것을 시작으로 2015년 2월 25일부터 27일에는 서울 한남동 끈뽀알 프란치스코 피정의 집에서 피정을 가졌다.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인 정세덕 신부가 직접 참여하였으며, 마지막 날 파견미사에서는 피정 참가자들의 소원을 담은 편지를 무기명으로 낭독했다. 미사에 참례한 청소년들은 정세덕 신부를 포함한 사제들의 안수를 받는 동안 서로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에도 2019년 2월 9일부터 10일까지는 성바오로 피정의 집에서 ‘나는 내가 참 좋다’라는 주제로 피정을 가졌으며, 2020년 1월 4일부터 1월 17일까지는 성북동 복자사랑 피정의 집에서 북향민 젊은이들과 피정을 가졌다.

민족화해위원회는 피정뿐만 아니라 기차여행이나 성탄제와 같은 프로젝트도 진행했다. 북향민의 남한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2014년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원주교구의 배론성지를 중심으로 충북 단양을 여행하는 문화체험 행사를 열었다. 문화체험은 1박 2일의 기차여행을 테마로 진행되었으며, 서울대교구의 북향민 쉼터와 공동생활가정 등 9개 공동체에서 북향민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하였다. 정세덕 신부는 배론성지 도미니코회 봉쇄수녀원 성당에서 미사를 주례하였다. 이외에도 2014년 12월 20일에는 서울대교구 가톨릭회관 3층 강당에서 북향민을 비롯한 140여 명이 함께 성탄제를 지냈다.

2016년 5월부터는 북향민 캠프인 ‘좋은부모학교’ 사업을 추진하였다. 해당사업은 2016년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사업으로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에 서울대교구 교구청에서 진행되었다. 대상으로는 북향민뿐만 아니라 남한의 부모와 자녀들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다. 2016년 5월 29일에 진행된 첫 번째 강의 주제는 ‘남북한 교육차이 살펴보기’였으며, 6월 11일에 진행된 두 번째 강의 주제는 ‘좋은 부모는 타고나는가? 만들어지는가?’였다. 이처럼 남북한 부모와 자식들의 출신을 가리지 않고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강의를 진행한 것에는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남북한 평화의 중요성을 조기에 교육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미성년자 외에도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는 남북한의 평화로운 미래를 이끌어 나갈 중요한 인재로 청년을 염두에 두었고, 그에 따라 DMZ 국제청년평화순례 ‘평화의 바람’과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2012년 정세덕 신부가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의 본부장 시절 기획한 ‘2012 평화의 바람’ 프로젝트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었다. DMZ 국제청년평화순례에는 세계 분쟁 지역의 청년들과 재외동포 35명, 국내 대학생 35명, 진행 및 봉사자 40여 명 등 110여 명이 참가하여 과주, 연천, 양구, 인제, 고성 등의 분단 현장을 걸었다. 보스니아 내전을 겪은 세르비아, 내전을 겪은 레바논, 내전이 끊이지 않는 남수단 등 세계 분쟁 지역에서 온 청년들이 참가했고 각자의 경험을 공유한 참가자들 모두 평화의 소중함을 몸소 느낄 수 있는 체험의

장이 될 수 있었다. 이 사업은 현재(2024년)까지도 이어질 정도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평화에 기여한 바도 적지 않다.

2018년 10월, 민족화해위원회는 유니타스 엔젤스 합창단을 설립했다. 유니타스 엔젤스 합창단은 북한민 자녀들과 한국의 아이들이 함께 참여한 합창단이다. 선발 당시 민족화해위원회는 7~11세의 북한민 자녀를 우선으로 선발했으며, 이들이 합창을 통해 가정과 사회, 교회 안에서 소통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했다. 또한 단순히 합창 교육과 공연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함께 소통하며 단원들끼리 양보와 배려를 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2018년 10월 6일 오디션을 거쳐 창단된 유니타스 엔젤스 합창단은 그해 12월 성탄제에서 첫 공연을 하였다. 합창단은 첫 무대에서 ‘들관으로 달려가자’, ‘이 세상의 모든 것’ 등 3곡을 불렀고, 캐럴 메들리로 성탄절을 빛냈다. 2019년에는 북한민 자녀 5명과 남한 아이들 11명이 참여하여 매주 토요일 서울대교구청 별관 소성당에서 2시간가량 연습을 하였으며, 성가곡과 함께 ‘하나의 꿈’과 같은 통일 노래를 연습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활동을 중지할 수밖에 없었고, 3년이 지난 2022년이 되어서야 활동을 재개할 수 있었다.

청년과 아이들 외에도 서울대교구는 다양한 계층의 북한민에게 관심을 쏟았다. 평양교구장 서리를 겸하고 있던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2014년 5월 21일 개성공단을 방문하여 개성공단의 천주교 신자공동체인 로사리오회와 공단 관계자를 직접 만나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염수정 추기경은 개성공단에 도착하여 수자원 시설, 부속병원, 공단 입주 기업을 방문하고 로사리

오회와 식사를 했다.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인 정세덕 신부도 일정을 함께 소화했다. 그렇지만 북측 관계자를 만나거나 미사를 봉헌하지는 못했다. 당시 염수정 추기경은 개성공단에서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을 봤다고 방문 소감을 남겼다.

염수정 추기경의 방문은 서울대교구장의 첫 북한 방문이라는 점에서 분명 의미가 있는 행보였다. 그렇지만 2016년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개성공단의 가동이 중단되자 로사리오회 회원들을 비롯한 개성공단 노동자 및 입주 기업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민족화해의 상징적 존재이던 개성공단도 극도로 긴장된 남북관계의 영향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로사리오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개성공단 재가동을 요청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없이 폐쇄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2. 기도운동의 다각화 : ‘민족의 화해와 일치’, 그리고 ‘한반도 평화’

### 1)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운동의 지속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기도운동을 다각화했다. 매주 실시했던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가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는 1995년 3월 7일부터 시작하여 매주 화요일마다 봉헌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2015년 1월 6일에는 1,000차 봉헌식을 맞아 명동대성당에서 행사를 진행하였다. 미사는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이 집전했는데, 염수정 추기경은 지난 20여 년간 변화를 거듭

하던 남북관계 속에서도 화해 미사가 중단되지 않고 꾸준히 지속된 데에 깊은 의의를 부여하며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천주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염수정 추기경은 1,000차 화해 미사에서 기억으로만 남아있던 북한의 57개 천주교 성당과 남한의 신자를 영적으로 결연하는 영적 신자 운동을 선포했다. 영적 신자 운동은 북한교회의 재건과 남과 북의 진정한 화해와 일치를 위해 교회 차원에서 준비한 기도운동으로 신자 한 명이 북한의 57개 성당 중 한 곳에 영적으로 소속된 신자가 되는 것을 의미했다.

2018년 4월 24일에는 남북정상이 판문점에서 진행하는 회담이 성공하기를 기원하며 1,163차 미사를 봉헌했다. 미사를 집전한 염수정 추기경은 “판문점 정상회담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고, 서로를 겨눴던 총부리를 거두고 화해의 손을 맞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성공을 기원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 서울대교구 총대리 손희송 주교, 사회사목 담당 교구장 대리 유경춘 주교, 해외선교 담당 교구장 대리 구요비(具要備, 읍) 주교, 평양교구장 서리 대리 황인국(黃仁國, 마태오) 몬시뇰 등 주교단과 사제단, 수도자, 평신도 등 800여 명이 함께 미사를 봉헌하며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기도했다.

같은 해 6월 12일에도 앞선 1,163차 미사와 비슷한 성격의 미사가 봉헌되었다. 이날 미사는 주한 교황대사 알프레드 슈에레브(Alfred Xuereb) 대주교가 집전하였으며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했다. 염수정 추기경은 미국과 북한이 70여 년 넘는 세월 동안 적대 관계를 유지하던 끝에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의의를 강조했다. 그러는 한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의미 있는 합

의가 이뤄졌다는 소식을 접한 것에 감사하며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다.

2019년 3월 5일 1,201차 미사에서는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기원하며 특별히 고(故) 김수환 추기경 선종 10주기를 맞아 기도하였다. 이날 미사에는 주한 교황대사 알프레드 슈에레브 대주교, 최창무 대주교, 유경춘·정순택·구요비 주교와 평양교구장 서리 대리인 황인국 몬시뇰, 평양교구 원로사목자 김득권 신부(金得權, 굴리엘모) 등 사제단과 신자 500여 명이 함께했다. 슈에레브 대주교 역시 “우리는 평화를 구축할 특별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성모님의 도우심에 기대어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야 한다.”며 한반도의 평화를 강조하였다. 이 행사에서는 북향민의 자녀와 한국 어린이들로 구성된 유니타스 엔젤스 합창단의 첫 공연도 있어 특별한 의미를 전했다. 2020년 3월 3일에는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설립 25주년을 맞아 행사와 더불어 1,252차 미사를 봉헌드릴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때 닥친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행사는 취소되었고, 미사만 봉헌되었다. 3월 3일 이후부터는 미사까지 일시 중단되었다. 이때 중단된 미사는 2020년 6월 25일 명동대성당에서 봉헌한 한반도 평화기원 미사 때에 잠시 재개되었으나, 이후 중단과 재개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2021년 2월 25일 1,255차 미사부터는 정상화되어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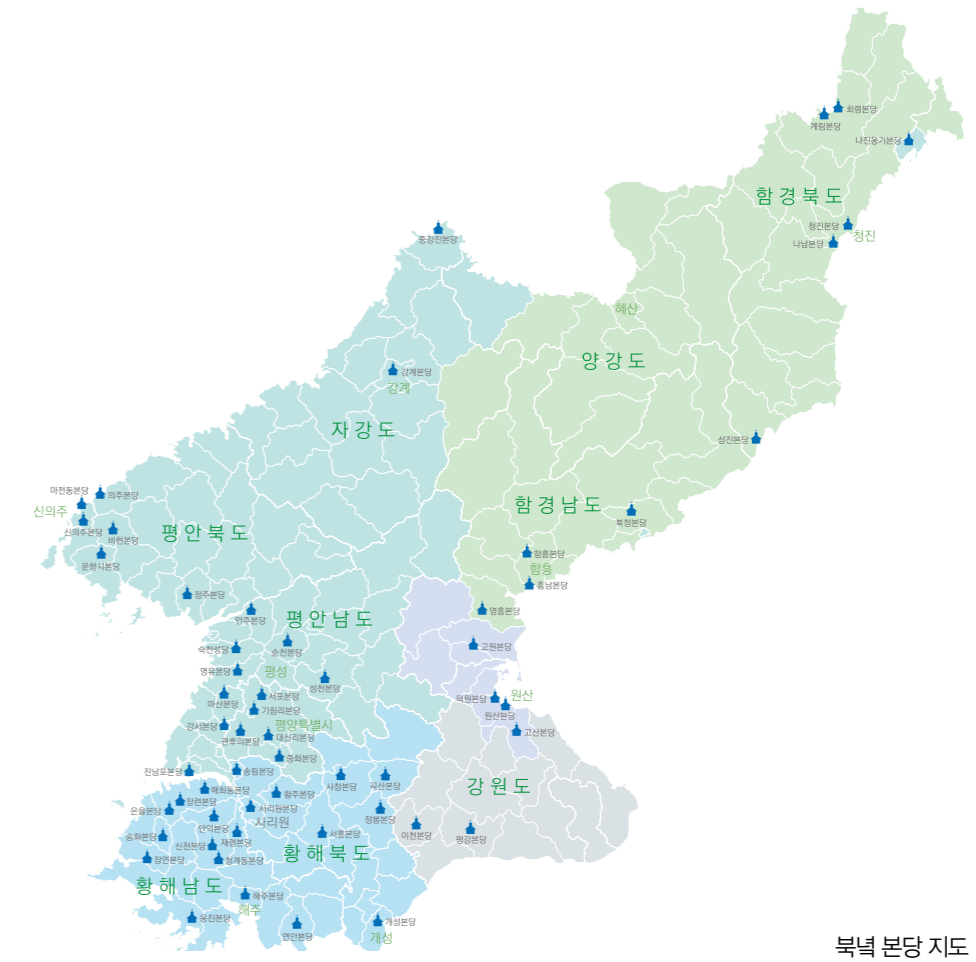
한편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는 통일부 가톨릭 신자회인 프란치스코 회와도 관계를 맺었다. 프란치스코회는 2014년 7월 24일 서울대교구청 주교관 성당에서 염수정 추기경의 주례로 창립미사를 봉헌했다. 이날 미사에는 통일부 신자 직원 25명이 참석하였다.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인 정세덕 신부가



〈표 1〉 북녘 지역의 57개 본당 목록

	교구	본당명	존속년도		교구	본당명	존속년도
1	서울대교구	해주본당	1912~1949	30	평양교구	마산본당	1926~1950
2	서울대교구	은율본당	1902~1950	31	평양교구	강서본당	1935~1944
3	서울대교구	매화동본당	1896~1950	32	평양교구	중화본당	1927~1950
4	서울대교구	청계동본당	1898~1949	33	평양교구	영유본당	1902~1950
5	서울대교구	장연본당	1898~1950	34	평양교구	숙천본당	1931~1942
6	서울대교구	재령본당	1899~1950	35	평양교구	안주본당	1930~1950
7	서울대교구	신천본당	1930~1949	36	평양교구	순천본당	1928~1944
8	서울대교구	안악본당	1936~1950	37	평양교구	성천본당	1936~1948
9	서울대교구	연안본당	1938~1950	38	평양교구	신의주본당	1922~1949
10	서울대교구	장련본당	1939~1950	39	평양교구	마전동본당	1939~1947
11	서울대교구	송화본당	1939~1950	40	평양교구	의주본당	1911~1950
12	서울대교구	웅진본당	1939~1950	41	평양교구	비현본당	1910~1950
13	서울대교구	개성본당	1901~1950	42	평양교구	운향시본당	1936~1945
14	서울대교구	송림본당	1939~1950	43	평양교구	정주본당	1936~1950
15	서울대교구	정봉본당	1928~1950	44	함흥교구	북청본당	1935~1949
16	서울대교구	곡산본당	1928~1950	45	함흥교구	흥남본당	1935~1949
17	서울대교구	사창본당	1925~1951	46	함흥교구	영흥본당	1931~1949
18	서울대교구	사리원본당	1916~1950	47	함흥교구	함흥본당	1927~1949
19	서울대교구	서흥본당	1915~1942	48	함흥교구	성진본당	1941~1949
20	서울대교구	황주본당	1902~1919	49	함흥교구	계림본당	1941~1949
21	춘천교구	이천본당	1883~1945	50	함흥교구	회령본당	1925~1949
22	춘천교구	평강본당	1924~1950	51	함흥교구	나진웅기본당	1935~1948
23	평양교구	관후리본당	1895~1949	52	함흥교구	청진본당	1926~1950

24	평양교구	대신리본당	1934~1949	53	함흥교구	나남본당	1936~1949
25	평양교구	기림리본당	1940~1949	54	덕원자치수도원구	원산본당	1887~1949
26	평양교구	서포본당	1931~1950	55	덕원자치수도원구	덕원본당	1927~1949
27	평양교구	강계본당	1933~1949	56	덕원자치수도원구	고원본당	1933~1949
28	평양교구	중강진본당	1930~1949	57	덕원자치수도원구	고산본당	1896~1949
29	평양교구	진남포본당	1900~1950				



### 3)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기도운동의 강화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는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기도운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 행사를 진행했다. 한반도 평화기원 성모의 밤은 그중 하나였다. 2016년부터 매년 5월에 명동대성당 성모동산에서 열린 이 기원 행사는 성모님에 대한 전구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북녘 본당과 신자들을 위한 기도도 함께 진행되었다.

2016년 5월 31일 처음 열린 성모의 밤 행사에서는 성모님께 꽃바구니를 봉헌하는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고 북녘 땅의 본당과 주민들을 위해 묵주기도 5단을 바쳤다. 2017년 5월 8일에는 파티마 성모 발현 100주년을 기념하여 ‘파티마 성모님께 봉헌하는 한반도 평화 기원 성모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서도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묵주기도 5단을 드렸는데 1단은 세계평화, 2단은 한반도 평화, 3단은 민족의 진정한 화해와 일치, 4단은 북한 지역의 복음화와 북한주민들, 5단은 모든 신자의 가정에 평화와 청소년들을 위해 바쳤다. 파티마 성모는 기도와 평화의 상징이 담겨있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 기원의 의미를 더할 수 있는 행사였다. 2018년 성모의 밤 행사는 6월 12일에 열릴 예정이던 북미정상회담 직전인 5월 31일에 열렸다. 이날 5단 묵주기도는 세계와 한반도의 평화, 북한의 복음화, 북녘 형제들, 이산가족과 북향민, 분단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바쳤다. 염수정 추기경의 촛불 점화로 시작한 2019년 행사는 북향민과 이산가족이 함께했는데, 특히 북향민 문화제에서 북향민 청소년 5명의 촛불 춤 공연과 유니타스 성가대의 합창이 이날 행사를 빛냈다.

2017년 3월 18일에는 평양교구 설정 90주년 기념미사가 서울대교구 주교

좌 명동대성당에서 봉헌되었다. 이날 미사에는 염수정, 정진석 추기경과 평양교구 출신의 윤공희 대주교, 주한 교황대사인 오스발도 파딜라(Osvaldo Padilla) 대주교, 평양교구장 서리대리 황인국 몬시뇰, 홍용표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미사에 참석한 이들은 제6대 평양교구장인 홍용호 주교(洪龍浩,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1906~?)의 사목표어 ‘일어나 가자’의 의미를 되새기며 평양교구의 재건과 통일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날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반야 루카 교구장인 프란요 코마리차(Franjo Komarica) 주교는 평양교구-반야 루카 교구 자매결연서를 파티마의 성모님께 봉헌했다. 반야루카교구 역시 1992~1995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전쟁으로 인해 인종청소와 종교 갈등을 겪은 후, 교구 신자 수가 25만 명에서 5000여 명으로 급감했기 때문에 평화를 바탕으로 한 교구 재건이 절실했다. 평양교구와 반야루카교구는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써 서로의 평화를 기원하고자 했다. 프란요 코마리차 주교는 이날 미사 후 북방선교를 지원하는 신학생들에게 특별 제작한 묵주를 선물하며 격려하는 동시에, 통일이 될 때까지 자부심을 가지고 기도해달라고 당부했다.

2018년부터 열린 한반도 평화기원 대기도회 역시 같은 성격의 기도회였다. 6월 13일 서울 동성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2018년 한반도 평화 기원 대기도회’는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와 교구 성령쇄신봉사회 공동 주관으로 열렸다. 대기도회에서는 ‘하나됨을 위하여’를 주제로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이 주례를 맡았고 주한 교황대사 알프레드 슈에레브 대주교와 교구 사제단이 개막 미사를 공동 집전했다. 이와 더불어 양양성당 이광재(티모테오) 신부 기념관의 김두한 기념관장과 수원교구 남양성모성지의 이상각(李相珪,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의 강의를 진행되었으며, 정세덕 신부 등 교구 사제단

이 공동 집전하는 파견 미사로 마무리 했다. 그날 한반도 평화기원 대기도회에 모인 이들은 한반도에 평화가 오기를 기원하며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하느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9년 한반도 평화 기원 대기도회 역시 동성고등학교 성당에서 모였다. 염수정 추기경은 미사 강론에서 “용서와 화해가 없는 기도는 주님께서 받지 않으실 것이며 내 마음의 복讎 본당 기도운동을 통해 민족화해와 일치를 이루고 복讎 형제들과의 일치를 이뤄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사 후에는 찬미 기도회와 평양교구 사무국장 장궁선 신부의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와 동료 80위’ 중 복讎의 순교자들에 대한 강의를 열렸다. 또한 살레시오수녀회의 초청으로 몽골 노밍요스(Noming Yos) 초등학교 졸업생의 공연이 펼쳐졌으며, 끝으로 이전 해와 동일하게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의 정세덕 위원장을 비롯한 사제단 공동 집전 미사로 마무리했다.

### 3. ‘평화나눔’ 교육·연구의 본격화

#### 1) 평화나눔학교 개설과 평화교육 실시

평화나눔연구소는 2014년 11월 평화나눔학교를 개설했다. 그해 8월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강조한 흐름에 맞추어 많은 신자에게 평화를 실천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평화나눔학교 제1기의 강의는 총 6주로 구성되었다.

평화나눔학교 1기의 강의 주제를 살펴보면 주로 실생활과 그 안에서의 실

〈표 2〉 평화나눔학교 강의 일정

	날짜	제목	강사
1	11. 6	한반도 평화, 오늘의 일이며 나에게 주어진 과제	유경춘 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담당 교구장 대리)
2	11. 13	한반도 평화, 오늘 나부터 실천	조민 박사 (통일연구원 연구본부장)
3	11. 20	남북관계의 현실은?	이수영 박사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회담기획부장)
4	11. 27	북한주민의 생활 및 의식의 변화	임순희 박사 (평화나눔학교 교장, 통일연구원)
5	12. 2	사람 중심의 사회, 그 실상은?	윤여상 박사 (북한인권기록보존소)
6	12. 11	연구자와 북한 이탈 주민과 함께하는 대화	평화나눔연구소 연구위원

천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6주에 걸친 평화나눔학교 1기 강의를 마무리한 평화나눔연구소는 이에 그치지 않고 다음 해인 2015년 5월에 평화나눔학교 2기를 개설했다. 이번에는 1기가 6주차 일정이었다는 것과 다르게 2주 일정을 추가하여 총 8주차로 강의를 구성했다.

평화나눔학교 2기의 강의 주제 역시 1기의 강의 주제와 같이 주로 한반도 평화 담론과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주요 탐색과 관련이 있는 것이었다. 1기와 달라진 점은 정부차원에서의 통일 준비 현황과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통일 준비 현황 및 과제에 대한 강의와 통일의 경제적 효과, 통일 대박론, 개성공단 등과 관련한 내용의 강의를 추가되었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수강생들이 현재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심을 가지는 이들이 함께 의견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설립 목적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2015년부터 평화나눔연구소가 실시한 학술행사는 평화연구 콜로키움, 평화나눔포럼, 창립기념세미나, 한반도평화나눔포럼, 평화나눔연구소-한양대 평화연구소 공동학술회의, 학술심포지엄 등이 있다. 평화연구 콜로키움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한 학술행사로 가장 먼저 시행한 것이며 가장 많이 개최되기도 했다. 평화연구 콜로키움에서는 한 명의 발표자가 평화나눔연구소의 설립 취지에 맞는 주제를 바탕으로 쓴 글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평화나눔 콜로키움은 2018년 이후 중지되었다가 최근 2024년에 평화나눔연구소 연구위원으로 구성된 ‘연구위원회 콜로키움’이 시행되면서 콜로키움 성격의 학술행사가 재개되었다.

평화나눔포럼은 2015년, 2016년, 2019년까지 세 번에 걸쳐 시행한 학술행사였다. 평화나눔연구소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교회의 회복을 위한 지혜를 모색하기 위해 한 해 동안 진행해온 연구 결과를 발표되었다. 2015년에는 북한주민의 종교성, 북한 종교박해 백서와 같은 북한 관련 주제 발표뿐만 아니라,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의 한중관계나 아일랜드 문학의 평화담론과 같은 연구들도 발표되었다. 2016년에는 ‘평화협정의 의미와 사례’, ‘종교와 평화교육 : 종교를 통한 대안적 통일교육의 모색’, ‘근대 서양의 평화사상’, ‘환대의 윤리, 공생의 문화 그리고 평화’, ‘중국 공산당의 집권 이후 가톨릭 대응방안 분석’과 같은 주제를 가지고 실시되었다. 마지막으로 2019년에는 ‘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한국 외교’, ‘환대의 실천과 실현’, ‘타자의 발견과 정당한 전쟁 : 라틴아메리카 식민화와 복음화’,

‘탈북 이주민의 분단 디아스포라와 신앙’이라는 주제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한편 2016년부터 시작된 한반도평화나눔포럼은 평화나눔포럼보다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시행되었다. 한 가지 특징은 전 세계의 교회 고위 성직자를 비롯한 석학들을 초청하여 한반도 평화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좀 더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 가령 2016년에는 ‘중동지역의 평화와 화해’에 대하여 발표한 중동 및 안티오키아 마로나이트 교회 총대주교인 베샤라 부트로스 알 라이(Bechara Boutros Al-Rai) 추기경, ‘전쟁 이후 사목 차원에서 화해와 평화 실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글을 발표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사라예보 대교구장인 빙코 풀리치(Vinko Puljić) 추기경, ‘전쟁과 테러 상황 속에서 교회의 가르침에 바탕을 둔 평화와 화해를 실현하기 위한 평신도들의 임무’라는 주제의 글을 발표한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대교구장인 스타니스라브 호체바르(Stanislav Hočevar) 대주교 등이 있다.

이외에도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 대교구의 그레고리오 로사 차베스(Gregorio Rosa Chávez) 추기경, 브라질 상파울로 대교구장인 오질루 빼드루 쉐레(Odilo Pedro Scherer) 추기경, 멕시코 모렐리아 대교구장인 카를로스 가르피아스 메를로스(Carlos Garfias Merlos) 대주교, 인도 뭄바이 대교구장인 오스왈드 그라시아스(Oswald Gracias) 추기경, 필리핀 마닐라 교구장인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레(Luis Antonio Gokim Tagle) 추기경, 미얀마 양곤 대교구장인 찰스 마웅 보(Charles Maung Bo) 추기경 등이 2016년에서 2023년까지 발표에 참여하였다. 그밖에 평화나눔연구소는 2020년과 2022년을 제외하고 매해 창립기념세미나를 열고 있으며, 2017년부터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와 공동학술대회

를 총 5회를 개최했다.

평화나눔연구소는 2016년 2월에는 평신도 북한·통일 문제 연구자 모임인 토마스회를 발족했다. 토마스회는 동양평화론을 제창한 안중근 의사의 뜻을 높게 사, 그의 세례명인 토마스를 단체의 이름으로 선택했다. 평화나눔연구소는 교회의 미래 인재 확보를 위해 연구 인력을 양성할 필요성을 느끼고 토마스회를 창립했으며 토마스회는 영성, 북한·통일, 평화라는 세 가지의 주제로 매월 1회 연구 모임을 가졌다. 창립회원으로는 통일학, 북한학, 정치학, 국제학 분야의 국내외 연구자 20여 명이 참여했다. 평화나눔연구소는 이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며 이들에 대한 지원과 관리에 힘썼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토마스회는 2020년 『속삭이다, 평화』를 발간한 이후 일시적으로 활동을 멈췄으나, 최근 2024년 8월에 재출범하였다.

평화나눔연구소에서 발행한 연구서와 학술서로는 임순희의 『북한주민의 종교성』, 윤여상·안현민의 『북한 종교 박해 역사와 사건 기록』이 있고, 그 외에도 『평화나눔연구총서 I : 가톨릭교회 평화론과 평화 사상』이 있다. 학술지로는 2020년 처음 발간하여 2024년까지 연 2회, 총 9회 펴낸 『인간과 평화』가 있다.

### 3) '민족의 화해와 평화에 대한 인식조사' 실시

평화나눔연구소는 2022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민족화해와 평화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2022년에는 천주교인과 일반인, 타 종교인 및

무교인의 민족화해와 평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였다.<sup>2</sup> 두 개의 조사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일반 국민 1,100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앞의 조사집단에서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중에 '종교' 문항에서 천주교라고 응답한 사람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공통적인 질문으로는 통일의 필요성, 통일에 따른 이익(국가 및 개인), 북한을 어떤 대상으로 보는지, 북한의 행동에 대한 용서 여부, 프란치스코 교황의 북한 방문에 대한 생각 등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는 남북한의 미래 형태에 대한 질문이 포함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 결과를 종합해보면, 우리 한국 사회가 천주교인에게 기대하는 인식과 실제 천주교인의 대북인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또한 그리스도교인은 다른 종교인과 무교인에 비해 북한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렇지만 천주교인은 북한을 용서하는 것에 대해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반면, 개신교인들은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차이점 역시 존재했다. 천주교인에 대한 조사의 결과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통일, 화해, 협력에 우호적이며, 청년 및 노령 신자가 통일에 소극적인 것에 반해 40~50 중년층은 보다 적극적이고 청년층이 가장 관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서울과 호남 신자가 타지역에 비해 통일에 좀 더 동의하는 성향을 보이지만, 실제 정책에서 서울의 신자가 북한에 우호적이지는 않았

2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로 2022년 10월 말부터 11월 초에 진행되었다.

다. 마지막으로 교육수준에 따른 분석 결과로는 고학력층이 통일을 좀 더 합리적 관점에서 인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2024년에 실시한 조사<sup>3</sup>는 사제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전체 사제 5,713명 중 설문에 응답한 이는 모집단의 8%인 460명이었다. 참여 자체가 저조한 것을 고려한다면, 조사의 신뢰도가 높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런데도 남북 통일에 대한 사제의 인식은 처음으로 조사를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 연구를 하는 데에 있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설문조사에서 사용한 주요 질문 중에 사제가 한반도 문제를 언급하는 빈도, 한반도 문제를 언급하는 상황, 언급하지 않는 이유 등 사제에 국한한 질문을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그 결과 몇 가지 흥미로운 분석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다.

우선 사제의 경우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비율이 약 82%로, 일반 국민이 43%를 기록한 것보다 39%나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실제 남북관계의 미래 체제에 대한 응답에서는 사제와 일반 국민, 천주교 신자 사이의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사제들이 일반 국민보다 통일의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지만, 통일 후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을 넘어서는 사유를 갖지 않았음을 의미했다.

이처럼 최근 서울대학교 민족화해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는 보완해야

3 서울대학교 민족화해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로 2024년 9월 19일부터 10월 7일까지 진행되었다. 설문링크는 군종교구를 제외한 전국 15개 교구의 민족화해위원회와 한국천주교남자수도회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민족화해전문위원회를 통해 전달했다. 참여한 교구로는 서울대학교(147명), 인천교구(61명), 광주대학교(43명), 마산교구(0명), 원주교구(1명), 청주교구(2명), 부산교구(4명), 제주교구(5명), 안동교구(5명)이다.

할 점도 내재했지만,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한국교회가 좀 더 진전된 논의를 할 수 있는 초석으로서 역할했다. 특히 천주교인의 인식만 분석 대상으로 삼지 않고, 다른 종교인 혹은 무교인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이러한 조사 방식은 한국교회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고민할 때에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의 성향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4. '평화나눔' 운동의 활성화 시도와 과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대학교 민족화해위원회는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 활동을 이어나가야만 했다. 이전 시기에 직접적인 인도적 대북지원에 힘을 쏟을 수 있었던 것과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민족화해위원회의 활동 방향도 변경이 불가피했다. 서울대학교 민족화해위원회는 직접적인 인도적 대북지원보다는 언젠가 이루어질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준비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가령 북한교회와의 평화나눔을 위한 협력을 시도하고, 북한민을 직접 지원 혹은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이는 인도적 대북지원금액만 확인해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지원 방향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 인도적 대북지원 금액이 약 43억 원인 것에 반해, 2014년부터 2023년까지의 인도적 대북지원 금액은 6억 원에 불과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민족화해위원회는 국내의 평화나눔 교육에 전념하기로 하였다.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는 2025년 상반기에 ‘화해평화학교’를 신설했다. 화해평화학교는 한반도의 화해·평화와 일치를 위해 교회가 강조하는 바를 교회 구성원과 함께 이야기하고 고민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이전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가 진행한 1995년의 〈민족화해학교〉, 2004년의 〈민주시민교육〉, 2014년의 〈평화나눔학교〉를 계승하고 발전시킨 것이었다. 화해평화학교는 20~39세의 청년과 수도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2025년 3월 19일부터 5월 14일까지 매주 수요일 19시에 서울대교구 영성센터에서 강의가 이뤄졌다. 각 강의는 100분간 진행되었으며, 총 8개의 강의 외에도 1박 2일 DMZ 특별기행을 기획함으로써 수강생들이 강의뿐만 아니라 답사를 통해서 한반도의 화해·평화와 일치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게 했다. 강의 주제로는 평화신학, 북한정세, 분단문화, 국제정세, 문화교류, 북한교회, 종교교류 등이 다뤄졌다.

평화신학을 주제로 한 제1강은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부위원장 정수용 신부가 맡았다. 정 신부는 “평화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강의를 시작하며, 용서는 평화의 전제 조건이며,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화해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서로 갈등 중에 있으며, 그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화해의 출발점이 반드시 과거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2강에서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이정철 교수가 대북 인식론을 주제로 강의했다. 그는 북한을 이해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키워드(수령제, 극장국가, [신]전체주의)를 제시하고, 북한 경제 붕괴론, 당대회, 대외 관계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북한을 바라보는 인식의 틀을

설명했다.

제3강에서는 북한대학원대학교 김성경 교수가 강의자로 나서, 단절된 남북 관계와 이미 갈라진 마음의 상태를 짚고, 다시 통합을 이루기 위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4강은 한신대학교 백준기 교수가 맡아 ‘세계는 전쟁 중, 한반도 평화는?’이라는 부제 아래, 전쟁이 지속되는 세계 정세 속에서 한반도 분단의 현실을 진단하고,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태도와 자세를 제안하였다. 제5강에서는 국립통일교육원 박계리 교수가 남북 사회문화 교류의 현황과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며, 통일 한국을 위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의 필요성과 그 실현 방안에 대하여 강의하였다. 제6강에서는 예수회 김연수 신부가 북한 교회사와 종교의 현황을 돌아보면서, 북한 교회에 대한 접근방식과 이들에게 필요한 복음화 전략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제7강은 전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본부장 장궁선 신부가 맡았다. 장 신부는 남한 교회가 북한 교회를 돕는 데 가장 우선되는 것은 ‘관심과 사랑’임을 강조하고, 수강생들에게 북한의 고통받는 신앙인과 동포들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요청하였다. 마지막 제8강은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부위원장 정수용 신부와 사무국장 이종화(李鐘和, 프란치스코) 신부가 공동 집전한 수료 미사로 마무리되었다.

이러한 민족화해위원회의 사업 추진은 남북관계가 해결되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의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주민 혹은 북향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도 평화나눔을 위한 실천적 자세를 강조하고, 이를 위한 연구 및 교육 사업을 진행하는 점에서 이전과는 분명 다른 방식

의 노력을 모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는 설립 3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았다. 이러한 성찰과 방향 모색은 30주년 기념 감사 미사와 기념학술회의를 통해 잘 드러났다.

감사 미사는 서울대교구 명동대성당에서 2025년 3월 12일에 봉헌되었다. 미사는 서울대교구장이자 평양교구장 서리인 정순택 대주교의 주례로 거행되었으며, 전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 주한 교황대사 조반니 가스파리 대주교, 초대 위원장 최창무 대주교,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김주영 주교,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전 위원장 이기현 주교,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장이자 덕원자치수도원구 자치구장 서리인 박현동 아빠스를 비롯하여,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와 함께해 온 여러 사제가 공동 집전하였다.

정순택 대주교는 강론을 통해 한반도 안에서 증오와 미움을 내려놓는 것이 기록한 회심의 표징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 성찰을 촉구하였다. 미사 중에는 민족화해위원회 부위원장 정수용 신부가 지난 30년간의 활동과 연혁을 보고하였고, 이어서 조반니 가스파리 대주교, 최창무 대주교, 김주영 주교가 축사를 통해 위원회의 걸어온 길을 격려하고 앞으로의 사명을 응원하였다.

이날 정순택 대주교는 위원회의 창립과 발전에 헌신한 인물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하였다. 초대 위원장 최창무 대주교, 1999년부터 제2대 본부장으로 활동한 정광웅 신부, 2003년 하나원에서 신앙을 접한 뒤 민족화해위원회 직원으로 꾸준히 활동해 온 김미경(프란치스카 로마나) 씨에게 공로패가 수여되었

다. 또한 위원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후원한 김경자(엘리사벳) 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에 성가대 봉사자로 참여해 온 이금숙(알로이시아) 씨, 그리고 순교자 홍용호 주교의 후손인 이재근(아드리아노) 씨에게는 감사패가 전달되었다.

민족화해위원회는 30주년을 마무리하면서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성혈대축일’인 6월 22일에 2025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미사를 명동 대성당에서 봉헌하였다. 이날 미사를 집전한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정순택 대주교는 “우리가 민족을 위해 참담게 나눌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물으신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먼저 먹을 것을 주어라. 먼저 손을 내밀어라.” 하신다며 우리가 적대감을 내려놓을 때 남과 북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에 기념 학술회의를 명동대성당 영성센터(구 계성여고)에서 개최하였다. 학술회의의 주제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의 여정과 사명’이었다. 기초연설에서 서울대교구장이자 평양교구장 서리인 정순택 대주교는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의 역사적 의미와 소명’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정순택 대주교는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가 광복 50주년을 맞아, 민족의 평화와 화해, 일치를 이루지 못한 현실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출범했다는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 더불어 남북 관계 악화로 인해 많은 활동이 중단된 현 상황을 언급하며, 새 정부의 북한에 대한 포용적 입장에 대한 기대와 함께 교회 안팎의 기도와 지혜를 요청하였다.

이날 학술회의는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제1 세션에서는 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미사와 민족화해위원회 설립 30주년 기념학술회의 포스터.

국교회사연구소 소장 조한건 신부의 '서울대교구 민화위 30년의 교회사적 의미', 서울대학교 박태균 교수의 '지난 30년 남북 관계의 변화, 희망과 좌절: 교회의 고민과 과제',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 변진홍 자문위원의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우리 교회의 역할과 과제' 발표가 진행되었고, 서강대학교 신학연구소 김선필 박사, 국가안전전략연구원 성기영 박사, 평화나눔연구소 서경배 박사가 토론을 맡았다. 이를 통해 제1세션에서는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의 지난 30년을 교회사와 시대사의 관점에서 조명하고, 미래 과제를 학문적으로 정리하였다. 제2세션에서는 평화나눔연구소 임강택 부소장의 사회로 참석자 전원이 모여 교회 안팎의 다양한 시각에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의 현황과 비전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정순택 대주교 대담**

일시 2025년 1월 10일(금) 오후 3시-4시  
장소 서울대교구장 집무실

종교계를 포함한 민간의 민족화해 활동은 정치 영역에 큰 영향을 받아 왔다. 2010년대 이후, 진보와 보수 사이 정권이 교체되던 시기, 민족화해위원회 역시 남북의 정치적 소용돌이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보수 정권의 강경한 입장은 민족화해 사목의 관심도를 낮추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고, 진보 정권 때는 일부 정치적 변화가 시도되었으나 그 영향이 민간까지 미치지 전에 다시금 단절되었다. 게다가 2017년을 전후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그리고 남한의 대규모 군사 훈련과 전략 무기 도입 등 남북 모두의 무력시위 강화는 화해의 목소리가 멀리 퍼지지 못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말았다.

이 시기 민족화해위원회는 자연스럽게 북한 천주교 관계자와의 교류협력보다 교육과 연구 활동으로 방향성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격히 줄어든 북향민 숫자 역시, 기존의 초기 정착지원이 아닌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마주하게 되었다. 대중의 관심이 줄자 교회 내에서도 민족화해 사목은 전체적인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양상을 보였기에, 지속적인 기도 활동도 불가피하게 위축되기에 이르렀다.

2022년을 기점으로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는 조직을 개편하면서, 사업의 목적성을 뚜렷이 드러내는 방향으로 사목적 비전을 논의하게 되었고 다시금 민족화해 사목의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2023년 부설 평화나눔연구소의 조직을 개편하여 북한 이슈와 한반도 연구, 그리고 분단 극복으로 집중하며 교구의 정책적 고민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과 연구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설립 30주년을 맞아  
위원장 정순택 대주교에게 민화위 활동의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대담 질문은 한국교회사연구소 조한건 신부가 맡았으며  
민족화해위원회 부위원장 정수용 신부가 함께하였다.

”

2022년 8월 대주교님께서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조직을 개편  
하시면서 위원장직을 맡으셨습니다. 교구장님께서 위원장직을 맡은  
것은 민족화해위원회 설립 이래 처음인데요, 어떤 계획이나 구상을  
가지고 결정하신 일인지 궁금합니다.

**정순택 대주교:** 우리 교구 민족화해위원회의 30년 역사에서 오히려 초창기부  
터 주교님들이 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당시 처음 민화위가 발족할 때 사회  
사목 담당 교구장 대리이셨던 최창무 주교님께서 민화위 위원장을 맡으신 이  
래 계속해서 사회 사목 담당 교구장 대리 주교님(강우일 주교, 염수정 주교, 김운회  
주교)께서 맡으시다가 최창화 몬시뇰님을 거쳐서 정세덕 신부님께서 실무 책  
임자 겸 위원장을 겸하셨습니다.

그래서 교구장으로서 위원장을 겸하는 건 제가 처음이지만 사실 그동안 주  
교님들께서 위원장을 역임해 오셨기에 초창기부터 전통이었다고 할 수 있습  
니다. 실무 책임자로 정수용 신부님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교구장으로서

제가 위원장을 맡았는데 이것은 교구장으로서 또 위원장으로서 민족화해위  
원회에 더 신경을 쓰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이 되신 뒤로 2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간의 민  
화위 활동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은 민화위는 우리 교구가 의욕적으로 시작한 일이었다는 점을 강조하  
고 싶습니다. 저의 바로 선임이신 염 추기경님은 당시 교구장으로 위원장직을  
직접 맡지는 않으셨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북한선교와 교구 민족화해위  
원회에 큰 관심과 사목적인 열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추기경님의 노력 덕분  
에 3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특히 지난 10년간 우리 교구 민화위는 교회 안에  
서 큰 역할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한반도평화나눔포럼’ 같은 경우는 국제적인 분쟁 지역의 교구  
장 주교님들을 모셔서 직접 그 분쟁 지역 교회의 목소리를 듣는, 정말 풀어나  
가기 쉽지 않은 큰 규모의 평화 포럼을 이어왔습니다. 민화위가 하는 ‘한반도  
평화나눔포럼’이 자리를 잡는 데 추기경님이 큰 역할을 해 주셨지요. ‘평화의  
바람 DMZ 국제 청년 순례’도 그동안 큰 호응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프  
로그램을 통해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청년들을 초청해서 평화에 대해 함께 생  
각하고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런 좋은 프로그  
램들은 자리를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부위원장 신부님과 함께 우리 교구 민화위의 활동을 새



롭게 맞추어 나가면서 중점을 둔 점은 창립 초창기의 마음을 잊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민화위 창립에 기여한 분들의 사목적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분단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기도>, <나눔>, <교육 연구>를 지속해 화해를 이루어 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최근의 남북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단절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활발하던 남북 민간교류를 통한 종교적인 교류를 전혀 이룰 수 없기에 <나눔> 사업은 큰 현실적 제약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 저의 부임 이후 시기에는 아무래도 <기도>와 <교육 연구> 부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는 늘 언제나 우리가 지속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나눔>은 직접적인 대북지원이 어렵기에 자연스럽게 북향민 관련 지원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연구>에서는 특별히 청년들에 대한 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초창

기의 사목적 목표를 기억하면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며 활동하다 보니 최근의 활동은 ‘연구’, ‘북향민’, ‘청년’으로 표현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이는 이 시대에 민화위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교구 민화위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키워드일 것입니다.

지난해 부위원장 정수용 신부님께서 민화위 산하기관으로 설립 10주년을 맞은 평화나눔연구소의 소장을 직접 맡으면서 연구소를 새롭게 개편하였는데, 연구소의 주된 업무인 연구를 좀 더 강화하려는 의도에서였습니다. 그리고 ‘북향민’이나 ‘청년’의 경우에는 그동안 해온 일들을 지속하면서 좀 더 넓고 깊게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특히 예전부터 진행한 북향민 가족들과 함께하는 성탄 축제는 성탄의 기쁨을 함께하고 미사를 봉헌하고 음식을 나누는 프로그램으로 호응이 좋습니다. 또 북향민에 대해 초기 정착 지원만이 아니라 사목적 관심을 강화하여 상담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추석 합동위령미사를 타교구와 협력하여 시행한 것도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 ‘DMZ 국제청년평화순례’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청년만이 아닌 일반 교우들을 대상으로 한 평화 기행과 강좌를 시작하게 된 것 등, 다양한 연구와 교육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우리 교구 민화위가 이루어 낸 좋은 사업들을 계승하고 또 한편으로는 타 교구 민화위와 협업을 좀 더 강화하면서 민화위의 첫 마음을 시대 변화에 맞춰 실현하는 것을 중심으로 움직이고자 합니다. 이것이 앞으로의 방향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족화해위원회가 남북 천주교 교류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사목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때, 평화에 대한 대(對) 사회적 메시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내야 한다는 요구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평화 메시지를 내는 데 있어서는, 말하자면 교회가 평화의 수호자가 되고 참된 평화가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진정한 평화를 추구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교회가 어떤 메시지를 낼 때 정치적인 상황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평화에 대한 메시지, 대 사회 메시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강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말을 듣기도 하는데 물론 그런 의견도 이해는 하고, 한편으로 교회의 역할을 계속 고민은 하지만 자칫 정치적인 상황 자체에 맞물려 들어가지는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어떤 메시지를 내더라도 이미 우리 사회가 이념적으로 대립하고 있기에, 교회의 메시지를 이념적으로 취사선택하는 것이 상당히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더욱 지혜롭게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치적으로는 접근법이 다를 수 있는데, 교회가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강하게 냈을 때 자칫 오해를 일으키고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심스럽지요. 정치적인 어떤 상황에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보편 가치로서의 평화와 평화의 가치와 참된 평화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면서 역할을 찾아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개신교나 불교 등 다른 종교 단체 혹은 시민사회와 연대를 통한 평화 만들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요청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타 종교나 타 단체와의 연대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교구 민족화해위원회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잘 소화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주의적 물품 지원이 가능했던 시절에는 개신교 뿌리를 가지고 있는 유진벨재단과의 협업을 통해서 북한에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계속 했고, 또 불교의 평화재단 쪽하고 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한반도의, 또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운동에는 어디라도 이렇게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는 그런 자세는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기회가 된다면 연대를 마다하지는 않겠다 하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다만 우리가 앞으로 타 단체나 타 종교와 연대할 때 조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 단체들이 우리와 민족의 화해와 일치, 평화에 대한 기본 입장은

같다 하더라도 교회의 가르침과 가치관이 다른 부분, 예를 들면 생명 윤리라든가 낙태라든가 아니면 성 윤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교회와 반하는 것을 주장하는 단체라면 그런 측면에 대한 조심성 있는 식별은 필요하겠단 이런 생각은 합니다.

**2025년은 민족화해위원회 설립 30주년이 되는 해이며, 희년입니다. 북한교회의 교형자매들을 생각하면서 민족화해위원회 30주년을 의미있게 보내기 위해서 신자들은 어떤 자세로 희년을 살면 좋을까요?**

우리 민족의 화해와 일치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는 게 필요하겠단 싶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안에서 평화 통일에 대한 관심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또 ‘평화 통일이 필요하냐’라는 설문조사에서 ‘필요하지 않다’는 대답을 하는 비율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스러운 상황을 보면서, 우리 안에서 민족의 평화와 일치와 화해, 또 공생과 상생 이런 부분을 좀 더 주장하고 교육하고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처음부터 담론이 바로 평화 통일로, 이렇게 가면 북한 쪽에서도 사실 이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왜냐하면 독일의 예를 보더라도 흡수 통일 하자는 것처럼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민족이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하지만, 바로 통일이라는 용어를 주장하면 사실은 현 상황에서는 도움이 안 되고 거부감이나 부담감을 줄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공생과 상생에 강조점을 두는 거지요. 그래

서 정말 때가 이르러서 무르익어갈 때 평화 통일에 대한 논의를 진전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남북이 같이 공생한다 상생한다 이런 부분의 이야기를 우리 안에서 좀 거대 담론으로 확산하고 나눌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10년 전 2015년 11월부터 ‘내 마음의 북녘 본당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이 운동의 경우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교구 차원에서 따로 시작했던, 10년 전에 했던 내 마음의 본당 운동의 의미가 좋고 아름답기 때문에 오늘날의 심성이나 분위기에 맞게 바뀌어서 새롭게 살려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북한에도 복음의 빛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면 내 마음의 북녘 본당 운동과 같은 기도운동을 함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교구 민족화해위원회의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가 매주 화요일 저녁에 주교좌 성당에서 있으니, 거기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계속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더 많은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관심과 동력도 모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차원에서 우리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밤 9시 기도도 지속적으로 해야겠지만, 교구 차원에서는 내 마음의 북녘 본당 운동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주제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7년은 평양교구 설정 100주년이자 동시에 세계청년대회(WYD)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교황님도, 그리고 대주교님도 간절하시겠지만, 우리 신자들도 북한교회와의 만남을 꿈꾸고 있습니다. 평양교구장 서리이자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27년 계획에 대하여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7년은 평양교구 설정 100주년이기도 하고 세계청년대회가 열리는 해이기도 합니다. 세계청년대회 날짜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7월 말에서 8월 사이에 개최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평양교구 100주년은 기념 전시회나 심포지엄 등 여러 가지를 기획해 볼 수 있는데, 세계청년대회 기간 중에 한 파트로 하는 것이 더 좋은지, 아니면 일단은 끝난 다음에 하반기 10월, 11월, 12월에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학술 심포지엄도 생각할 수 있고, 관련된 전시회 같은 것도, 예를 들면 북에 있는 57개 본당들을 주제로 한 미술 작품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전 북한 신자들의 신앙생활 모습들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하여튼 다양한 모습으로 전시회를 기획할 수 있을 거고요. 좀 더 신부님들하고 아이디어를 논의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구상은 조금 더 의논을 해가면서 구체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WYD 관련해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 북한 청년들의 참석입니다. 저희도 여건만 되면 정말 기꺼이 초대를 하고, 그래서 단 몇 명이라도 함께할 수 있다면 굉장히 의미가 클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남북 상황이 굉장히 경색되어 있고, 어떠한 소통도 막혀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행사 홍보

를 위해서 생색내기로 '북한 청년들을 초대한다'라고 발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데 선전 선동처럼 요란을 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성 있게 대화와 초대를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사전에 어떻게 준비하고 초대를 해야 정말 진심으로 느껴질지, 물론 그쪽의 응답이 예스냐 노냐는 또 별개입니다만 어쨌든 그쪽에 전달되는 우리의 모습이 생색내기가 아니라 정말 열려 있는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호소하는 방식이 북한에 닿으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민족화해위원회는 지난 30년간 기도, 나눔, 교육과 연구라는 세 가지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왔습니다. 그렇지만 2010년대를 전후로 남북 교류가 거의 단절되어 나눔 활동이 어려워졌습니다. 때문에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새로운 활동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대주교님께서 이러한 난국을 타개할 방안으로 생각하시는 바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 기억으로 남북관계가 지금처럼 완전히 경색된 결정적인 순간이 북한과 미국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회담, 즉 하노이에서의 두 번째 정상회담<sup>1</sup>의 결렬이랄까요. 거기서 북한이 원하는 어떤 결과

<sup>1</sup> 2019년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 간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다.

가 안 나오면서 그 직후로 이제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남북의 화해와 일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적인 여건과 여러 상황을 같이 보고 같이 움직여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고민이 많은 거지요.

재작년인가요? 한 2년 전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차원에서 남북 평화를 주제로 한 학술 세미나, 미국의 정의평화위원회, 즉 미국 주교회의 산하의 국제정평위와 우리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민족화해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국제심포지엄<sup>2</sup>이 미국 워싱턴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주교님들이 미국 국무부도 방문하고, 미국 의회도 방문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좀 있었는데요, 그때 미국에서도 기본적으로는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겠다는 자세가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북한의 입장도 그렇고 미국의 입장도 그렇고, 특히 북한은 미사일을 쏘거나 하는 등 여러 가지로 무력적 행동을 취하는 상황 속에서도 기본적으로는 대화로 풀어가겠다는 기본 입장은 있지만, 서로에 대한 신뢰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연결점이 좀 빠져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필요하다면 교황청이나 교황님께서, 예를 들면 쿠바와 미국의 1960년대 대치 상황을, 비사 차원이긴 합니다만 극적으로 중재하

2 주교회의 민족화해주교특별위원회와 민족화해위원회, 미국 주교회의 국제정의평화위원회 소속 주교들은 2022년 10월 4~7일에 미국 워싱턴 D.C.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가톨릭한반도평화포럼'을 개최하였다. 정순택 대주교는 민족화해주교특별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주교회의 민족화해주교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현 주교,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김주영 주교, 민족화해주교특별위원회 위원 김희중 대주교·박현동 아베스와 함께 참석했다. 미국 주교회의에서는 국제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데이비드 말로이(David John Malloy) 주교, 전 위원장 티모시 브롤리오(Timothy Broglio) 대주교 등이 함께했다.

시면서 국제적 갈등을 풀어낸 전례도 있듯이 미국과 북한 또 남한의 한반도의 대립 상황 속에서도 교황청이 중재한다든가 국제적인 구도에서 교회가 역할을 하는 지점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하여튼 같이 기도하면서 어떤 모멘텀(momentum)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인, 우리 안의 부분으로 보자면 민화위 30년간, 또 앞으로도, 지금은 남북 교류가 안 되고 굉장히 경색된 국면을 여러 해 지내고 있는데요, 오프 더 레코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국제적, 외교적 노력으로 미국과 어떤 딜을 하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으로서는 국제적인 경제 제재가 굉장히 심하고 또 다른 하나는 김정은 정권의 안정 보장 부분이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그런 목적에서 핵무기를 개발한 거고, 핵무기가 아직 국제적으로 공식 인정된 것은 아니지만 개발이 완료됐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다만 공식적으로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하게 되면 북한하고 미국하고 다이렉트로 협상을 하고 남한은 협상 대상에서 배제되어 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국제 외교가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공식적으로는 긍정하지 않지만 데 팩토(de facto)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사실상으로는 핵무기 개발을 인정하면서 남한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 김정은 정권을 흔들어서 교체하려는 시도가 아니라는 정권의 안정에 대한 보장을 하면서 평화적인 관계를 통해 국제 관계 안으로 끌어내려는 어떤 역할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유엔을 통한 경제 제재를 좀 풀어가고 부분적으

로 해제하는 역할을 대한민국 정부가 했습니다. 덕분에 북한에 대한 국제 경제 제재의 일부가 조금 풀리기 시작했단 말이지요. 이런 역할을 우리 정부가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북한하고 우리와의 어떤 대화의 창구를 마련할 수 있는 외교적 기술적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회교리에서도 경제 제재는 지극히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수단이고, 국민 전체 특히 가장 취약한 구성원들이 그러한 제재로 고통받게 되는 것은 정당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간추린 사회 교리』 507항 참조). 남북관계는 북미 관계에 큰 영향을 받기에 서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제재 완화를 포함한 신뢰 회복 조치들이 강구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좀 대외적인, 거창한 이야기였다면 교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 민족화해위원회의 지난 30년간, 또 앞으로의 활동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팎으로 우리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그리고 공생과 상생을 위한 관심을 계속 좀 더 교육·보급하고 관심을 고취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전부터 우리가 통일 기금<sup>3</sup>을 본당에서 적립하게 했어요. 지금은 적립 비율 규정은 안 하고 있지만 각 본당에서 알아서 액수를 정하되 꾸준히 통일 기금을 적립하도록 권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거나 중지된 본당도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당 차원에서의 통일 기금을 적립하는 것도, 이를 위한 신부님들의 관심을 재고하는 것도 우리 교구가

3 지난 1992년 주교회의 추계총회에서 1993년부터 각 교구별로 통일 준비 기금을 조성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서울대교구 소속 본당은 Port No. 91-64호와 천서 제104호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통일 기금을 매년 교구로 납부해야 한다(천주교 서울대교구 행정점검 25-009-130 2025년 1월 24일 자 공문 참조).

노력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통일 기금이 어떻게 모여지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잘 알리는 것도 교구 안에서 관심을 모으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대주교님의 말씀처럼 민족의 화해와 일치는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화해와 일치가 점점 더 어려운 듯합니다. 일련의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신자들이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생각하고 작은 실천이라도 할 수 있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우선 민족의 화해와 일치 또 더 나아가서 평화 통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진 채로 벌써 80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남북이 분단되고 고착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역사에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두 국가로 각기 발전하고 고착화 되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 젊은 세대를 포함해서 온 국민이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노력, 또 관심이나 기도가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떤 이데올로기의 문제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한 역사를, 오천 년 역사를 가졌고 한 문화 하나의 언어로 살아왔던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는 것은 마치 유기체, 생명체가 허리가 잘린 채로 영구하게 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민족 전체의 역사적 사명을 위해서라도 민족의 화해와 일치와 평화 통일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생과 상생 이런 부분을 우리가 먼저 사회적으로 공감하고 남북관계에 어떤 적절한 때가 오면 평화 통일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식으로 가야겠지요. 공생과 화해, 일치에 대한 관심이 결국 평화 통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의 역사적 숙제다' 이런 공감대가 좀 더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논리 안에서, 특히 젊은 세대 중에 일부가 그렇지요. 통일이 된다고 할 때 안 그래도 우리 젊은이들도 좋은 직장 구하기가 어려운 데, 북한 사람들이 일자리 다 빼앗아 가면 어떻게 하느냐, 또 못 사는 북한하고 합쳤을 때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지 않느냐 등 경제 논리로 굳이 평화 통일이 필요하냐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너무나 단견이라고 보고요.

오히려 순수하게 경제적 논리로만 보더라도 남북이 통일되고 하나가 된다면 우리가 지금 국방비나 분단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사실은 엄청나게 큰데, 이런 부분을 경제 발전으로 돌릴 수가 있고, 또 지금 남북으로 분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 주가라든지 상품 수출 이런 데서 발생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런 점도 극복될 수 있고, 사실은 순수한 경제 논리로만 보더라도 '통일은 필요하고, 통일이 양쪽에 다 득이 되는 거다'라는 점을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통일 비용을 걱정할 수는 있지만, 지금 치르고 있는 분단 비용에 비해 분단 해도 평화가 가장 큰 경제적인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통일 비용을 걱정하는 것 보다, 현실의 분단이 만들어 내고 있는 무수히 많은 비복음적 문화들, 그리고 이것들이 만들어 내는 엄청난 경제적 손해

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화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인류 문화사 측면에서도 남북의 평화 통일이 인류 역사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 세계에 여전히 많은 분쟁 지역이 있는데 우리가 평화 통일을 이룸으로써 그런 모습을 세계에 보여주면서 분쟁 지역의 하나의 역할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어려운 시기에 자발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고 민주화를 이룬 것이 다른 많은 나라에 희망을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평화 통일을 이룬다면 인류 문화사적으로도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한반도의 통일이 전 세계에 시사하는 상징성이 크지요. 우리 민족이 80년을 이어온 갈등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세계 평화를 위한 큰 모델을 남기는 것이고 여러 분쟁 지역에도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면 좋겠고, 그래서 바로 통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먼저는 공생·공존·상생·화해를 함께 고민하고 좀 더 널리 나아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